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尹錫曉

4-5世紀 伽耶 對外關係의 性格에 關한 硏究

The Study on the Nature of KAYA'S Intern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Fourth and the Fifth Centuries

1995年8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韓國古代史 專攻

林 範 植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尹錫曉

4-5世紀 伽耶 對外關係의 性格에 關한 硏究

The Study on the Nature of KAYA'S Intern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Fourth and the Fifth Centuries

위 論文을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8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韓國古代史 專攻

林 範 植

林範植의 文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5年 8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국문요약

본고는 4-5세기 가야 대외관계의 성격이 독립적이었음을 규명하는데 촛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이 분야의 대부분의 諸說들은, 문헌상에 가야에 관한 자료가 빈약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것도 주변국인 백제나 신라 및 왜와의 관계에 치우침으로써, 또한 연구자들이 고고학적 유적·유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강력한 국가체제로서의 흔적에 별반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가야가 562년 최종적으로 신라에 합병되어 멸망할 때까지 대외적으로 주변국들에 부속되었다는 내용의 논지를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대외관계에 있어 주도적이었느냐 종속적이었느냐 하는 것은 유동적인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나 해당국가의 상황변화에 따른 응집력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논리일 것이므로 이렇듯 표면적인 국력의 크기만을 가지고 그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가야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문헌들이 '가야는 주변국인 신라에 의하여 흡수된 국가' 라는 결과론적인 상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편향적으로 編纂되었다는 점에 유념할 때 이에 대한 문헌들에 대한 재해석은 필수적인 작업이고, 또한 현재 남겨져 있는 가야의 고고학적 유적·유물들은 가야의 국가체제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주로 가야의 대외관계에 관한 자료 재검토와 기존 연구를 토대로 4-5세기 가야 대외관계의 독립성을 규명하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제 1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가야의 대외관계에 관한 연구사를 정리한 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기존의 연구방향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 가운데 가야의 대외관계가 왜에 대한 종속관계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연구, 백제에 대한 종속관계로 이루어 졌다고 보는 연

구, 그리고 이들 두가지 연구를 종합하여 가야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어진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중 몇몇의 연구가 어느 정도 가야사적인 측면을 다루었지만 대체적으로 가야의 대외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문헌상의 기술내용을 크게 극복치 못하여 타율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극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II장에서 《日本書紀》 神功紀의 記事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이들 神功紀 記事들 중 49年條에 표현된 伽耶에 관해서 기존에 주로 일제시대 어용학자들이 과거 식민사학에 계보를 두고 왜 정권의 식민지적 기관인 '任那日本府' 가 설치된 국가라는 선입견을 내세워 온 바 있는데, 이러한 경향에 거부감을 느껴 온 국내학계에서는 상당한 기간동안(대체적으로 1960년대 까지) 《日本書紀》 전반에 걸친 불신감과 함께 사료비판 조차 기피하는 풍조가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의 양축에서 상호간 문화교류의 흔적을 나타내는 유적·유물 들이 大擧 出土, 檢證되면서 가야사에 관한 사료의 빈곤을 극복하고 연구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나 그 시도의 양태가 극히 소극적이고 범위에 있어서도 객관적 법칙의 틀에 묶어 놓은 채로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어졌기 때문에 가야사의 실상을 복원하는데 많은 발전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일제시대의 어용학자들이 가야정벌 및 경영의 주체를 왜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국내 학자들은 그 주체를 백제로 바꾸어 보는데 주력하여 오는 한편 동시에 이루어진 '新羅征伐' 과 그 '支配' 는 주로 신라가 당시 백제와 대등한 세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기록을 담고 있는 편향적인 시각에서 편찬되어진 三國史記의 신뢰를 바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본고는 日本書紀의 비판적 검토를 거쳐 가야를 좀 더 주체적인 입장에서 파악한 결과 이 사료에 반영된 왜의 가야 정벌 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와 왜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가야에 대한 '외교적 압력' 정도에 그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III장 1절에서 〈廣開土王碑文〉 庚子年條에 나타난 가야와 백제,

왜의 관계는 《日本書紀》神功紀 46年條에서 등맹을 이루게 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는 삼국의 대외관계가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서 군사작전이 독립적으로 행해졌음을 근거로 가야군이 백제나 왜의 용병이었다는 기존의 학설과 달리 두 나라에 대해 대등한 협조자로서 활동하였음을 밝혔다.

더불어 Ⅲ장 2절에서는 가야의 대내적인 세력재편과정도 함께 살펴 보았다. 즉, 〈廣開土王碑文〉 속에서 伽耶前期의 금관가야 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함안의 아라가야가 어떻게 해서 금관가야를 대신하여 그러한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는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관가야가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내적인 쇠퇴원인이 발생한데가 그에 더하여 4세기에 이르러서는 중국군현의 멸망으로 국력의 가장 큰 중심이었던 대외교역의 루트가 단절됨으로써 강국으로서의 면모가 줄어드는 반면 《三國志》韓傳 馬韓條의 記事나 天然의 自然地理的 環景을 검토하여 볼 때 弁辰 小國段階에서부터 금관가야 못지 않은 국력의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라가야가 강국으로서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Ⅳ장에서는 5세기 가야대외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과거 일본의 학자들에 의하여 가야가 왜의 식민지적 국가였다는 근거의 하나로 가장 많이 왜곡되어 온 바 있는 중국사서인 《宋書》왜국전에서 왜왕이 중국황제에게 요구하고 있는 加羅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국가들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假號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았다. 그 결과 중국황제가 왜왕에게 수여한 작호란 실질적인 내용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전통적인 조공국의 하나인 왜를 회유하기 위하여 준 형식적인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중국황제가 加羅王 荷知에게 제수한 '輔國將軍本國王'이란 칭호는 백제나 왜 등에게 중국황제가 제수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공국들에게 주는 형식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칭호가 국가의 위상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음을 밝힘으로써 당시 가야가 주변의 백제나 신라, 왜에 못지 않은 상당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 국가였고 그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갖고 있었음을 구명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4장에 걸친 논지의 전개를 종합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고의 고찰내용을 종합하여보면 가야는 백제나 왜, 고구려 등 주변의 국가들에 비하여 국력이 다소 열세에 놓였었던 점은 인정되나 기존의 학설처럼 대외관계를 펼침에 있어 백제나 왜의 '부용국'의 입장이 아니었였음은 물론 오히려 주변 국가간의 국제적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연구결과는 가야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야를 주변국인 고구려, 백제, 신라 등 한반도의 삼국이나 왜의 관계속에서 부수적인 역사로서 이해하여온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향후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目　　次

국문요약

머리말 1

Ⅰ. 對外關係의 立場에서 본 硏究史의 現況 8

Ⅱ. 4世紀 伽耶의 性格 16

Ⅲ. 廣開土王碑文 己亥, 庚子年條와 任那, 阿羅伽耶 41

Ⅳ. 5世紀 伽耶의 性格 90

Ⅴ. 4-5世紀 伽耶 對外關係 性格의 再定立 100

맺음말 111

參考文獻 117

* ABSTRACT 122

* 日文抄錄 127

머리말

지금까지 伽耶史 硏究의 방향은 대체로 가야를 국제관계의 틀 속에 편재시킨 연구와 가야사 자체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로 나누어 진행되어져 왔다.

전자는 가야가 고대 일본 大和정권의 식민지적 성격으로서 '任那日本府'가 설치된 국가라는 시각[1]과 이를 수정하여 가야를 지배한 국가를 왜가 아닌 백제로 주체를 바꾸어서 보는 시각[2]에서 이루어져 왔고, 한편 후자는 가야의 내부적인 발전과정에 촛점을 맞추는 측면에서 연구[3]가 진행되어져 왔다.

---

1) 津田左右吉, 1913, 〈任那疆域考〉《朝鮮歷史地理》1.
今西龍, 1919, 〈加羅疆域考〉《史林》4-3·4.
鮎貝房之進, 1937, 〈日本書紀朝鮮關係地名攷〉《雜攷》7, 上·下卷.
末松保和, 1956, 《任那興亡史》, 大八州出版社.
山尾幸久, 1978, 〈任那に 關する-試論-史料の檢討を中心に-〉《古代東アヅア史論集》下卷.
大山誠一, 1980, 〈所謂'任那日本府'の成立について〉上·中·下《古代文化》32-9·11·12, 古代史協會, 京都.
鈴木英夫, 1987, 〈加耶·百濟と倭-'任那日本府'論-〉《朝鮮史硏究會論文集》24.

2) 김석형,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千寬宇, 1977·1978, 〈復元加耶史〉 《文學과 知性》28·29·31.
- , 1991, 《加耶史硏究》, 一潮閣.
金鉉球, 1985, 《大和政權의 對外關係硏究》, 吉川弘文館.
- , 1993, 《任那日本府硏究-韓半島南部經營論批判》, 一潮閣.
조희승·김석형, 1988, 《초기조일관계사》(상)·(하), 사회과학출판사.

3) 文獻史學 系統
李丙燾, 1959, 《韓國史》1(古代篇), 震檀學會.
-, 1976, 〈加羅史上의諸問題〉《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pp. 305-350.
金哲埈, 1964, 〈韓國古代國家發達史〉《韓國文化史大系》1(民族·國家史), 고대민족문화연구소, pp. 484-487.
金廷鶴, 1977, 《任那と日本》, 小學館.
-, 1982, 〈古代國家의 發達〉《韓國考古學報》12.
-, 1983, 〈加耶史의 硏究〉《史學硏究》37.

이러한 諸硏究들 가운데 전자에 속한 연구는 내용에 있어 가야에 대한 대외관계적 연구의 현황과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는데, 이들 연구는 그것이 왜의 임나경영을, 혹은 백제의 가야지배를 논하든 간에, 서술의 주체를 가

- , 1987, 〈加耶의 國家形成段階〉 《精神文化硏究》 32.
- , 1988, 〈加耶國家의 形成〉 《伽倻文化》 1.
- , 1990, 〈加耶의 歷史와 思想〉 《傳統과 思想》 4, 정신문화연구원.
- , 1990, 〈加耶의 歷史와 文化〉 《韓國上古史硏究》, 범우사, pp.179-276.

鬼頭淸明, 1974, 〈加羅諸國の史的發展について〉 《古代朝鮮と日本》

李基東, 1982, 〈加耶諸國의 滅亡〉 《韓國史講座》 1(古代篇), 一潮閣.

李永植, 1983, 〈加耶諸國의 國家形成問題-'加耶聯盟說'의 再檢討와 戰爭記事 分析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 , 1985, 〈加耶諸國의 國家形成問題-'加耶聯盟說'의 再檢討와 戰爭記事 分析을 中心으로〉 《白山學報》 32.

文暻鉉, 1977, 〈加耶聯盟形成의 經濟的 考察〉 《大邱史學》 第12·13 合輯.

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硏究》, 一潮閣.
, 1988, 〈4世紀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變遷〉 《韓國古代史硏究》 1, 韓國古代史硏究會.

白承忠, 1989,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추이-수로집단의 등장과 포상팔국의 난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考古學系統

梅原末治, 1946, 《朝鮮古代の墓制》, 座右寶刊行會.

全吉姬, 1961, 〈伽耶墓制의 硏究〉 《梨大史苑》 3.

金元龍, 1963, 〈金海茂溪里支石墓出土器〉 《東亞文化》 1輯.
- , 1967, 〈三韓時代 開始에 關한 一考察〉 《東亞文化》 7輯.
- , 1982, 〈金海府院洞期의 設定〉 《韓國考古學報》 12.

李殷昌, 1981, 〈新羅·伽耶土器 編年에 關한 硏究〉 《曉星女子大學校硏究論文集》 23.

申敬澈, 1982, 〈釜山·慶南出土 瓦質系土器〉 《韓國考古學報》 12.

崔鍾圭, 1983, 〈瓦質土器의 檢討와 意義〉 《古代를 생각한다》 34.

趙榮濟, 1985, 〈水平口緣壺에 대한 一考察〉 《慶尙史學》 1.

禹枝南, 1986, 〈大伽耶古墳의 編年-土器를 中心으로-〉 《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1.

金鍾徹, 1988, 〈北方地域 加耶文化의 考古學的 考察-高靈·星州·大邱를 中心으로〉 《韓國古代史硏究》 1.

崔秉鉉, 1992, 《新羅古墳硏究》, 一志社.

야에 두지 않았다는 연구시각의 한계성 때문에 진정한 가야사라고 보는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4] 즉,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가야가 자주성이 결여된 타율적인 대외관계를 전개하였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야 자체의 역사를 동한시한 점이 없지 않다.

한편 후자의 경우도 전자를 보완하기 위해 가야사를 주체적인 시각에서 다루려고 한 점에서는 그 공로가 인정된다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문헌사학 계통의 연구에서는 《日本書紀》 소재의 사료나 고고학자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몇몇 단편적인 기사나 신화류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가야사의 복원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편년이나 지역발전 추세 등의 기본적인 면에서 체계적인 이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고학계통의 연구에서는 편년이나 발전추세의 대강을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사학의 引導를 받지 못하여, 묘제 및 유물자료가 나타내 보여주는 가야문화의 성격과 범위를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하고 있다.[5]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기존 諸연구의 문제점을 인식한 바탕 하에서 7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어져온 고고학적 유적 유물들의 발굴성과와 국내외 문헌사료를 종합적으로 접목시켜 가야의 대외관계적 측면과 내부 발전적 측면을 병행하여 가야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기 시작함으로써 가야사 전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6]

---

4) 金泰植, 1992, 〈加耶史研究의 現況〉 《韓國史市民講座》, p.125.
5) 金泰植, 위의 論文, pp.128-129.
6) 이러한 論著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金泰植, 1985, 〈5세기 후반 대가야의 발전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1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 1986, 〈後期耶加諸國의 성장기반 고찰〉 《釜山史學》 11, 부산사학회
- , 1988, 〈 6세기 전반 加耶諸國南部의 소멸과정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1, 한국고대사연구회.
- , 1992, 〈加耶諸國聯盟의 成立과 變遷〉,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尹錫曉, 1990, 《伽耶史》, 民族文化社.
- , 1993, 《伽耶國と倭地》(廉川 晋 譯), 新泉社.

그러나 이러한 論著들도 독자적인 면에서 가야 자체의 내적인 발전을 규명하는 데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여지나 대외관계적 측면에서 가야를 인식함에 있어 尹錫曉의 著述을 비롯한 일부의 論考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형태만을 달리 보았을 뿐 시기에 따라 주변국인 백제와 신라 및 왜와의 관계 속에서 가야를 파악하는 등 가야의 대외관계사를 6세기 중엽 인접국인 신라에게 멸망한 약소국가라는 결과론적인 입장으로 기울어져 파악한 듯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기존의 논고에서 가야사의 국제적 위상이 왜소한 성격을 탈피해 오지 못한 이유는 일단 가야관계 사료가 부족하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료가 존재한다하더라도 비교적 上代紀에 編纂되어진 《三國遺事》의 〈駕洛國記〉와 같이 加耶의 '國史'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이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야 설화적으로 改撰된 史實을 전해주는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몇몇 사서에 단편적인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비교적 가야관계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은 《三國史記》나 《日本書紀》는 편향적인 입장에서 서술된 것들이기 때문에 가야관계사의 實狀을 규명해 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三國史記》나 《日本書紀》를 주된 근거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한계성을 인정한 바탕 하에서 기존의 사료해석방법을 객관적인 사료비판을 통해 좀 더 수정하고 심화시키는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李永植, 1993,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延敏洙, 1990, 〈6世紀前半 加耶諸國을 둘러싼 百濟·新羅의 動向-소위 '任那日本府' 說의 규명을 위한 序章-〉 《新羅文化》 7, 東國大新羅文化研究所.

- , 1994, 〈加耶諸國をめぐる國際關係と任那日本府論〉 《日本古代國家形成期の對外關係研究》, 九州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백승옥, 1992, 〈新羅·百濟 角逐期의 比斯伐 加耶〉 《釜大史學》 15·16.

田中俊明, 1992,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본고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기존 학계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사료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4-5세기 국제관계속에서의 가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에 대한 시기와 범위를 4-5세기로 정한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 이전의 '狗耶'라는 弁辰 小國段階의 概念에서 이 당시에 이르러서야 '伽耶'로서 '國家'의 개념으로 정의되기 시작하는 발전단계를 지니게 됨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학설[7]이기 때문이다. 즉, 대외관계라는 개념은 '國家'의 개념[8] 하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학계에서 그동안 사료발굴작업을 통해 가야사의 대외관계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료들이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만큼 이러한 연구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우선 Ⅰ장에서는 연구사를 정리하여 가야의 대외관계연구의 성격에 관한 諸說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하고 이들의 접근태도나 방식을 각각 비판하게 될 것이다.

Ⅱ장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우선 4세기에 해당되는 가야관계사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4세기 가야 대외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범위를 축소하여 《日本書紀》의 神功紀 記事에 나타난 가야관계를 역사적 상황과 결부시켜 再檢討하여 구체적인 대외관계의 성격을 究明하고자 한다. 이렇듯 사료의 검토범위를 《日本書紀》 神功紀 記事들로 축소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日本書紀》자체가 내용이 다분히 설화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황국사관'의 틀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객관성이

---

7) 이렇듯 4세기를 전후하여 弁韓史와 伽耶史를 분리해 보는 방법을 최초로 도입한 것은 千寬宇였고 이후 학자들이 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현재에는 일반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8) 이 시기에 해당되는 가야의 '國家'의 개념에 관한 정의는 학설에 따라 多岐하나, 본고의 성격상 그것을 詳論할 바는 못되므로 이 시기가 金海와 昌原을 비롯한 여러 가야지역에서 고총고분의 시대임을 근거로 고대국가단계에 버금가는 '領域國家'로 파악하고 있는 尹錫曉의 견해(尹錫曉, 1990, 앞의 책, pp. 57-58)에 따르고자 한다.

의심받아져 왔고 국내에서는 기록자체를 작문이라고 보아 사료로서의 가치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우기 일제시대에는 일본의 관변 어용학자들에 의하여 《日本書紀》의 기록을 '神聖視'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경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일본의 학자들조차 그 기록을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최근 들어서는 일본과 국내에서는 《日本書紀》의 기록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적절한 사료비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를 해석함으로써 가야사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고 있다. 사실 《日本書紀》는 그 내용 중에도 나타나듯 百濟三書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 중에서도 神功紀의 記事들은 기존 일본 관변학자들에 의하여 '任那日本府'說의 根據로서 가장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再解釋을 통해 가야의 對倭 관계에 대한 정당한 복원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장 1절에서는 또한 《日本書紀》의 神功紀 記事와 더불어 '任那日本府'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여겨지던 〈廣開土王碑文〉 己亥, 庚子年條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4-5세기에 있어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국제적 상호질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任那, 阿羅伽耶의 對外關係적 性格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문의 내용은 가야나 왜에 대해서는 공동의 적인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를 전쟁기사를 통해 서술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기록을 담고 있는 《三國史記》나 《日本書紀》에 기재된 어느 伽耶關係 記事보다도 상대적인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야의 대외관계적 성격을 把握하는데 있어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렇듯 비문 중에서 己亥·庚子년조를 선택해서 살피려는 이유는 그 동안 비문에 대한 연구가 '辛卯年'條에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당시 가야사를 비롯한 동아시아사가 편중적으로 규명되어져 왔음을 인식하여 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와 더불어 비문 중에서 '對外關係'의 파악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두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Ⅲ장 2절은 Ⅲ장 1절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서술되는 것으로 廣開土王碑文 속에 나타난 任那, 阿羅가야의 그 비문 속에 나타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비문의 任那, 즉 金官伽耶가 쇠퇴하고 阿羅伽耶가 가야내의 새로운 주도세력으로서 등장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피게 될 것이다.

Ⅳ장에서는 5世紀 伽耶 對外關係를 살핌에 있어서 中國史書인 《宋書》倭國傳 倭王의 상표문 속에 나타난 가야의 대외관계적 性格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이《宋書》의 記事를 일본의 학자들이 4세기대의 《日本書紀》 神功紀 記事나 〈廣開土王碑文〉과 더불어 '任那日本府說'의 중요한 근거로 왜곡, 설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재검토를 요하는 부분인 것이다.

끝으로 Ⅴ장에서는 앞의 네 장(chapter)에 걸쳐 記述한 4-5세기 가야의 대외관계적 性格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Ⅰ. 對外關係의 立場에서 본 硏究史의 現況

가야의 대외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일제시대의 식민사학에서 출발한 '任那日本府'의 성격규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왔다. 즉, 가야사에 대한 근대 일본학자들의 접근[9]은 《日本書紀》에 나오는'任那'관계 한반도 지명에 대한 고증작업으로 나타났으니 이는 가야사 연구의 기초작업으로서는 필수적인 것이었으나, 이들의 연구는 '植民史觀'의 도입이라는 목적의식 하에 '倭의 任那支配'라는 선입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인 연구성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10] 결국 이렇듯 정치성을 띤 고정적인 틀의 토대 하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今西龍은 호칭의 '개념상에 있어' 古代韓半島內에서 加羅諸國이라고 칭하는 것을 일본에서 任那諸國이라고 칭하는 것과 동일시하였고[11] 鮎貝房之進은《日本書紀》에 나오는 임나의 지명범위를 경남·경북 및 충남·전라까지 확장시켜 신라·백제의 수도인 경주 및 부여·공주 부근을 제외한 한반도 남부 전역을 '任那' 즉, '倭의 支配領域'으로 설정 하였다.[12]

末松保和는 菅政友의 〈任那考〉를 비롯, 이러한 식민사관에 토대를 둔 일본학자들의 선행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른바 '任那'論을 체계화한 논고

---

9) 菅政友, 1907, 《菅政友全集》, 國書刊行會.
那珂通世, 1894-1896, 〈朝鮮古史考〉 《史學雜誌》 5-3~7-3.
津田左右吉, 1913, 〈任那疆域考〉 《朝鮮歷史地理硏究》.
今西龍, 1919, 〈加羅疆域考〉 《史林》 4-3·4.
鮎貝房之進, 1937, 〈日本書紀朝鮮關係地名考〉 《雜攷》 7, 上·下卷.
池內宏, 1947, 《日本上代史の一硏究》, 近藤書店.

10) 金泰植, 1992, 〈加耶諸國聯盟의 成立과 變遷〉,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2-3.
_ , 1992, 〈加耶史硏究의 現況〉 《韓國史市民講座》 11, 一潮閣, pp. 121-122
- ,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p. 2.

11) 今西龍, 1912, 〈加羅疆域考〉 《朝鮮古史の硏究》, p. 292.

12) 金泰植, 1992, 앞의 논문, 《韓國史市民講座》 11, pp. 재인용.

13)를 내놓았다. 그는 任那는 "일본밖에 있는 일본의 서쪽 땅으로서 현재는 한반도의 일각에 있는 땅"14) 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왜에 대한 임나 종속의 하한을 《日本書紀》 효덕천황 2년 記事15)를 통해 추출한 뒤 "任那興亡史는 결국 일본 대륙관계사의 일부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대륙관계사는 대략 350년대부터 640년대에 이르는 약 300년간을 任那期라고 총괄파악해야 할 것이다"16) 라고 일본의 한반도 남부경영론을 정리, 완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논고는 문헌자료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탓으로 그가 스스로 인정하듯17) 논증의 과정에 있어 무리하고 막연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러한 일본학계의 통설을 비판하고 색다른 구상을 이루어 낸 것은 井上秀雄이다.18)

그는 任那가 대화정권의 통치기구적 성격을 지녔다는 기존의 학설과는 달리 '任那日本府'란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本紀등 百濟三書가 6세기경의 任那에 있던 왜인중심의 합의 정치조직으로서의 정치집단을 마치 대화정권의 권력기관처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았다.19)

또한 임나제국이 국가통일을 이루어 낼 수 없었던 원인을 대화정권의 한반도 진출과는 무관한 내부적 요인으로 파악하여 지리적 조건에 따른 농업기술이 생산력이 풍부하고, 식량생산의 主原이 되는 水稻作중심이 되지못하고 보조생산력의 원천인 畑作중심으로 하는데 있었음을 암시20) 하는 한편 《三國史記》, 〈廣開土王碑文〉 등에 보이는 왜는 대화정권의 군대로서 대마도를 건너온 왜가 아니라 대화조정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독립적 세력으로서 조선 남부에 있던 왜인, 왜병이었고,

---

13) 末松保和, 1946,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社 參照

14) 末松保和, 위의 책, p.215

15) 《日本書紀》, 孝德天皇 大化改新 2年 9月

「九月, (前略)遂罷任那之調.」

16) 末松保和, 1956, 앞의 책, p.245.

17) 末松保和, 위의 책, p.20.

18) 井上秀雄, 1978, 《任那日本府と倭》, 寧樂社 參照.

19) 井上秀雄, 위의 책, p.91.

20) 井上秀雄, 위의 책, pp.209-210.

이것을 임나의 別名으로 파악하였다.[21]

그의 논고는 언뜻 보면 이른바 '南鮮經營論'과는 다른 종류의 논고로 비칠 수 있으나 당시 왜의 농업환경과 비교하여 가야의 자주성을 인정치 않은 점,그리고 왜 본토와의 연계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점 등에서 당시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경향의 아류에서 크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내용에 있어 한반도 내의 독립적인 왜세력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규명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鬼頭淸明은 6세기 전반의 가야제국은 정치사회형성의 바로 전단계로서 旱岐層이 분화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었는데 가야제국간의 통일체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요지의 논고를 발표하였다.[22]

그는 종래 加羅諸國을 일본고대사연구에서는 임나일본부의 문제로서 인식하여왔고 이것을 대화조정의 조선침략의 거점으로 파악함으로써 임나문제의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23]

그는 임나일본부를 가라제국의 합의체에 참가하는 기구로서 이전부터 조선에 있던 왜의 잔존세력으로서 官人集團이고 대화정권과는 무관하다고 하였으며 《日本書紀》에 나타난 '貢納'적 성격으로서 임나의 調는 왜의 후계왕조로서 대화정권에로의 移行·成立에 수반하여 생겨난 임나개입의 실현형태라고 보았다.[24]

또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가야관계기사를《日本書紀》와 관련시켜서 가야제국의 정치신분제도를 고찰하였는데[25] 그 내용은 가라제국이 내재적 발전을 이루었던 근거로서 6세기 전반에 이르러 초보형태의 정치신분

---

21) 井上秀雄, 위의 책, p.116-122 參照.

22) 鬼頭淸明, 1974,〈加羅諸國の史的發展について〉《古代朝鮮と日本》(朝鮮史研究會編, 旗田巍 監修), 龍溪書舍:1976,《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東京:校倉書房.

23) 鬼頭淸明,1974,위의 책,pp.115-116.

24) 鈴木靖民, 1985, 〈付論 前近代對外關係史の研究動向〉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p.582에서 인용.

25) 鬼頭淸明, 1974, 앞의 논문, pp.120-136

\- , 1976, 앞의 책, pp.208-210

제도가 형성되었으나 백제와 신라의 침략과 간섭으로 약화된 뒤 마침내는 멸망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논고는 제도적인 면에서 실증적으로 가야의 내재적 발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인정할 수 있으나 旱岐층을 중심으로 가라제국의 공통된 외교문제를 討議, 결정하는 의결기구인 '任那日本府'에 일본본토에서 온 官人이 함께 참가하였다고 봄으로써 井上秀雄의 그것과 같이 남선경영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山尾幸久는《日本古代國家の形成》(岩波書店)에서 일본고대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던 大和政權과 任那諸國을 서로 연관시켜 5세기 후반 任那에서 政權을 잡았던 백제정권의 목협만치가 왜국으로 이주하면서 대화정권 속에 편승한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형성된 정치집단이 任那의 후계자로서 자처하며 백제에 대하여 개입하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임나정책을 취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支配」라고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논했다. 이 說은 〈任那成立の史料について〉《日本史研究》154, 〈任那に關する一試論〉《古代東アジア史論叢》下(吉川弘文館)에서 검증되어지고 있는데, 대화정권의 조선진출을 5世紀代의 일로서, 또 井上說以後의 任那日本府=任那諸國合議機關說과도 다른 새로운 任那史상을 전개하고 있다.[26]

그의 연구결과는 일본서기를 다소 객관적으로 해석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백제귀족이 왜에 망명한 결과 왜가 가야에 대신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 내의 백제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은 논지의 전개라고 생각된다.

鈴木英夫는 임나성립에 대하여 '任那日本府'는 가야 在地지배층의 요청에 의하여 530년에 왜왕권이 군사진출함으로써 성립되었으나, 그 이듬해인 531년에 百濟의 安羅進出에 의하여 종결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연구는 왜의 임나지배 기간을 단 1년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임나일본부의 존립시기와 의의를 극도로 축약한 결과라고 하겠다.[27]

---

26) 鈴木靖民, 1985, 앞의 책, pp. 582-583 에서 인용.
27) 金泰植, 앞의 논문, pp. 6-7.

이상과 같이 살핀 일본학계의 가야의 대외관계 논고들은 앞서 말했듯이 이른바 '植民史學'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저술되었기 때문에 편벽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井上秀雄을 필두로 나온 70년대 이후의 것들은 어느 정도 객관성과 다양성이 증대된 측면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任那日本府'의 간접적인 틀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일본학계의 논고들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처음으로 고대한반도의 입장을 축으로 한 가야사를 구성해 낸 사람은 북한의 김석형이다. 그는 《日本書紀》 내용의 천착과 그 외 한·중·일의 자료 및 일본고고학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삼한삼국의 분국설' 이라는 획기적인 주장을 제창해 냈다.[28] 그 주장의 요지는 北九州를 중심으로 古代韓國의 分國들이 일본열도내에 진출하고 있었는데 《日本書紀》에 나타난 한반도와 倭 關係 諸 記事들은 이러한 분국의 일들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선경영론'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任那日本府說'에 관한 논리의 빈곤함을 드러내고있던 일본학계에 큰 충격과 동시에 시각의 범위를 넓혀주었고 국내학자들에게도 자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내용 중 특히 古墳時期 일본열도내의 고고학적 자료를 한반도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해석한 점은 이 논리의 실증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학설이 기존의 통념을 깨고 가야를 비롯한 고대 한반도 국가들과 일본열도에 관한 새로운 연구지평을 넓혀 주었다는 점에서는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반도 내에서의 '任那'의 성격을 비롯한 가야사상의 제문제를 파악하는데는 다소 소홀함으로써 기존 일본식민사학자들이 韓半島史를 연구하는 태도를 지녀왔던 것에 지나치게 상대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어 국내의 千寬宇는 4-6세기에 걸쳐 사료에 나타난 가야에 대한 백제의

---

28) 김석형,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 , 1974, 〈三韓三國の日本列島内分國について〉《古代日本と朝鮮の基本問題》
- , 1988, 《초기조일관계사》(하), 사회과학출판사.

역할에 주목하여 '任那日本府'의 주체를 백제로 바꾸어보는 논고를 발표하였다.[29]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야사를 早期, 中期, 晩期의 3단계로 나눈 뒤 中期 즉, 4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日本書紀》 神功期 49년인 369년의 사료해석을 통해 이 시기 서울 강동방면에 본거지를 두었던 백제가 전남해안 방면까지 진출하면서 낙동강 지역의 가야도 그 세력권에 편입시킨 후 파견군 사령부를 설치하여 6세기 중엽까지 통치했던 것인데 《日本書紀》는 이를 任那國司가 행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고 하였다.[30] 또 AD 500년 이후 가야는 백제·신라의 각축장이 되어 신라는 낙동강유역으로 침투하고 백제는 남해안 방면에서 침투해 결국 562년 멸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논고는 고대 일본 '대화정권' 중심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고 이를 한반도 내 국가들 간의 역동성으로 이해하는 업적을 이룩하였으나 백제의 가야지배를 강조한 나머지 그 기간을 지나치게 넓게 잡아 고고학적인 문화양상에 모순을 초래한 감이 없지 않다.

金鉉球는 千寬宇의 說을 받아들인 뒤 이를 보완하여 고대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관계는 임나를 대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백제와의 관계가 그 중심이었다는 논고를 발표하였다.[31]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세기 전반에 이루어진 백제와 왜왕의 관계는 백제가 선진문물을 제공하고 왜의 대화정권은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특수한 용병관계였는데, 그 과정에서 임나를 지배하고 군을 상주시킨 것은 백제였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앞의 논고에서 밝히지 못한 《日本書紀》에 보이는 대화정권의 임나지배의 기원과 經營過程, 지배기구의 성립과정에 대한 논고를 추가하여 발표하였다.[32] 이 내용은 대화정권의 임나지배의 기원과 경영과정 및 그 지배기구의 성립과정을 보여주는 기사들은 그 原史料인 百濟三書에는 그 사실들이 백제에 의한 것이지 대화정권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百濟三書에 백제에 의한 것으로 되어있던 임나관계가 《日本書紀》에 대화정권에 의한 것으로 된 것은 임나관계의

---

29) 千寬宇, 1977·1978, 〈復元加耶史〉 上·中·下 《文學과知性》 28·29·31.
30) 千寬宇, 위의 논문(中), pp. 913-929.
31) 金鉉球, 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32) 金鉉球, 1993, 《任那日本府研究》, 一潮閣.

단초를 열었거나 그 경영과정에 참여했던 백제의 장군이나 그 자손들이 도일하여 대화정권에 참여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임나에서의 활동이 대화정권의 명에 의한 것처럼 개작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論考는《日本書紀》를 통해 전개된 日本中心의 '任那日本府'說을 갈은 史料를 통해 具體的인 反論을 提起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發展的이나 기존의 고고학적인 발굴성과와 접목시켜 문화의 계승적 측면을 설명하는데는 微塵한 감이 있다.

尹錫曉는 가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제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간행한 단행권을 통하여 가야가 고대국가단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논하였다.[33] 세부적으로 볼 때 특징적인 것은 任那日本府를 九州에 진출한 가야인이 본국인 가야지방에서 수시로 교역을 수행하던 임시교역소였으며 신라와 백제까지도 이곳을 통하여 문물을 교환하였다고 하여 가야의 자주성을 구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기존의 주로 정치사적인 편향적인 입장에서 서술된 가야관계 史書 및 論著들의 단점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로서 가야사에 관한 주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 金泰植은 기존의 諸 論考들의 문제점들을 指摘하고 문헌학의 취약성을 고고학으로 적절히 메우면서 가야사를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하였다.[34] 그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연구경향을 고대한일관계사 연구와 내적발전과정 연구로 인식하고, 이들이 모두 《日本書紀》를 비롯한 문헌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考古學的인 자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연구의 시각을 가야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들이 지적된다. 첫째, 가야의 국체를 시기에 따라 금관, 대가야의 전·후기 '연맹체'라는 고정관념의

---

33) 尹錫曉, 1990, 앞의 책.
- , 1993, 앞의 책.

34)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률 속에 고정시킴으로써 사료 상에 두 가야와 동시에 등장하는 阿羅나 卓淳伽耶같은 다른 가야들의 발전상에 관한 설명이 미흡한 감이 있다. 둘째는, 고고학과의 접목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일시적인 영토점령의 記事를 유적, 유물상의 영향과 연결시키는 것[35]과 같은 무리한 해석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로 任那日本府의 성격을 '특수외무관서'로서 한정시켜 보았는데, 이는 사료 상에 나타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종래 볼 수 없었던 방대한 자료의 이용을 통한 가야사 전체의 '종합적 고찰'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가야의 대외관계를 둘러싼 연구들은 시각의 '편향성'이라는 측면과 고고학적 참고자료의 빈곤이나 문헌사료의 추상성 등으로 인해 정설이 확립되지 못한 채 혼란을 거듭해 왔으므로 항상 再考되어져야 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35) 金泰植, 위의 책, P.125.

II. 4世紀 伽耶의 性格

한국 및 일본의 文獻과 金石文에 나타난 가야관계 諸史料들 중 가야의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諸사료의 서술방식이 그렇다고 해서 가야가 항상 타국들과의 국제관계 속에서 까지도 부수적인 지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오히려 韓國史料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편찬방식이 참고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가야대외관계의 실상을 기술하는데 치중하기보다는 가야가 신라에 의하여 병합된 결과론적인 상태에 대해 이는 가야가 약소국이었음을 방증 하는 것이라는 선입관 하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원인일 것이고, 日本史料의 경우에는 황국사관에 근거하여 편찬된 탓으로 그 형평성을 잃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오랜 세월을 두고 가야의 대외관계에 관한 모든 '史實'硏究의 뿌리가 되어 온 諸史料에 관한 적절한 사료비판 및 그에 대한 기존연구의 비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日本書紀》 神功紀 記事들은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해서는 가야의 대외관계를 '任那日本府'를 근거로 한 백제나 왜에 대한 종속관계의 틀 속에 한정 지우는 역할을 하여 온 바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 記事들의 재검토를 통해 이러한 기존 연구의 오류를 지적하는 한편 4세기 가야의 대외관계를 재검토함으로써 나름대로 그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대외관계라고 하는 것은 외교방침을 결정하는 諸國內의 支配層의 국가통치상의 이해관계와 관계 諸국가의 상호간의 국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성립되는 만큼 가야의 대외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당시 가야관계국가의 국내외 정세와 더불어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36]

---

36) 金鉉球, 1994, 〈4세기 가야와 백제·야마토왜의 관계〉 《韓國古代史論叢》, 財團法人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P.115. 參照

논지의 전개에 앞서 밝혀둘 것은 神功紀의 記事 기년은 본래《日本書紀》의 연대로는 3세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역사적 史實의 내용이 두 干支를 내려야 부합되므로 일본학계에서는 간지를 내려서 4세기로 보는 것이 三品彰英의 연구(三品彰英, 1982,《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吉川弘文館)이래 통설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따르고자 한다.

논점이 되어 왔던 가야관계 神功紀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가. 四六年春三月乙亥朔, 遣斯摩宿禰于卓淳國. 斯摩宿禰者, 不知何姓人也. 卓淳王末錦旱岐, 告斯摩宿禰曰, 甲子年七月中, 百濟人久氐, 彌州流·莫古三人, 到於我土曰, 百濟王, 聞東方有日本貴國, 而遣臣等, 令朝其貴國. 故求道路, 以至于斯土. 若能教臣等, 令通道路, 則我王必深德君王. 時謂久氐等曰, 本聞東有貴國. 然未曾有通, 不知其道. 唯海遠浪蛇, 則乘大船, 僅可得通. 若雖有路津, 何以得達耶. 於是, 久氐等曰, 然卽當今不得通也. 不若, 更還之備船舶, 以後通矣. 仍曰, 若有貴國使人來, 必應告吾國. 如此乃還, 爰斯摩宿禰卽以傔人爾波移與卓淳人過古二人, 遣于百濟國, 慰勞其王. 時百濟肖古王, 深之歡喜, 以厚遇焉. 仍以五色綵絹各一匹, 及角弓箭, 幷鐵鋌四十枚, 幣爾波移. 便復開寶藏, 以示諸珍異曰, 吾國多有是珍寶. 欲貢貴國, 不知道路. 有志無從. 然猶今付使者, 尋貢獻耳. 於是, 爾波移奉事而還, 告志摩宿彌. 便自卓淳還之也.

(《日本書紀》神功紀 46年條)

나. 四九年春三月, 以荒田別·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氐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 奉上沙白·蓋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沙沙奴跪 是二人, 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 與沙白·蓋盧共遣之. A. 俱集于卓淳, 擊新羅破之. B. 因以, 平定比自㶱·南加羅·㖨國·安羅·多羅·卓淳·加羅, 七國, 仍移兵, 西廻之古奚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

及王子貴須，亦領軍來會．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自然降服．時以，百濟王父子及荒田別·木羅斤資等，公會意流村．今云州流須祇 相見欣慼，厚禮送遣之．唯千熊長彦與百濟王，至于百濟國，登辟支山盟之．復登古沙山，共居磐石上．時百濟王盟之曰，若敷草爲坐，恐見火燒，且取木爲坐，恐爲水流．故居磐石而盟者，示長遠之不朽者也．是以，自今以後，千秋萬世，無絶無窮．常稱西蕃，春秋朝貢．卽將千熊長彦，至都下厚加禮遇．亦副久氐等而送之．

(《日本書紀》神功紀 49年條)

다．六十二年，新羅不朝．卽年．遣襲津彦擊新羅．百濟記云 新羅不奉貴國．貴國遣沙至比跪令討之．新羅人莊飾美女二人令誘於津，沙至比跪，受其美女，反伐加羅國．加羅王己本旱岐，及兒百久至·國沙利·伊羅麻酒·爾汶至等，將其人民，來奔百濟，百濟厚遇之．加羅國王妹旣殿至，向大倭啓云，天皇遣沙至比跪以討新羅．以納新羅美女，捨而不討．反滅我國．兄弟人民，皆爲流沈，不任憂思．故，以來啓．天皇大怒，卽遣木羅斤資，領兵衆來集加羅，復其社稷．一云，沙至比跪，知天皇怒，不敢公還．乃自竄伏．其妹有幸於皇宮者．比跪密遣使人，問天皇怒解不，妹乃託夢言，今夜夢遣沙至比跪．天皇大怒云，比跪何敢來．妹以皇言報之．比跪知不免，入石穴而死也

(《日本書紀》神功紀 62年條)

가.의 史料는 일단 내용이 후대에 어느 정도 윤색이 되어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왜냐하면 문장 중에 '見東方有日本貴國'이라고 하여 '日本'이란 명칭이 나오는데 倭가 국호를 日本으로 바꾼 것은 6세기 후반，구체적으로 670년이기 때문이다．즉，이러한 사실은 《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 10년 12월조[37]와 新唐書 日本傳[38]에도 나와 있으므로 이 사료는 그 내

---

37) 《三國史記》文武王 10年 12月條
「倭國更號日本，自言，近日所出以爲名」

38) 《新唐書》日本傳
「日本古倭奴也(中略)咸亨元年(670)遣使賀平高麗，後稍習夏音，惡倭名，更號日

용을 《日本書紀》撰者가 어느 정도 改撰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은 학계의 통설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반면 연대를 甲子年이라는 干支를 가지고 표시하는 등 「百濟記」에서 유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39]그 왜곡은 백제가 주체가 된 사실을 왜에 유리하게 서술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내용은 4세기들어 가야제국 중 卓淳이 백제 및 왜와 외교관계를 맺는 한편 백제와 왜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개지로서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卓淳의 위치에 대하여는 기존 1) 음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達句火 즉 大邱로 비정하는 축[40], 2) 창원으로 비정하는 축[41], 3) 昌原-漆原지역으로 비정하는 축[42], 그리고 4) 漆原으로 비정하는 축[43]을 대표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을 놓고 볼 때 백제가 왜와의 교통을 위해 중재를 요청한곳이라면 교통상 편리한 남해안의 국가를 선택했을 것이 예상되므로 내륙쪽에 치우친 대구보다는 해안에 가까운 2), 3), 4)의 의견에 더 가까운 듯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창원설의 경우 이곳은 동래·울산과 함께 조선시대 왜관이 두어진 삼포의 하나(乃而浦)가 위치했던 곳으로 해로 교통상

本,圖近日以爲名(後略)」

39) 金鉉球, 앞의 논문, p.118.

40) 鮎貝房之進, 1937, 〈日本書紀朝鮮地名攷〉 《雜攷》 7 上卷 pp.143-151, 下卷, pp.72-102.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pp.46-47, 141-145.
千寬宇, 1977, 〈復元加耶史〉(上) 《文學과 知性》 28, p.303.
朱甫暾, 1982,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新羅의 膨脹과 關聯하여)〉 《慶北史學》 4, pp.174-175.
金鉉球, 앞의 논문, p.117.

41) 今西龍, 1919, 〈加羅疆域考〉 《朝鮮歷史地理研究》 1, pp.346-352.
金廷鶴, 1983, 〈加耶史의 研究〉 《史學研究》 37, pp.48-50.
金泰植, 1992, 〈加羅諸國聯盟의 成立과 變遷〉, 서울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pp.188-198

42) 金廷鶴, 1990, 《韓國上古史研究》, pp.240-241, 378-379.

43) 津田左右吉, 1964, 《津田左右吉 全集》 11, pp.102-108.

남해안으로부터 일본 열도에 이르는 중요 출발지점의 하나[44]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欽明紀 5년 11월조에 따르면 新羅나 安羅(咸安)와의 사이에 큰 江水(낙동강)가 있고, 卓淳國은 이 두 나라에 가까이 있었던 듯하다.[45] 따라서 창원설은 위치를 놓고 볼 때 사료적으로도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이 시기(4c) 가야의 정치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연맹체'說이 유력한 듯하나[46] 이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그와 달리 창원의 卓淳國은 일단 외교적인 면에서 어느 특정국에 구애되지 않는 자주적인 입장에 서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가야제국이 변한 소국 단계에서 이때에 이르기까지 김해나 어느 특정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甲子년에 백제는 사신을 그 연맹체의 중심이 되는 국가 즉 금관국에 보내 왜와의 중재를 요청해야 마땅했을 것인데 여기서는 백제가 왜와 통교를 이루기 위해 卓淳과 직접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탁순이 외교에 있어 독립적인 소국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양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야제국의 정치형태가 聯盟體이던 때는 이 시기 전으로 보고 이시기에 이르러서 가야는 각각 세력들이 독립체로서 분립된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고자 한다.

이처럼 昌原의 卓淳國같은 가야의 일국이 독립적인 정치체로서 성장하게 된 데는 Ⅳ장에서 다루겠지만 '浦上八國의 亂'이나, 古金海灣의 폐항과 같은 요인으로 김해의 금관가야는 3세기중엽~4세기 初면 급격히 쇠퇴하여 가야제국에 대한 영향력이 상실된다는 점에 원인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

44) 李賢惠, 1988,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변천〉《韓國古代史研究》1, 한국고대사연구회, p.175.

45) 金廷鶴, 1990, 《韓國上古史研究》, 범우사, p.241

46) 이 시기 가야의 정치형태를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연맹체로 파악하고 있는 학자들은 李基東, 金廷鶴, 金泰植, 文暻鉉 등을 들 수 있다.(南在祐, 1995, 〈加耶史에서의 '聯盟'의 의미〉《昌原史學》第二輯, 昌原大學校 史學會, p.216 圖表 參照)

즉 금관가야가 위와 같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가야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어 가야제국 내부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자 금관가야와 마찬가지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무역국가로서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던 가야제국들은 이 시기에 이르러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4세기 중반 당시 경남 해안 일대의 소국들은 주변국과의 교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 西海, 南海, 日本列島를 연결하는 해로상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교역물자의 운송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김해지역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자체가 개별적인 Gateway Community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47]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昌原의 卓淳國을 비롯한 무역국가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외교적 역량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國力을 바탕으로 卓淳의 입장에서는 전통적 경쟁관계인 新羅에 대한 견제와 주변의 기존 强國이었던 금관가야나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阿羅伽耶같은 國內 競爭國들과 對等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기회로서 百濟와 倭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313년과 314년 낙랑·대방 등 중국군현의 멸망[48]으로 과거 김해를 축으로 하던 문물교역의 중심지가 분산된 상황에서 가야의 경남해안 소국들은 주변국들 상호간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제, 문화적인 성격이 각자 나름대로의 특색을 지니며 다양화되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근래에 영남지역 토기 지역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3세기 이전 와질토기 단계에는 경상도 일원이 공통의 토기문화권을 이루고 있다가, 4세기 고식 도질토기 단계에서 경주지역, 부산·김해·창원지역, 마산 以西의 서부경남지역 사이에 지역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지적[49]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7) 李賢惠, 1988, 앞의 논문, pp.164-165.

48) 《三國史記》卷 第 十七 高句麗本紀

「十四年 冬十月, 侵樂浪郡, 虜獲男女二千餘口.」

「十五年, 秋九月 南侵帶方郡.」

49) 安在晧·宋桂鉉, 1986, 〈古式陶質土器에 관한 약간의 考察〉《嶺南考古學》1,

이러한 卓淳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백제의 입장에서는 왜국과의 연결을 위하여 지형적인 편리함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점도 고려하여 무역국으로서의 조건을 겸비하고 있었던 卓淳國을 중재대상으로 지목하였던 듯하다.

이렇듯 백제가 卓淳을 통해 왜와의 동맹을 원했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을 지니고 있다.

즉, 당시 한반도의 국제적 상황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었다. 4세기 초반까지 고구려는 중국군현들과의 각축을 통해 이민족의 축출이라는 과제에 총력을 기울이며 역동적인 정복사업을 전개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백제를 비롯한 가야 신라의 남쪽국가들도 전쟁을 통해 상호간 나름대로의 국가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가 313년과 314년 각각 낙랑과 대방을 멸망시키게되자 한강이북을 경계로 한반도 남부의 백제, 가야, 신라 삼국과의 사이에 있었던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이 요구되어졌다.

특히 남부에서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중국군현의 멸망뒤 지리적으로 고구려와 경계를 접하게 된 백제로서는 고구려의 팽창에 대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위기의식은 곧 동맹관계의 대상을 찾아 나서는 작업으로 나타났는데,그것의 구체화된 형태는 위와 같이 卓淳을 통해 倭와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백제는 이러한 동맹관계 뿐만 아니라 배후안정책도 함께 도모하였다. 즉 2-3세기에 걸쳐 신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되풀이하던[50] 백제는 먼저 366년·368년[51] 연속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이중으로 적을 두지 않으려는 백제의 전술외교적인 의도가 내재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

pp. 50-53.

50) 《三國史記》 新羅本紀를 보면 阿達羅尼師今 14年(167)부터 味鄒尼師今 22년(283)까지 십여회 이상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51) 《三國史記》, 新羅本紀, 儒禮尼師今 3年條
《三國史記》, 百濟本紀, 近肖古王 24·26年條
- , 新羅本紀, 奈勿尼師今 11·13年條

한편 366년 卓淳國을 매개로 하여 백제와 왜가 최초로 통교를 이루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66년에 왜가 卓淳에 사신을 보내게 된데는 사료에는 직접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배경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당시 왜는 고분시대로서 고대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기였는데 기원후 1세기 후반경부터 관계를 맺어오던 낙랑·대방등 중국군현[52]의 멸망으로 선진 중국문물의 도입처가 사라짐으로써 이를 대체할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 대상으로서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 구체적으로 가야와 백제를 지목하고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선 탁순과의 연결을 도모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53]

또한 당시 왜는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54]지리적으로 가까운 신라에 대해 기원전후부터 《三國史記》新羅本紀,奈勿王 9년(364)까지 적대관계로서 끊임없이 침략을 일삼아왔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자 신라와는 표면적으로 화해를 시도하면서[55] 신라의 경쟁국인 百濟·伽耶와의

---

52) 金秉模, 1987, 《한국인의 발자취》, 정음사, p.676.

53) 金鉉球, 앞의 논문, pp.126-127.

54) 《三國史記》新羅本紀에 나타난 왜의 신라침공 기사들을 보면 그 목적이 주로 식량과 같은 생활필수품을 획득하기 위한 노략질의 형태라는 것을 암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벌휴니사금 10년(193) 6월조에 "왜인이 큰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자가 천여명이였다.(春正月甲寅朔, 六月, 倭人大饑, 來求食者千餘人.)"고 하였는데 이 기사는 당시 왜의 경제적 상태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三國史記》新羅本紀 記事에 등장하는 수많은 왜의 신라 침공원인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왜의 농사기술이 야요이시대 후기에 이르러 한반도로부터 전파되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왜가 식량을 비롯한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정상적인 외교경로를 통해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침략을 통한 '노략질'의 형태로 그 수요를 충당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55) 史書 상에서 구체적으로 신라와 왜가 화해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三國史記》新羅本紀 기록을 보면 전대에까지는 그토록 잦았던 왜의 신라 침공 기사가 흘해니사금 37년(364)이래 내물니사금 38년(393)까지 약 40년 동안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국이 표면적으로는 화해하고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연대를 모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백제, 가야, 왜 삼국의 유대관계는 문화적·경제적·군사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위와 같은 백제·가야·왜의 연대는 신라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되어진다. 대외적으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왜의 침략에 시달려왔고, 대내적으로는 교역권을 둘러싸고 백제 및 가야제국들과 오랫동안 전쟁을 벌여왔던 신라로서는 孤立無援의 상태를 면하기 위해 일단 백제의 宥和責을 받아들인 뒤[56] 배후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왜에 대해 회유책을 시도하게 되는데 다음의 神功紀 47年條(367)를 보면 그러한 점이 잘 나타나 있다.

四七年夏四月, 百濟王使久底·彌州流·莫古, 令朝貢. 時新羅國調使, 與久底共詣. 於是, 皇太后·太子譽田別尊, 大歡喜之曰, 先王所望國人, 今來朝之. 痛哉, 不逮于天皇矣. 群臣皆莫不流涕, 仍檢校二國之貢物. 於是, 新羅貢物者, 珍異甚多. 百濟貢物者, 少賤不良. 便問久底等曰, 百濟貢物, 不及新羅, 奈之何. 對曰, 臣等失道, 至沙比新羅. 則新羅人捕臣等禁囹圄. 經三月而欲殺. 時久底等, 向天而呪詛之. 新羅人怖其呪詛而不殺. 則奪我貢物, 因以, 爲己國之貢物. 以新羅賤物, 相易爲臣國之貢物. 謂臣等曰, 若誤此辭者, 及于還曰, 當殺汝等. 故久底等恐怖而從耳. 是以, 僅得達于天朝. 時皇太后·譽田別尊, 責新羅使者, 因以, 祈天神曰, 當遣誰人於百濟, 將檢事之虛實. 當遣誰人於新羅, 將推問其罪. 便天神誨之曰, 令武內宿祢行議. 因以千熊長彦爲使者, 當如所願. 千熊長彦者, 分明不知其姓人. 一云, 武藏國人. 今是額田部槻本首等之始祖也. 百濟記云職麻那那加比跪者, 蓋是歟也. 於是, 遣千

56) 백제가 배후 안정책으로 近肖古王 24, 26년에 걸쳐 사신을 보내왔을 때 新羅本紀 奈勿尼師今 11, 13年條에는 그 사실만을 언급했을 뿐 백제와의 講和與否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당시 신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熊長彦于新羅, 責以濫百濟之獻物.

(《日本書紀》神功紀 47年條)

내용을 개략 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 전년(366)에 修交를 했던 백제의 왕이 久底.彌州流,莫古를 왜에 보내 공물을 전달하는 '형식상의 절차'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신라도 朝貢使를 보내게 된다. 그런데 백제의 공물이 신라의 것보다 더 훌륭하므로 신라가 백제의 공물을 빼앗아 왜의 천황에게 바쳤으나 백제사신이 이를 고하여 천황이 신라에게 이를 문책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이 記事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비교적 최근이었던 364년까지 왜의 침략을 받을 정도로[57] 왜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신라가 백제와 함께 왜에 사신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366년 백제가 신라에 대한 유화책으로 강화를 맺은 사실이 백제를 통해 신라와 왜와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三國史記》 기록을 통해 볼 때 신라는 이 사건 이전에는 왜와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한반도 내에서 대외관계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백제가 왜와 손을 잡는 것과 같은 상황, 즉 신라의 실익에 위배되는 국제외교구도의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자 왜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결국 신라로서는 백제를 통한 왜와의 간접적인 외교관계를 가장하여 왜에 사신과 공물을 보내 백제를 제치고 왜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왜와의 통교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온 백제의 외교전에 밀려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물러난 사실을 이 記事는 반영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기사는 왜를 사이에 둔 백제와 신라의 외교전 양상이 투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라의 對倭 外交의 실패는 왜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57) 《三國史記》卷 第三, 奈勿尼師今 九年條 參照.

오히려 왜가 백제와 더욱 유대관계가 굳어지는 계기가 되어 2년 후(369) 백제와 함께 신라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나.의 史料(神功49年條) 는 왜가 왜 및 백제의 장군을 시켜 卓淳을 基地로 해서 新羅를 破하고 卓淳을 비롯한 加羅7國을 평정한 후 한반도 남해안을 서진하여 古奚津에 이르러 南蠻 忱彌多禮를 취해서 백제에게 주니 백제의 초고왕이 감격하여 '西蕃'이 될 것을 맹세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사료의 내용 중 가라 7국이 왜에 의해 평정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사를 사실그대로 인정하는 입장[58], 5세기 사건의 투영으로 보는 입장[59], 6세기사건의 투영으로 보는 입장[60], 주체를 백제로 바꾸어 보는 입장[61] 기사의 사실성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62]이 있어왔다.

이 중에서 이 記事를 다른 시대의 사건으로 보는 견해와 기사의 사실성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는 본 논고의 성격상 논외에 있으므로 언급치 않도록 하고 나머지 두 가지 설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선 나.史料의 내용자체를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견해[63]들의 논지는 왜가

---

58) 末松保和, 1956,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參照.

59)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pp.206-209.
　　-　　, 1989, 《古代の日朝關係》, 推選書, pp.121-125.

60) 池內宏, 1947, 《日本上代史の一硏究-日鮮の交涉と日本書紀》, 近藤書店.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卷, 吉川弘文館.
　　津田左右吉, 1973, 〈百濟に關する日本書紀の記載〉《日本古典の硏究》下, 岩波書店 參照.

61)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千寬宇, 1977·1978, 〈復元加耶史〉《文學과 知性》, 一潮閣.
　　-　　, 1991, 《加耶史硏究》, 一潮閣 參照.
　　李基東, 1993, 《韓國史講座》(古代篇), 一潮閣 參照.
　　金鉉球, 1993, 《任那日本府硏究-韓半島南部經營論批判-》, 一潮閣 參照.

62) 津田左右吉, 1924, 《古事記及日本書紀の硏究》, 岩波書店, p.170.
　　김석형,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1988, 《고대한일관계사》, 한마당, pp.429-431.

63) 이와 같이 기사를 그대로 신뢰하는 입장은 末松保和, 1956,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가 대표적이다.

이 시기부터 대가야가 멸망하는 562년 까지 약 200년 정도를 '任那日本府'라는 機關을 두고 무력으로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를 '支配'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왜의 기내대화세력이 일본열도내에서 구주지방까지 힘을 뻗쳐 상대적 우세를 확보한 시기를 대체로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으며 중앙집권세력이 열도 내 각 지방세력에 대한 자치권을 통제하여 행정적인 지배체제를 정비한 것은 7세기 후반 정도에야 가능하였다고 보고 있다.[64] 그렇다면 北九州까지도 세력을 미치지 못하는 大和국가가 그보다 멀리 떨어진 남한을 4세기부터 경영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겠다.[65]

또한 왜가 임나를 200년 동안이나 군사지배를 하였다면 그 지역에 일본 문화 유물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가야지역 고분발굴자료들에 의하면 4세기 이전의 유물문화가 5-6세기까지도 연속적으로 계승되는 양상이 나타난다.[66]

결국 왜에 의한 군사적 가야'정벌'문제는 차치하고라도 '支配'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가야'征伐'과 '支配'의 주체를 백제로 바꾸어 보는 경우[67]가 있다. 이는 李丙燾가 처음으로 거론한 이래 千寬宇, 李基東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立論되어진 바 있으며 최근 金鉉球에 의하여 심화되어졌다. 이 論考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공통적인 것은 神功紀 49년조 기사에 등장하는 古奚津, 忱彌多禮를 비롯한 比利·辟中·布彌支·半古 등을 전라남도 지역에 비정하는 것[68]을 전제로 이 사건이 원래는 근초고왕 부자가 이전부터 진행

64)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pp.4-5.
65) 위의 註.
66) 위의 註.
67)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p.511-514.
千寬宇, 1991, 《加耶史研究》, pp.23-25.
李基東, 1993, 《韓國史講座》(古代篇), 一潮閣, pp.138-139.
金鉉球, 1993, 《任那日本府研究-韓半島南部經營論批判-》, 一潮閣. pp.30-45, pp.

되어 오던 전남지역에 있는 마한의 나머지 소국들을 경략하는 작업들을 나타낸 것인데, 백제가 이 지역을 완전히 소유한 뒤, 왜국과의 교섭이 열리게 되어 왜의 사신이 백제에 온 사실을 《日本書紀》에서는 부회·윤색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記事 상단에서의 伽耶 平定도 백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근초고왕이 마한을 정복하기 직전에 낙동강 유역에 진출하여 가야 여러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신라를 평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고 있다.

또한 支配의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任那'라는 기관은 이 학설 사이에서도 부분적으로 차별성을 지니고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백제의 軍司令部 격이었다는 千寬宇의 학설을 주축으로 하여 약간씩 그 성격만을 달리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렇듯 가야정벌의 주체를 백제로 바꾸어 보는 주장은 '支配'의 史實性을 규명하려 할 때 우선 고고학적인 면에서 그 근거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전자 즉 왜를 가야정벌의 주체로 보는 경우에 비해 이 사건보다 좀 후대이지만 대가야 세력권에 대한 백제의 영향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점[6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나. 記事 內容에서 '南蠻 忱彌多禮'란 표현 중에서 '南蠻'이라는 百

---

68) 이전에는 忱彌多禮를 탐라국 즉 濟州道에 비정하는 것이 통설이었다. 그러나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4 文周王 2年 4月條(476)를 보면 "耽羅國獻方物, 王喜, 拜使者爲恩率"라고 하여 백제와 탐라의 첫 통교시기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日本書紀》 繼體天皇 2년(508) "南海中耽羅人, 初通百濟國"이라고 하여 백제와 탐라의 통교가 《三國史記》 의 기록과는 달리 무녕왕 8년의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두 사료 중 어느 것이 맞던 간에 369년 이후에야 백제와 탐라(제주도)의 외교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확실한 듯하므로 백제와 탐라가 연관된 사건을 이 당시와 연관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忱彌多禮를 탐라 즉 제주도라고 비정하기보다는 위 史料에 나타난 다른 지역들 처럼 全羅南道에 있는 한 지역이라고 보는 쪽이 더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69) 禹順姬, 1989, 〈慶南地域의 6세기 土器硏究-土器定型化 過程에 대해-〉, 경북대석사학위논문, pp. 46-47.

濟를 中心으로하여 사용된 표현[70]에서도 그러한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국내학자들에 의해서도 비교적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다음의 欽明紀 기사들과 연관시켜 비교·검토하게 되면 보다 합리적인 논리가 성립된다.

1. 聖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旱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 (後略) -《日本書紀》卷19 欽明紀 2年 夏四月條-
2. (前略) 乃謂任那曰(中略)於是, 我以汝爲子弟, 汝以我爲父兄. (後略)-《日本書紀》卷19 欽明紀 2年 秋七月條-
3. (前略) 聖明王謂之曰, 任那之國, 與吾百濟, 自古以來, 約爲子弟·····而滅卓淳-《日本書紀》欽明紀 5年 11月條-

즉 나.史料와 관련된 위의 欽明期의 세기사는 百濟의 성명왕의 회고를 통해 당시 加羅가 百濟와 '子弟'의 관계를 맺었다고 표현함으로써 당시 가야에 대한 관계의 객체가 백제와 더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71]

그러나 이러듯 백제를 주체로 하는 견해도 이 記事의 下段에 반영된 백제의 마한경략이라는 편향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한 것일 뿐 기사 상단의 왜의 개입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백제가 마한소국 경략작업을 추진한 것은 인정되어 질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시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행한 군사작전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日本書紀》가 단순히 이러한 내용을 왜의 작전으로 완전히 조작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백제가 366년 왜와 통교를 하게 된 데는 북으로부터 압박해 오는 고구려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軍事的 同盟'의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동맹관계를 토대로 이 당시에 왜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 어느 정도

---

70) 金鉉球, 1994, 앞의 논문, p.132.
71) 千寬宇, 1991, 앞의 책, p.24.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위 학설에서 백제의 가야'征伐'과 支配는 인정하면서 신라에 대한 '征伐'과 '支配'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단지 신라가 백제에 못지않은 강국이었음을 나타내는 《三國史記》에 반영된 기록상의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지나치게 고정적인 시각에서의 논리구성인 것이다.

한편 이렇듯 백제를 주체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야에 대한 '直接支配'라는 측면은 최근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72] 즉, 당시 가야지역의 고고학적 遺蹟·遺物이 당시는 물론 후대에까지도 이어짐을 근거로 외부통치의 흔적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동양에서는 이 당시는 물론 훨씬 이후에도 사료에 나타나듯 直接支配體制가 단기간에 성립한 예는 드물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조공을 받는 측의 정책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전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비록 피지배세력이라 하더라도 기존지배세력의 자치를 인정하면서도 지배-피지배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이 그러한 예에 해당되므로 4세기에 있어서 가야는 구체적으로 백제에 대해 영토적 지배가 아닌 '貢納的 支配'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73]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다.史料의 내용 속에서 이러한 '貢納的 支配'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나.사료의 '내용상' 왜와 가야가 '상하관계'를 맺은 13년 후에 해당되는 신공기 62年條(다.사료)에서 백제기를 인용하여 '新羅가 조공을 하지 않으므로 왜의 장군 襲津彦을 보내 신라를 치게하였으나 그는 신라의 뇌물을 받고 오히려 加羅國을 쳤고, 이에 加羅王이 백제에 피신한 뒤 왜의 천황에게 호소하니 왜의 천황이 백제장군 木羅斤資를 시켜 그 사직을 되돌려주었다'고 하였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선 '신라가 조공하지 않아서'(新羅不朝)라고 하는 구절은 신라가 당연히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왜에 조공을 해야 할 입

---

72) 이희진, 1994, 〈4세기 중엽 百濟의 '加耶征伐'〉《韓國史研究》, 한국사연구회 參照.

73) 이희진, 1994, 위의 논문, pp.3-4.

장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그 사건에 해당되는 것은 앞 뒤 정황으로 보아 나.史料(神功紀 49年條)에 나타난 '新羅征伐'외에는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조공하지 않아서 신라를 치게 했다'고 하는 말 속에는 '新羅征伐'을 통해 왜가 신라를 군사적으로 직접 지배를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貢納'을 받는 것으로 대신해 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러한 관계는 369년 당시 신라와 동시에 '征伐'이 이루어진 '伽耶 7國'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졌을 것이다.

또한 천황이 백제장군 木羅斤資를 보내서 그 사직을 부활시켜 준 것으로 되어 있어서 382년까지도 백제군이 가야에 직접 남아 주둔하고 있지 않았었음을 통해 직접지배의 형태는 없었음을 알 수가 있다.[74] 결국 가야를 '征伐'한 주체가 백제라고 해도 일단 '直接支配 내지 經營'의 형태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직접지배 내지 경영이 없었다면 기존에 인정되어 오던 군사적인 '征伐' 자체는 또한 있었느냐는 문제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해 기존의 학설은 백제에 의한 것이든 왜에 의한 것이든 어느 한 쪽이 주가 되어 가야에 대한 군사적인 정벌 자체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비해 이희진은 위 史料(神功紀 49年條)에 나타난 백제-왜의 가야에 대한 '征伐'을 시기적으로 신라에 대한 '征伐'과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전제하에서 백제-왜 양국의 가야에 대한 '征伐'은 군사적인 '直接征伐'이 아닌 '무력적 시위'정도로 보는 학설을 내놓았다.

즉,史料(神功紀 49年條)에 표현되어 있는 신라와 가야에 대한 '征伐'이 동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新羅征伐'은 《三國史記》新羅本紀 奈勿尼師今 9년(364)에 일어난 왜의 신라침공 사실을,'伽耶征伐'은 해당 년도(369)에 백제와 왜가 연합하여 가야를 정벌한 두개의 사실을 각각 나타내는 것인데 천황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뚜렷한 《日本書紀》에서는 정벌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처럼 꾸며놓았다고

---

74) 金鉉球, 앞의 논문,P.132.

보고 있으며[75] 후자의 '가야정벌'은 당시 고구려와의 충돌에 대비하고자 하여 남방의 국가세력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백제의 대외관계의 정황으로 보아 군사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무력시위'였다고 보고 있다.[76]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일단 '新羅征伐'을 364년 왜의 침공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三國史記》, 新羅本紀 奈勿尼師今 9년조의 내용을 보면 倭兵의 대부대가 신라에 비참할 정도의 패배를 당하는데 이를 전승기사처럼 꾸며 369년 '百濟·倭의 伽耶征伐'과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 참패당한 사건을 5년이나 지난 뒤의 일로 새삼스럽게 '業績'으로 승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사료해석일 것이다. 이는 연구자가 '征伐'이 있기 1년전인 368년 백제와 신라의 '和親關係'를 의식하여 백제가 369년 왜와 함께 신라를 정벌하였다는 불합리성을 설명하려는 데 치중하여 나온 발상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위 사료에 나타난 백제-왜 양국의 가야에 대한 '征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시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武力示威' 정도에 그쳤다고 보는 데에는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가야에 대해 행하여진 군사적인 '直接征伐'자체도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군대의 무력을 사용한 '征伐'이 있었다고 단정을 내리기 어려운 근거의 하나는 사료 상에 '征伐'에 대한 이유가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쟁을 수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이유에 해당되는 '大義名分'을 내세우기 마련이다. 더구나 백제나 왜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한 국력의 차가 없다고 보여지는 신라와 가야 7국에 대한 정벌을 단행하는 것이라면 백제나 왜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大義名分'을 비롯한 전쟁수행의 이유가 사료 상에 어느 정도 나타나야 마

75) 이희진, 앞의 논문, pp.12-13.
76) 이희진, 위의 논문, pp.24-25.

땅했을 것인데, 모든 것이 일체 생략된 채 단순한 '征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백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高句麗와 맞서기 위해 364, 366년에는 가야와 368년에는 신라와 각각 외교관계를 이루었는데 사료 상에서 지적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없이 이때와서 갑자기 두 나라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반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희진의 학설은 '征伐'의 성격을 다루는 관점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설에서는 369년 백제와 왜 양국의 '征伐' 즉 '武力示威'의 대상을 신라에 대한 정벌과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伽耶에 한정시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신라에 대한 '征伐'을 364년의 왜의 신라침공사실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밝혀진 점을 감안한다면 '征伐'의 대상을 지적하는데 있어서는 실제의 史實과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즉, 史料 나.의 記事에서 百濟와 倭의 伽耶에 대한 '征伐'의 성격을 군사적 '直接征伐'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데에는 수긍이 가는 바이지만 그 '征伐'의 대상을 가야에만 한정시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 記事에 나타난 사건을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백제와 왜의 '征伐'대상은 가야와 신라 양측 모두에 해당된다고 하는 기존의 通說로 回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征伐'대상의 문제가 일단 해결되어진 이상 이제는 '征伐'의 성격문제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征伐'이라고 표현된 실제의 상황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필자는 이 '征伐'이라는 것을 군사적으로 시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백제와 왜 양국이 가야와 신라에 대해 무력시위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외교적 압력'을 의미한다고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단서가 되는 기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즉, 나.史料의 A. B.구절을 보면 A.“俱集于卓淳.” B.“因以, 平定比自㶱·南加羅·啄國·安羅·多羅·卓淳·加羅 7國.”라고 하였다.

기존 일본 및 국내 학계에서 이 A와 B 구절을 합쳐 ‘卓淳에 모여서 新羅를 破한 뒤 加羅7國을 평정하였다’라고 A와 B사건이 순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것이 통설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순이 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전술했지만 당시 역사적 상황을 놓고 볼 때 卓淳은 이미 366년 백제 및 왜와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通交를 이룬 나라이며 따라서 그로 인해 동맹국의 입장으로서 卓淳이 신라를 破하기 위한 백제와 왜 연합군의 집결지로 선정되었을 것인데 신라를 파한 뒤 이렇듯 동맹국의 입장에 있던 ‘卓淳’을 포함한 加羅 7國을 특별한 이유 없이 平定했다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 해석이다.

또한 이 기사의 첫구절을 보면 戰爭을 하려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荒田別, 鹿我別을 장군으로 삼아 (백제의)久底등과 같이 군사를 정돈하여 卓淳國에 건너가서 장차 新羅를 치려고 하였다”라고 하여 전쟁의 대상은 ‘新羅’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卓淳’은 동맹국으로서 ‘전쟁기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지 백제-왜의 전쟁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백제 왜의 연합군이 일단 卓淳에 모여서 신라를 격파하였는데 그 직후 이 양국군이 이미 자신들의 군대가 집결되어 있는 卓淳을 ‘平定’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어색한 표현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 기사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A와 B귀절은 “卓淳에 모여 新羅를 破하니 이로써 加羅7國도 (자연히) 평정되어졌다.”라고 인과관계의 연결을 시키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百濟-伽耶-倭間 상호 동맹의 입장에 볼 때 앞서 설명했듯이 백제와 왜는 절대적 이해관계의 필요에 의해 통교를 함으로써 삼국간의 동맹관계를 파기할 염려가 적었지만 같은 동맹국인 가야의 경우에는 ‘浦上八國의 亂’ 이후 백제-왜와 적대관계였던 신라측과도 다소 가까운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77] 백제-왜와의 관계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 예상되므로 동맹관계를 파기할 수 있

는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78] 즉, 가.사료를 설명할 때 이야기하였듯이 366년 가야가 백제와 왜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계기로 百濟와 密接한 관계를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관계성립은 백제-왜의 입장에 편중되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동맹과는 무관하게 가야(卓淳)는 오히려 백제-왜와의 관계 진전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라를 이용하여 가야 자신의 세력을 부상시키는데 더 주력하였을 것이 짐작된다.

또한 신라와의 유대관계도 과거 '浦上八國의 亂'의 난을 직접적인 계기로 한 가야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국의 이익과 관계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야가 백제-왜와의 동맹관계를 저버리고 신라와 더 가까와 져야 할 특별한 요소도 발견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결국 가야의 입장에서 百濟-倭와 新羅의 양측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外交를 전개해야 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해서 '破'했다는 것은 그러한 가야의 입장을 백제·왜쪽으로 기울게 하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위 사료에서 '加羅7國도 (자연히) 平定되었다'라고 표현에 부응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한편 백제-왜의 입장에서는 '卓淳'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아직까지 공식관계를 맺지 않은 지리적 요충지인 낙동강의 주변에 위치한 나머지 가라제국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종의 군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조약의 요구'와 같은 形態로서 '外交的 壓力'을 가했으리라 생각된다. 《日本書紀》 撰者는 이를 왜의 입장에서 과장

---

77) 金泰植, 1994, 앞의 논문, p.107.

78) 신라가 377년 고구려를 따라 전진에 견사한 것을 보면 양자의 관계는 이미 그 훨씬 이전부터였던 듯하다.(朱甫暾, 1995, 〈序說-가야사의 定立을 위하여-〉 《加耶史研究-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慶尙北道, p.45) 따라서 고구려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백제로서는 고구려와 친선관계에 있던 신라를 되도록 견제하고자 하였을 것이므로 당시 형식적으로나마 자국(백제)과 동맹관계에 있던 가야가 신라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데 대해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하였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하여 '平定'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百濟와 倭가 新羅를 '破'했다는 것 또한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366년과 368년 비록 百濟가 전통적으로 적대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신라와 통교한 사실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背後安定策'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나라의 關係는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고구려를 적으로 두고 있는 백제의 입장에서 신라를 군사적으로 정복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익에 反하는 일이었을 것이다.[79] 한편 倭는 오랜 敵對關係를 유지해온 신라[80]를 어떤식으로든 굴복시키고자 원했을 것이고, 百濟로서도 고구려를 견제하는 측면에서나 당시 고대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자신의 목적 중의 하나인 마한의 나머지 소국들을 경략하기 위해서는 왜국의 군사적인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므로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왜의 입장을 수렴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신라에 무력에 의한 '壓力'정도를 행사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보면 무력공격이 아닌 '爲齊'을 전제로 하여 兩國間 공동의 목표를 위한 '軍事出兵'의 움직임 자체는 인정해도 그다지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양국이 신라에 대해 찾아낸 행동노선의 합일점은 신라에 대한 '軍事的 爲齊'정도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일단 出兵이 감행되었을 것이지만 그것은 신라를 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제의 입장에서는 고구려와의 전쟁을 수행하거나 마한의 소국들을 경략하기 위하여 필요한 '協助'를

---

79) 373년 백제의 성주가 신라로 도망하는 사건(《三國史記》新羅本紀 第3 奈勿尼師今 18년조)이 발생하는 데 이를 백제왕이 송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신라왕은 즉각 거절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이에 대해 문제삼으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어떠한 형태로든 신라와의 충돌은 가급적 피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80) 《三國史記》 초기 기록에 나타난 신라와 왜와의 관계가 거의 왜의 신라에 대한 침략형태로 일관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왜의 입장에서는 교역관계의 확장과 같은 형태의 조약을 통한 '形式的 屈服'을 요구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양국의 목적에 부합되는 '外交的 意思表示'를 신라로부터 전달받고는 '軍事行動'은 중단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한국이나 중국의 어느 문헌에서도 당시(369년) 신라가 백제와 왜에 의하여 무력적으로 정복되었다고 하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데서 뒷받침 될 수 있다. 결국 신공 49년의 '新羅征伐'은 '征伐'이 아닌 군사력의 시위를 통한 외교적 압력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산발적인 논지의 전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369년 가야와 신라에 대한 '정벌'은 백제와 왜 중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하여 그 주체를 설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 '征伐'의 재의를 한 것은 백제라고 보여지는 만큼 백제의 대외정책에 왜의 이해관계가 상응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즉, 백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한 소국 정복단계의 마무리로서 忱彌多禮를 비롯한 比利·布彌支·半古의 경략을 위해 왜의 군사를 끌어들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국력의 수준으로 보아 백제단독으로도 가능하였겠지만 한강 이북의 중국군현을 멸망시킨 뒤 남방진출을 꾀하는 고구려로부터의 위협[81]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므로 동맹국인 왜의 원조를 통해 이에 대해 '간접적인 견제'의 효과를 도모하였을 것이다. 한편 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교역로의 확보를 위한 수세기에 걸친 신라공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데다가 대방군의 멸망으로 대륙과 연결되는 교역의 모든 루트가 단절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366년 百濟의 修交제의에 흔쾌히 응했을 것이다.[82]

---

81) 《三國史記》 百濟本紀 近肖古王24년(369) 秋九月條에 나타난 고구려의 백제 공격 기사는 이와 같은 사실의 직접적인 사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2) 366년 백제의 왜에 대한 외교관계 수립의도는 '軍事的 同盟'에 주목적이 있었지만 왜의 경우는 교역관계의 절대적 필요성에 그 배경이 있었다.

그러나 왜의 오랜 숙원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신라와의 교역로 확보에 있었을 것인데 왜 자신의 국력수준으로는 이러한 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신라를 '직접정벌' 내지 '외교적설득'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백제와의 동맹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려 하였을 것이다. 즉, 백제의 도움 없이는 신라를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라를 滅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백제의 국익에 反하는 정도의 행위보다는 신라와 교역이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건 방법을 취했을 것이고 그것은 곧 군사적인 위협 하에서의 '外交的 壓力'의 형태였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 하에서 出兵은 행해졌고 양국의 공통목적인 신라와의 '關係改善'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 기존의 동맹관계였던 가야의 경우도 신라에 대한 관계나 백제-왜에 대한 관계 중 어느 쪽으로 치우칠 만한 요소는 없었기 때문에 百濟-倭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배후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에 通交를 한 卓淳과는 기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머지 6국도 동맹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군사적인 위세를 통한 압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국의 우선목표를 이룬 다음 백제와 관련된 마한의 소국들을 경략하는 작업을 최종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국 神功紀

신공기 46년조에 백제의 초고왕이 왜국사신에게 綵絹, 角弓箭, 鐵鋌 등과 보물 등을 주며 "우리나라에 진보가 많이 있다. 귀국에 바치려 해도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云云한 것은 근초고왕이 이러한 당시 왜의 상황을 간파하고서 한 말로 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위의 神功紀 46年條에서 백제가 왜에게 철정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三國志》 東夷傳 韓條에 "국가에서 철이 생산되어 韓·濊·倭가 모두 이를 얻어갔다."고 한 문헌상의 기록에서도 뒷받침되는 것이다. 또한 고고학적으로도 당시 왜가 철을 생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응신릉 부총을 비롯한 일본의 여러곳에서 당시의 철정이 발견되는 것은 그러한 史實을 한층 더 알려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점들은 왜가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국가들과의 교역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368년 당시 왜의 백제에 대한 외교수립 의도가 교역관계에 있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49년조의 사건은 백제와 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합동작전으로 전개되었지만 신라와 가라7국에 대해서 이루어 진 것은 군사적 압력에 불과한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한 것은 그 대상에 있어 마한의 나머지 소국들에 한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본래 백제의 史書에 실렸을 것이나 百濟史書를 토대로 작성된 《日本書紀》에서는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황국사관에 의거하여 왜중심으로 서술하였던 탓으로 위와 같이 신라와 가라7국을 정복한 것처럼 과장시켰으리라 짐작되는 것이다.

이렇듯 가야는 군사적인 '平定'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지배도 당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가야는 미약하나마 주변국들의 이러한 경쟁관계를 오히려 이용하면서 국제관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다.의 사료(神功紀 62年條) 이다. 이 사료는 앞서의 상황을 설명키 위해 이미 이용한 바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간단히 설명코자 한다.

내용의 개략은 壬午年(382)에 新羅가 貴國(倭)에 조공치 않으므로 沙至比跪라는 장군을 시켜 신라를 공격케 하였으나 이 장군이 신라의 꼬임에 빠져 신라를 치지 않고 도리어 가야를 치므로 가야국왕 己本旱岐은 일단 백제로 피신한 뒤 왜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왜는 (百濟將軍) 木羅斤資를 보내 가야의 사직을 부활시켰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分註에 百濟記라고 그 출처가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壬午年이라는 干支를 가지고 년대를 표시하는 등 《百濟記》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百濟記》에 의한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내용도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83]

위에서 貴國이란 神功紀 46年條(366)에 "日本이라는 貴國"의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倭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369년에 신라가

---

83) 金鉉球, 1994, 앞의 논문, p.135.

百濟-倭에 대하여 약속했다고 보여지는 '外交關係'를 신라가 이행치 않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던 왜가 단독으로 군사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왜장수 沙至比跪의 공격을 받고 伽耶國王이 백제에 피신하였다고 해놓고 그 구원은 왜에게 요청하였다고 하는 점은 납득이 안간다. 일단 이야기의 구체성으로 보아 왜가 군사적으로 개입되었다는 것은 인정되나 왜왕이 보냈다고 하는 救援의 主體가 백제장군 木羅斤資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백제기에 실린 사건의 내용을 《日本書紀》로 옮기는 과정에서 왜의 구원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쪽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신라를 공격하라는 왜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왜의 장수가 신라의 향응을 받고 도리어 가야를 공격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왜가 내부적인 면에서 중앙집권적이 정치 형태로의 이행이 불완전한 상태였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가야가 그 동안 백제와 신라에 대해 균형적인 외교를 펼치던 것을 백제 쪽으로 선회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다음 장에서 서술하게 될 것이지만 廣開土王碑文에 나타나듯 고구려-신라에 대항하여 백제-왜에 대해 가야가 '軍事的인 提供'을 하게 되는 데에서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Ⅲ. 廣開土王碑文 己亥, 庚子年條와 任那, 阿羅伽耶

1. 己亥, 庚子年條의 內容把握

4-5세기에 있어 광개토왕비문만큼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금석문은 드물 것이다. 이는 그 비문내용 속의 주체가 되는 고구려를 중심으로한 백제, 신라, 가야, 왜 등 당시 동아시아국가들의 국제적 상호관계가 전쟁기사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로 해서 광개토왕비문에 대한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그리고 비문이 위치해 있는 중국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시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그 연구방향이 주로 한·일 양국의 첨예한 관심사인 임나일본부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辛卯年條에 치중됨으로써 당시의 전반적 역사상황의 복원이라는 측면에 있어 형평성을 맞추지 못한 감이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동안 이러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써 己亥, 庚子年條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84] 그 중에서 특히 庚子年條는 高句麗-新羅 對 伽耶-百濟-倭 라는 국제적 관계구도를 구체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어 國際秩序 속에서의 伽耶의 位相을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

84)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ヅア-「廣開土王碑」研究序說-》, 岩波書店
李亨求·朴魯姬, 1986, 《廣開土王陵碑新研究》, 同和出版公社.
高寬敏, 1990, 〈永樂10年 高句麗廣開土王碑の新羅救援戰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27, p.161.
安春培, 1992, 〈廣開土王碑文研究(1)-碑文의 文段과 解釋을 中心으로-〉 《歷史考古學誌》8.
박진석, 1993, 《호태왕비와 고대조일관계연구》, 연변대출판사.
金泰植, 1994, 〈廣開土王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韓國古代史研究會 編), 財團法人 駕洛國史廣開發研究院
延敏洙, 1994, 〈廣開土王碑文にみえる對外關係-高句麗の南方經營と國際關係論〉 《日本古代國家形成期の對外關係研究》, 九州大學大學院博士學位論文.

아쉬운 점은 비문이 전반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적·인위적[85]으로 훼손된 부분이 많은데, 庚子年條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여 학자들 간에 해석상의 異見이 분분한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문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훼손된 글자를 복원하는 것만이 당시의 올바른 역사적 史實에 접근하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碑文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시행하기 힘든 여건이므로 本考에서는 현지를 왕래하며 오랜기간 연구를 한 중국학자 王健群의 판독문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 및 문장의 논리성과 결부시켜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王健群의 판독문은 이진희의 이른바 「비문조작설」이 제기된 뒤 그에 고무받아 꾸준히 조사, 탐구가 이루어져 나온 것으로서, 武田幸男의 判讀文과 더불어 水谷悌二郎의 判讀文이래 최고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86] 그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는 王健群의 판독문을 기준으로[87] 己亥, 庚子年條에 대한 내용을 諸氏의 學說과 비교,검토하여 파악함으로써 4-5세기 가야의 위상 및 대외관계의 실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王健群의 釋文과 筆者의 譯文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토대로 차례차례 설명해 가기로 하겠다.

A).1) 九年己亥, 百殘違誓, 與倭和通, 王巡下平穰. 2)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3) 太王恩慈, 稱其忠誠, 特遣使還, 告以密計.

---

85) 인위적이라 함은 19세기 후반 비문이 발견된 이래 잦은 탁본작업으로 인해 글자가 훼손된 경우가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제시대 신채호가 최초로 제기한 이래 이진희가 체계적으로 그 논거를 증명함으로써 밝혀진 일제에 의한 비문조작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86) 延敏洙, 앞의 논문, p.43.

87) 물론 그 판독문을 토대로 한 해석(번역)은 별개로서 지금부터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판독문 중에서도 학자들 간에 견해차가 커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곳으로 판단되면 해석(번역)을 보류하고자 한다.

a.「1) 9년 己亥에 百殘이 맹세를 어기고 倭와 화통하므로 왕은 순하하여 평양으로 갔다. 2) 그런데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차 城池를 부수고 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고 하였다. 3) 태왕은 恩慈하여 그 충성을 어여삐 여기고 (고구려의) 사신을 함께 딸려보내 밀계를 고했다.」

B).1)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至新羅城, 倭滿其中. 2) 官軍方至, 倭賊退, 自倭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安羅人戍兵. 3) 拔新羅城鹽城, 倭寇大潰, 城內十九, 盡拒隨倭安邏人戍兵. 4) 新羅城□□其□□□□□□□言□□且□□□□□□□

(구두점과 번역 및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사료 A.a-1 인 기해조 첫머리 부분의 번역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며[88] 이 부분이 성립되는 역사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즉, 4세기 후반 백제의 근초고왕, 근구수왕대에 걸쳐 백제에 대한 군사적인 열세를 보였던 고구려는 광개토왕의 즉위와 더불어 상황을 역전시키고 백제의 북방영토를 공략하였다. 또한 고구려군은 백제의 왕성까지 공략하여 백제왕의 항복을 받기에 이른다.[89]

그러나 백제의 그러한 대응은 상황변화에 따른 임시방편이었을 뿐 오랜 숙적인 고구려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중 한반도 남부로 진출하려는 倭[90]와 이전부터 유지하여 오던 간접적인 이해관계의 틀을 이 시기에 이르러 현실적인 군사적 유대관계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왜의 출병을 유도하기 위해 태자 전지를 왜국에 파견하기에 이른다.[91]

이를 두고 위의 己亥條에서는 「百殘遣誓與倭和通」이라고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근거가 되는 《三國史記》, 《日本書紀》의 두 史書와 碑文間에는 2년의 年次가 있는데 碑文은 和通時期의 下限을 나타내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백제사료가 전하는 年次가 타당한 것이다.[92] 즉, 고구려는 397년부터 399년 의 時點에서 백제의 군사적인 동향을 捕捉하고

---

88) 金泰植, 1994, 〈廣開土王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6, 財團法人 駕洛國史蹟開發研究員, p.90.

89) 「廣開土王碑文」 6년 丙申條 參照.

90) 《日本書紀》, 神功紀 49年條를 비롯한 몇몇 기록은 이와 같은 왜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1) 《三國史記》, 百濟本紀, 阿莘王 六年 五月條
「六年 夏五月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
《日本書紀》, 應神八年, 三月條
「八年 春三月 百濟人來朝. 百濟記云, 阿花立无禮於貴國. 故奪我枕彌多禮, 及峴南·支侵·谷那·東韓之也. 是以, 遣王子直支干天朝, 以修先王之好也」
단, 《日本書紀》의 경우는 干支를 내려서 보는 일본학계의 통설에 따라서 그 근거를 설정한 것이다.

92)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p.197.

있었던 것이다.[93] 廣開土王이 巡下한 평양성은 고국원왕 4년 (334)增築되어 以後, 고구려 남방경영의 전진기지적인 역할을 수행하게끔 된다.[94] 평양성의 증축이후 백제의 근초고왕·근구수왕 二代에 걸쳐서 이 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도, 평양성을 파괴함으로써, 고구려의 남방진출을 원천봉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95] 이로 보아 광개토왕의 평양순하는 곧 남방경영을 위한 제2차 출진준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96]

A.a-2 에서의 첫내용은 이렇게 광개토왕이 평양으로 내려온지 얼마 안되어 왜의 침입에 대한 구원을 요청하는 신라사신의 도착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新羅앞에 轉語詞인 "而"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이 있기 전에 好太王은 왜인이 신라를 침범한 사실을 몰랐음[97]을 나타내는 것 같다. 따라서 평양으로의 남하는 신라의 구원요청이 있기 전으로서 신라를 구원하려는 의도와는 관계가 없고 남방을 경영하려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정책과 『與倭和通』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이 부분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其國境』의 『其』라는 표현이다. 이는 신라의 왕이 말한 것을 인용한 문장이다. 따라서 당연히 신라왕의 입장에서는 『我國境』이라고 표현해야 당연한데 『其』라는 3인칭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新羅使의 上訴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史臣이 新羅使의 上訴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고구려의 입장을 투입시켜 신라의 救援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浜田耕策의 說[98] 신라사신이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說[99] 『其』자체를 한반도 내에 있는 倭의 國境이라는 古田武彦의 學說[100] 등이 있다.

---

93) 延敏洙, 1994, 《日本古代國家形成の對外關係研究》, 九州大學博士學位論文, p.55.
94) 위의 註 參照.
95) 위의 註.
96) 위의 註.
97) 王健群(林東錫 譯), 1985, 《廣開土王碑 研究》, 역민사, p.263
98) 延敏洙, 1994, 앞의 논문, pp.55-56
99) 王健群(林東錫 譯), 앞의 책, p.263.
100) 박진석, 1993, 《호태왕비와 고대조일관계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p.294

앞의 두 가지 說은 서로 비슷한 내용으로 앞뒤의 정황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세 번째 說은 논리가 성립하기 힘든 억설에 가깝다. 왜냐하면 「其」가 만일 한반도 內의 倭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첫째, 왜인들이 자기 나라의 국경안에서 자신의 성돌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둘째, 분명히 왜와 신라는 두개의 서로 다른 독립국가인데 왜인들이 자신의 나라 국경 안에서 자신들의 성돌을 파괴하였는데 그것이 도리어 다른 나라인 신라 왕을 자신들의 백성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라가 고구려에 특별히 사신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101]

다음으로 「以奴客爲民」에 관한 문제이다.

王健群은 노객을 호태왕의 예속 하에 있는 '臣下'의 존재로 보고 「호태왕의 노객을 천민으로 삼다」라고 해석하여 신라가 이미 왜의 예속 하에 들어갔다고 보았고,[102] 武田幸男은 노객의 실체를 백제로 보아 「왜가 신라의 성돌을 부수고 백제를 왜의 民으로 삼다」라고 해석하였다.[103] 또 박시형은 노객을 신라왕 자신의 비칭의 표현으로 보았는데,[104] 이를 토대로 신라사신의 말을 해석해 보면 「奴客(신라왕)은 (고구려의)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는 말이 된다.[105]

위의 세 가지 유형의 해석 중 어느 쪽이 합당한가는 '奴客'이라는 용어의 쓰임새를 검토해 보면 곧 드러난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비문 앞부분의 丙申條에 이 노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106] 이는 百濟王이 전쟁에 패한 뒤 앞으로 고구려왕을 모시겠다는 '臣下'의 의미로서 百濟王 자신이 한 1인칭의 말을 옮겨놓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 中國 吉林省 集安縣 太王鄕 下解放

재인용.

101) 박진석, 1993, 위의 책, p.295.

102) 王健群(林東錫 譯), 앞의 책, p.263.

103) 武田幸男, 앞의 책, pp.141-143.

104) 朴時亨, 1966, 《廣開土王陵碑》, 社會科學院出版社, p.187.

105) 金泰植, 1994, 앞의 논문, p.82.

106) 「廣開土王碑文」6년 丙申條

「(前略) 從今以後 永爲奴客 (後略)」

村에 있는 牟頭婁銘文에도 여러 차례 노객이라는 용어가 보이는데[107] 이는 모두 「臣下」인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奴客」이란 모두 1 인칭으로서 자신을 가리키는 비칭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시형의 학설을 토대로 한 해석 쪽이 합당할 것이다.

첫 번째인 王健群의 학설은 상황논리에 적합치 않다. 왜냐하면 이미 신라왕이 왜의 예속 하에 들어가 부용국이 된 상태라면 고구려에 이것을 알리러 온 주체에 대해 동등한 국가 대 국가의 개념 하 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使臣」이라는 용어는 적합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己亥條 뒷부분에 밀계를 주어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미 노객이 된 신라 왕에게 응답하여 사신을 보낸다는 것은 성립하기 힘든 논리이다. 두 번째 武田幸男 해석의 경우도 무리가 있다. 두 나라의 관계를 살필 때 己亥條 앞부분에서 제 삼자인 고구려도 분명히 「與倭和通」이라고 하여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모의'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점에 배치된다. 만일 왜가 백제왕을 '奴客'으로 삼았다면 양국간 수직관계를 나타내는 다른 용어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己亥條의 爭點이 될 수 있는 곳은 A-2에 보이는 '特遣使還'의 '特'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특별히'로 解釋될 것이 아니라 '짝'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은 영락대왕이 신라의 구원요청을 받아들이되, 중간에서 일이 잘못되는 것을 염려하여, 신라사신의 귀로에 고구려 사신을 함께 딸려 보내면서, 고구려의 작전계획(구원병 파견계획)을 고구려 사신에게 주어서 밀계(작전계획)를 고구려 사신이 직접 신라왕에게 알리게 한 주도면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108]

---

107) 盧泰敦, 1992, 「牟頭婁墓誌墨書銘」「譯註韓國古代金石文」, 韓國古代史研究會, pp. 93-95.
「大使者牟頭婁 (中略) 聖王奴客先祖 (中略) 至國岡上大開土地好太聖王緣祖父 亻尔愿教奴客牟頭婁 (中略) 令教老奴客(後略)」

108) 安秉珮, 1992, 〈廣開土王陵碑文研究(1)-碑文의 文段과 解釋을 中心으로-〉 《考古歷史學志》 8, pp. 314-315.

한편, 신라왕의 구원전 요청에 응한 고구려는 永樂10년에 步騎 5萬의 병력을 투입하게끔 되는데 이때의 전투는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109]

庚子年條의 첫부분인 B.-1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은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이다. 여기에는 문장해석상 세 가지 유형의 學說이 있는데 남거성과 신라성 및 그 중간지대에 왜가 가득차 있었다는 學說[110] 남거성으로부터 신라성에 이르니 그곳에 왜가 가득차 있었다는 學說[111], 남거성과 신라성사이의 露天에 왜가 가득차 있었다는 學說[112]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남거성 및 신라성의 성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통설은 남거성을 신라의 어느 한 城, 신라성을 국성인 경주의 금성으로 보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하에서 첫 번째 학설의 내용을 파악하면 상당한 무리가 있다. 신라의 왕성을 비롯한 주변의 성에 이르기까지 점령한 왜군이 B.-2에서보듯 단 한번의 대항도 없이 물러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왕성을 구했을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비문에 고구려군이 신라 寐錦, 즉 내물왕의 처지를 구해주었다고 하는 '功績'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마땅하다[113]고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신라의 국도가 왜의 손에 함락되었던 바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114] 앞서 기해년조를 설명할 때 말했듯이 신라가 왜의 예속 하에 들어갔다는 근거는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 학설도 國都로서의 신라성이 함락되었다고 보는 것은 마찬가지이

---

109) 延敏洙, 1994, 앞의 논문, p.56.

110) 菅政友, 1891, 「高句麗好太王碑銘考」『史學雜誌』24(2-11), p.49
王健群, 앞의 책, p.265.

111) 末松保和, 1956,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p.74.
千寬宇, 1979, 《廣開土王碑文 再論》《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p.97.
李亨求·朴魯姬, 1986, 《廣開土大王陵碑新研究》, 同和出版公社, p.88.

112) 金泰植, 1994, 앞의 논문, p.95.

113) 위의 註.

114) 安秉佾, 1992, 앞의 논문, p.315.

므로 첫 번째와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세번째학설은 앞의 두 가지 학설을 비판한 뒤 성립한 수정설로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남거성과 신라성의 위치비정을 통설 그대로 받아들인 바탕 하에서 문장의 해석만 달리했으므로 많은 진전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해 남거성과 신라성 사이에 왜가 가득하였다고 하는 것은 양성사이에 다른 성은 없고 오직 왜군만이 있다고 볼 때 가능한 해석이고, 그렇다면 남거성은 신라내륙 깊숙이 있는 경주성과 그리 멀리 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성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학설에 의거하면 두 성 모두 국경근처의 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듯 두 성이 모두 신라 내륙 깊숙이 위치한 것이지 신라 국경의 성과는 관계없다는 점이 신뢰성이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三國事記』列傳 朴堤上傳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료에 박제상이 눌지왕의 부탁을 받고 왕의 아우인 미사흔을 구하기 위해 왜국에 갔을 때 왜국의 정황을 설명하는 記事에 「百濟人前入倭 讒言新羅與高句麗某侵王國 倭遂遣兵邏戍新羅境外 會高句麗來侵 幷擒殺倭邏人 倭王乃以百濟人言爲實」[115]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내용을 풀어보면 "전에 백제인이 왜에 들어와 신라가 고구려와 더불어 왜왕국을 침략하려 한다고 讒言하므로 왜가 병사를 보내 신라의 국경밖에서 邏戍케 하였는데 고구려가 쳐들어와 왜의 '邏人'을 모두 잡아 죽였으므로 왜왕은 백제인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이 된다.

이를 두고 김석형은 「이는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그의 9년(399) 신라왕이 광개토왕에게 말한 가운데 "왜인이 그 국경에 충만하여 城池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한 것과, 이듬해에 광개토왕이 "오만명 군대를 보내어 신라를 구원케 하였더니…… 왜적은 퇴각하였다"는 내용과 부합된다. 따라서 '백제사람'은 백제태자 전지의 일행이며, 그는 북큐슈 왜왕정에 출병을 요구하

115) 『三國史記』 第四十五 列傳 第五 朴堤上傳.

는 사명을 띠고 갔던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116]고하였는데 이를 설득력 있는 사료해석이라고 생각하며 신뢰하는 바이다.

이렇듯 박제상전을 위 비문의 記事와 연결시키는 견해를 따르면 "왜가 병사를 보내 신라의 국경 밖에서 '邏戍'시키던 중 고구려 군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 비문의 己亥, 庚子年條에 걸친 사건 즉 "왜가 신라 국경에서 城池를 파괴하던 중 고구려 군 5만이 이르자 퇴각한 것"과 부합되므로 결국 세 번째 학설 즉, 신라성을 내륙의 국성인 경주성(금성)이라고 보고 따라서 남거성도 그 근처의 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는 성립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신라성을 왕성인 경주성으로 보기 힘든 이유는 이 근거 하나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신라성을 왕성으로 보았던 이유는 남거성이 신라의 한 성이라는 전제하에 신라성과의 대응관계에 조화를 맞추어 「"신라성"은 곧 신라의 "국성(王都)"을 말하는 것으로 부여의 국성을 "餘城"이라 부르는 이치와 같다.」[117]고 한 王健群의 학설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부여성을 餘城이었다고 하여 '신라성'도 그와 같은 논리로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같은 비문상의 丙申條에는 백제의 왕성을 언급함에 있어 百濟城이라 하지 않고 國城이라는 표현[118]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史料를 통해 비교하여 추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는 앞서 말했듯 남거성이 신라의 어느 한城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한 것이므로 남거성이 다른 나라 성이라면 그러한 논리는 더욱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결국 앞에서 《三國史記》 朴堤上 傳을 통해 확인하였듯 신라성은 경주성이 아닌 국경근처의 하나의 城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남거성이 신라의 어느 한 성이 되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신라의 국경에 있는 어느 한 성을 '신라성'이라 하였는데 남거성도 신라의 어느 한 성

---

116) 김석형, 1990, 〈한국사료들을 통해 본 5세기말까지의 한일관계〉 《고대한일관계사》, 한마당, PP.385-386.
117) 王健群(林東錫 譯), 앞의 책, p.265.
118) 〈廣開土王碑文〉 丙申條
「(前略) 逼其國城 殘不服義 敢出迎戰(後略)」

이라 한다면 하나는 고유명사로 또 하나는 일반명사로 부르는 것으로서 적합한 대응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남거성을 고구려의 성으로 보고 「從男居城至新羅城 倭滿其中」의 해석을 「(고구려의) 남거성을 따라(출발하여) 신라(의 국경근처 한) 城에 이르니 왜가 그 속에 가득하였다.」의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 즉 從을 고구려 군대의 출발개념으로 보고자하는데 그 이유는 출발시점에 있어 어떤 특별한 사건의 전환도 없이 '남거성'이란 고유명사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은 自國의 城이 아니면 통하기 힘든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성'은 왜에 의하여 함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己亥條에서 분명히 '潰波城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신라왕 자신이 스스로 한 말이기 때문에 국경근처의 소규모 성이 공략당한 것은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B-2에서 논점이 되어야 할 부분은 '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安羅人戍兵'이다.

기존에 논란이 되어 온 부분 중 우선 從拔城에 관한 것을 보면 이에는 크게 성의 이름으로 보는 입장[119] 과 풀어서 「성을 공략함에 따라」라고 보는 입장[120]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다른 입장도 있지만 金泰植은 이를 無定見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21]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필자도 이 부분은 따로이 언급치 않기로 하겠다.

문구를 놓고 볼 때 고유명사로 보는 입장은 별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두 번째 입장의 경우는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다. 성을 공격했다면 '降服'에 관계된 문구가 나와야지 스스로 복속했다는 의미의 '歸服'이란 문구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유명사로 보는 첫 번째 학설이 타당할 것이다.

---

119) 김석형, 앞의 책, P.405.
千寬宇, 1991, 《加耶史研究》, 一潮閣, p.130.
王健群(林東錫 譯), 1985, 앞의 책, p.308.
120) 末松保和, 1956, 앞의 책 P.74.
安春培, 1992, 앞의 논문, P,315.
121) 金泰植, 1994, 앞의 논문, P.96.

한편 이 任那加羅는 구체적으로 어느 가야이며 종발성은 또 어디에 있는 성인가가 의문시된다. 필자는 임나가라를 김해의 금관가야로 보는 견해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任那加羅에 관련된 사료는 本碑文 庚子年條 외에, 《三國史記》 卷46 列傳 强首傳[122] 경상남도 창원의 봉림사터에 있다가 현재는 경복궁 옥외에 전시되어 있는 진경대사 탑비문[123] 등 세 곳에서만 발견되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의 국명 내지는 지명을 지칭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宋書의 倭國傳[124]과 《翰苑》 新羅條[125] 《通典》 卷百八十五·近防門一·東夷·新羅條[126]등에 실려있는데 모두 任那와 加羅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任那란 명칭이 68記事에 걸쳐 가장 많이 나오는 《日本書紀》에는 직접적으로 '任那加羅'라고 기재된 곳은 없는 듯 하며 '任那'란 용어 자체가 가야의 어느 한 특정국을 가리키거나 가야국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나 대개는 후자의 경우로 많이 쓰이고 있다.

廣開土王碑文에 나타난 '任那加羅'라는 단일국명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任那'와 '加羅'를 각각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중국의 사료들을 이를 규명하기 위한 주된 근거자료로서 이용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것 같다. 또한

---

122) 《三國史記》 卷四十六 列傳 强首傳
「强首 中原京沙梁人也(中略)對曰 臣本任那加良人 名牛頭」

123)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文》
「大師諱審希 俗姓新金氏. 其先任那王族 (後略)」

124) 宋書 卷九十七 列傳 第五十七 夷蠻傳 東夷 倭國傳
「在高麗東南大海中(中略)太祖元嘉二年(中略)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中略)二十八年加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如故(中略)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順帝昇明二年(中略)詔除武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

125) 《翰苑》 卷第三 蕃夷部 新羅條
「(前略) 今訊新羅者老云 加羅·任那 昔爲新羅所滅. 其故也. 今竝在國南七八百里. 此新羅有辰韓·弁辰廿四國 及任那·加羅·慕韓之地也. (後略)」

126) 《通典》 卷一百八十五 邊防門一東夷上 新羅條
「新羅國 魏新唐國焉 (中略) 因襲加羅任那諸國滅之」

《日本書紀》의 사료들은 단일 소국으로서 임나를 지칭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호한 면이 있으므로 이 역시 주된 사료로서 선택하는데 적합치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따라서 한국사료를 기준으로 하되 단일국명으로서의 任那를 밝히는데 근거가 될만한 중국 및 일본사료들을 선택해 참고적으로 부연하는 제한된 방식으로 소략하도록 하겠다.

任那加羅가 금관국임을 확실히 전해주는 사료는 본래는 경상남도 창원의 봉림사터에 있었으나 현재는 경복궁 옥외에 전시되어 있는 진경대사 탑비이다.[127] 이 내용 중에 "大師의 謂는 審希이고 속성은 新金氏이다. 그 선조는 任那의 王族으로…… 우리나라에 투항했다. 遠祖인 흥무대왕은 무략을 지녀 왕실을 구해내고 2敵(백제와 고구려) 을 평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新金氏란 법흥왕 19년(532)에 신라에 항복한 金官伽耶의 仇亥가 신라왕족의 대우로서 받은 김씨성을 말하는 것이며, 흥무대왕이란 《三國史記》列傳 金庾信傳[128]을 보면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金仇亥의 증손인 김유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任那가 金官國임은 확실하다.

다음으로 《三國史記》 列傳 强首傳[129]에 "强首는 중원경 沙梁人이다. (中略) (태종무열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신은 본래 任那加良 사람으로 이름은 牛頭입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신라가 國原(충주)에 小京을 설치한 것은 진흥왕 18년(557)이고, 그 이듬해인 진흥왕 19년(558)에 신라는 貴戚子弟와 六部豪民을 옮겨서 국원을 채웠다고 하였다.[130] 그런데 이 해는 아직 고령의 대가야가 멸망하기 전이고, 신라수도 경주에는 이미 법흥왕 19년(532)에 항복한 금관국왕 및 그 일족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국원소경 설치 당시에 그들 중의 일부가 충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131] 따라서 강수가 태종무열왕과 대화를 나누는 시

---

127) 앞의 註 123) 과 같음.
128) 《三國史記》卷 第四十三 列傳 第三 金庾信 下
「(前略)"後興德大王封公爲興武大王" (後略)」
129) 앞의 註 122) 와 같음.
130) 金泰植, 1994, 앞의 논문, p.65.

기가 7세기로서 大伽耶가 멸망한 시기라 신라에 통합된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신라에서 살고 있었던 金官伽耶人 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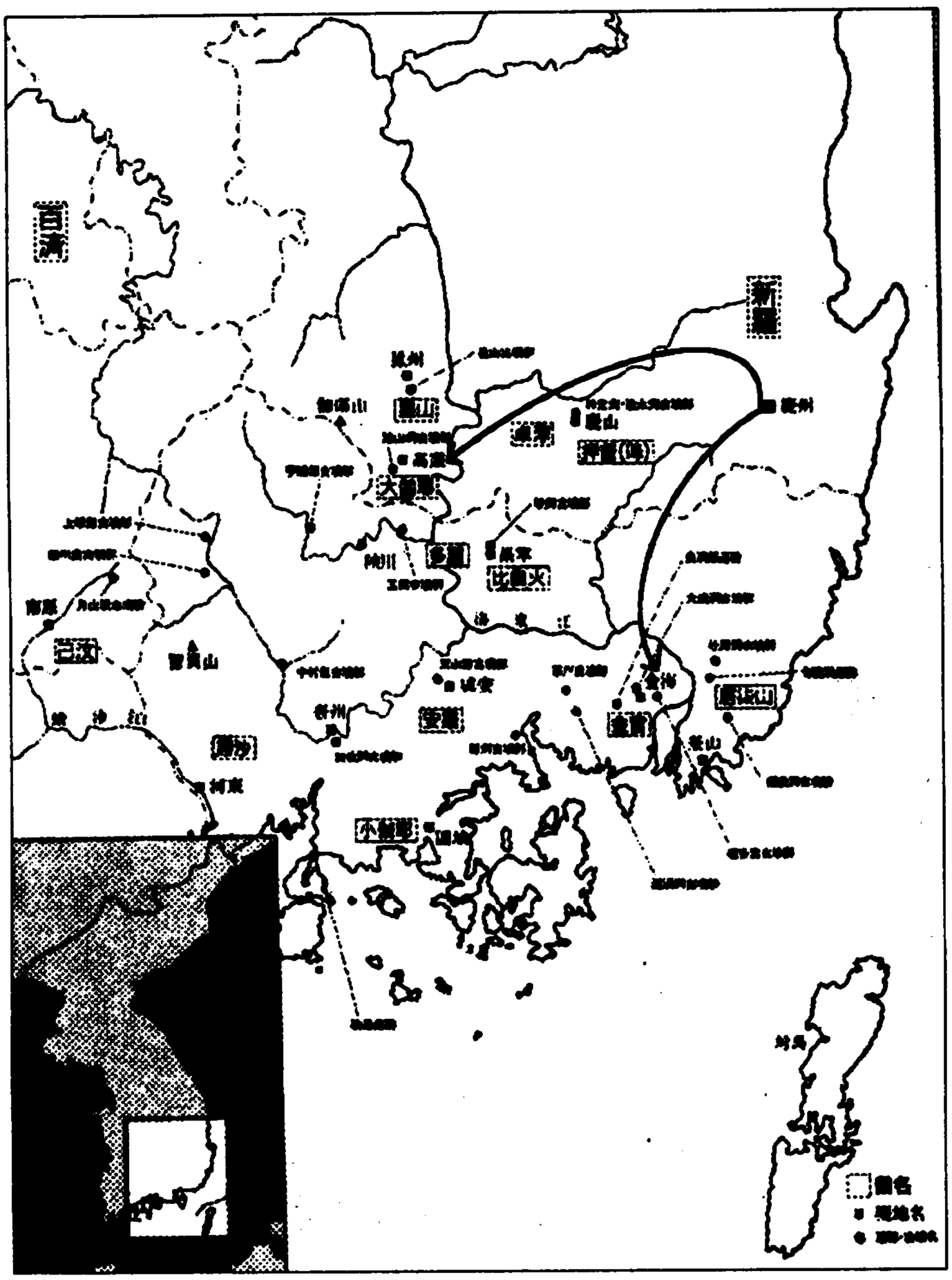

그림 1) 伽耶의 疆域

또한 中國史書인 《翰苑》 新羅條[132]에 있어 그 分註에는 齊書(南齊書)의 가라국전을 인용한 후 (翰苑의 撰者 張楚金이) 신라의 耆老에게 (가야에 관해) 질문을 했더니 "加羅·任那는 옛날 신라가 멸망시킨 것으로 그 땅은 신라의 7, 8백리에 있다"고하였다. 이 말을 풀어보면 "新羅"라는 것은 수도 경주를 말하는 것일 터이므로 그곳을 기준으로 할 때 (위의 그림 1)에서 보듯) 7백리 거리에 있다고 하는 加羅는 지금의 고령, 8백리 거리에 있다고 하는 任那는 지금의 金海에 해당되므로,여기서도 역시

131) 위의 註.
132) 앞의 註 125) 와 같음

任那란 '金官伽耶'를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 쓰임새에서 고령의 대가야는 '加羅'라는 명칭으로 대표되고 있음을 볼 때 任那加羅=金官加耶일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日本書紀》에 있어 '任那'가 금관가야로 쓰이는 경우을 보기로 하겠다.

A. 六十五年秋七月, 任那國遣 蘇那曷叱知, 令朝貢也. 任那者去筑紫國, 二千餘里. 北阻海以在鶏林之西南. (《日本書紀》卷 第五 崇神天皇 六十五年條)

B. (前略)一云, 御間城天皇之世, 額有角人, 乘一船, 泊于越國笥飯浦. 故號其處曰角鹿也. 問之曰, 何國人也. 對曰, 意富加羅國王之子, 名都怒我阿羅斯等. 亦名曰于斯岐阿利叱智干岐. 傳聞日本國有聖皇, 以歸化之. 到于穴門時, 其國有人. 名伊都都比古. 謂臣曰, 吾則是國王也. 除吾復無二王. 故勿往他處. 然臣究見其爲人, 必知非王也. 卽更還之. 不知道路, 留連嶋浦, 自北海廻之, 經出雲國至於此間也. 是時遇天皇崩. 便留之, 仕活目天皇逮于三年. 天皇問都怒我阿羅斯等曰, 欲歸汝國耶. 對諮, 甚望也. 天皇詔阿羅斯等曰. 汝不迷道 必速詔之, 遇先皇而仕歟. 是以本國名, 追負御間城天皇御名, 便爲汝國名. 仍以赤織絹給阿羅斯等, 返于本土. 故處其國爲彌摩那國, 其是之緣也. 於是, 阿羅斯等以所給赤絹, 藏于其國郡府. 新羅人聞之, 起兵至之, 皆奪其赤絹. 是二國相怨之始也. (後略)

(《日本書紀》 卷 第六 垂仁天皇 2年條)

위의 記事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A와 B기사는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단지 A에서의 소나갈질지가 B에서는 도노아아라사 등으로 표현되는 데 불과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A에서는 이 동일인물의 국적을 '任那'라고 표시한데 대해 B에서는 '意富加羅'라는 구체적인 국명을 기재하고 있어 임나의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記事에

나오는 '意富'(오호)는 日語에 '大'의 뜻으로 '意富加羅'는 '大加耶'를 말하는 것이다.[133] '大加羅'즉 '大加耶'는 5세기 경까지는 南加羅, 즉 금관가야를 일컫는 말이었고, 그 뒤에 고령가야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134] 결국 任那란 말이 최초로 쓰이게 된 곳은 금관가야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史料의 시기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三國史記》 초기기록에 나타난 금관국의 다른 가야제국에 대한 상대적인 국력의 우월성을 볼 때[135] '대가야'란 명칭으로서 단독으로 왜와 교역관계를 추진할 만한 곳은 金海의 金官伽耶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언하자면 이 사료에서는 任那의 性格도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사료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금관가야국의 왕자 도노아아라사 등이 어간성천황 즉 숭신천황을 만나보려 했으나 실패하고 천황의 이름을 따서 미마나 즉 '任那'라고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이는 황국사관의 영향을 받은 《日本書紀》 撰者의 윤색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보다는 오히려 "아라사 등에게 붉은 비단을 주어 본토에 돌아가게 하였다. ……아라사 등은 받은 붉은 비단을 자기나라의 창고에 넣어두었는데 신라인이 이를 듣고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가서 그 붉은 비단을 빼앗았다. 이것이 두 나라의 원수가 된 시작이라고 한다."는 내용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여기서 '붉은 비단'이란 단순한 천황의 하사품이 아닌 임나와 왜의 교역물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사에 표현된 가야와 신라의 분쟁은 이 붉은 비단 즉 교역물 내지는 교역권을 둘러싼 경제적이권을 획득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任那란 왜와의 교역관계에서 비롯된 명칭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왕자가 내방을 했을 정도라면 그것은 국가대 국가간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온 것일 테고 그것은 곧 교역관계를 맺기 위한

---

133) 金廷鶴, 1990, 《韓國上古史研究》, 범우사, P.346.
134) 위의 註 參照.
135) 예를 들어 《三國史記》 파사니사금 23년조에 신라왕이 금관국 수로왕에게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사례를 볼 때 당시 금관가야의 국가적 발전이 신라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것이라는 것을 기사의 내용은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설혹 任那의 명칭이 승신천황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야와 왜사이에 최초로 교역관계가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는 당시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되는 금관가야의 유적·유물이 왜지에서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뒷받침되는 것이다.[136]

이를 토대로 李丙燾 博士가 일찌기 "任那日本府라는 것은 왜국이 가야제국과의 무역관계를 위해서 설치한 것"[137]이라고 본 견해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任那日本府'를 군사적인 성격으로 이해하여 비문상의 任那加羅를 왜의 傭兵으로 생각하는 견해는 여기에서도 그 허구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任那加羅에 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종발성의 위치가 어느 지점인가는 앞의 朴堤上傳을 통해 당시 역사 상황의 개괄적으로 살필 때 추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핀 《三國史記》列傳 朴堤上傳에 "신라가 고구려와 더불어 왜를 침략하려 한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남하정책이 백제를 견제하려는 당시 신라의 정책과 이해를 같이하게 되고 이에 대응해 백제가 가야와 왜를 동맹권으로 끌어들이는 사실을 반영하는 記事라면 당연히 왜와 가야간에도 이미 군사적인 유대는 성립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야 내에는 이미 전부터 일정한 규모의 왜군이 신라를 견제하고자 했던 가야의 협조를 통해 백제와 연락을 취하며 진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己亥年에 처음으로 배를 타고 신라를 침공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백제의 사주를 받고 일단은 任那伽羅 영토 내에 한반도 남부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백제와의 동맹유지 및 高句麗,新羅의 움직임을 포착하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소수선발대의 형태로 들어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138] 그러던 중 그 선발대는 高句麗

---

136) 申敬澈, 1991, 〈金海 大成洞古墳群의 發掘調査成果〉 《伽倻文化》第 四號, 財團法人 伽倻文化研究院, pp. 233-240.

137) 李丙燾, 1981,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 305.

138) 이렇듯 백제가 의도적으로 왜와 군사적으로 동맹을 이룬 시기는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日本書紀》神功紀 46年條에 표현된 3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軍의 평양순하라는 구체적인 군사동향을 포착하고 이를 倭의 本國에 알리자 왜본국에서는 한반도에로의 본격적인 출병을 단행하여 伽耶軍과 연합, 新羅의 鹽城을 비롯한 국경근처의 몇몇 성을 함락시켰을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韓半島 內에 진주하며 高句麗와 新羅의 군사동향을 포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던 선발대의 왜군은 정찰활동과 병행하여 新羅城들을 약탈하는 등 新羅가 高句麗와 연대하려는데 대한 일종의 '示威'행위를 벌이다가 高句麗軍의 기습공격[139]을 받고 쫓기던 중간에 그들(倭)의 同盟軍인 任那加羅城을 지나치게 되어 高句麗軍이 任那加羅城에서 伽耶軍의 항복을 받느라고 추격을 지체하는 사이 선발대의 왜군은 그들 본대가 함락시켜 주둔하고 있던 신라 국경 근처의 또다른 新羅城인 鹽城으로 쫓겨들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倭軍이 鹽城으로 쫓겨들어가던 도중에 있었던 任那加羅 從拔城도 鹽城의 근처 곧 新羅國境 근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城卽歸服安羅人戍兵」에 대한 문제이다. 이 구절은 실로 중요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냐에 따라 가야를 비롯한 국제관계사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핵심인 安羅人戍兵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의 諸說은 크게 나누어 고유명사로 보아 「안라인으로 구성된 수비대」로 보는 입장[140]과 각각 말을 풀어서 「羅人을 戍兵으로 안치시켰다.」라고 보는 입장[141] 이 있다.

수 있다.

139) 비문 기해조의 '密計'라는 말에서 이러한 기습의 암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0) 菅政友, 1891, 〈高麗好太王碑銘考〉 《史學雜誌》 24(2-11), pp.49-50.
那珂通世, 1893, 〈高麗古碑考〉 《史學雜誌》 49(4-12), p.33.
末松保和, 1956,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p.74.
鈴木靖民, 1988, 〈好太王碑の倭の記事と倭の實體〉 《好太王碑と集安の壁畵古墳》(讀賣テレビ放送編), 木耳社, pp.54-58.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p.120.
田中俊明, 1992,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p.212.

141) 王健群, 1985, 앞의 책, pp.266-268.
高寬敏, 1990, 앞의 논문, p.161.
安春培, 1992, 앞의 논문, p.315.

또 세부적으로 보면 고유명사로 보는 경우는 안라인의 정체를 「왜군의 별동대」라는 입장[142], 「백제의 동맹군」으로보는 입장[143], 「고구려군을 따라다니는 안라인의 슬병」으로 보는 입장[144] 이 있고, 안라인 슬병을 풀어서 보는 경우는 羅人의 정체를 신라인으로 보는 입장[145]과 고구려의 邏人 즉, 순라병으로 보는 입장[146]으로 대표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각각 반론도 제기되었는데 안라를 고유명사로 보는 데 대한 반론은 첫째 「만약 이를 전용명사로 이해한다면 앞의 "安羅人戍兵"은 반드시 아래에 붙여 읽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安羅人戍兵拔新羅城, 鹽城, 倭寇大潰"가 되어 "安羅人戍兵"이 倭를 친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는 것」[147]이 있고 둘째, '安羅'란 명칭은 중국전적이나 《三國史記》에는 기록이 없고 일본의 고적 중에만 나오는데 고구려가 똑같이 이런 명칭을 사용할 리가 없다는 것[148] 셋째, 고구려가 적대세력에 대해서는 왜적·왜구 등의 부당성을 내포하는 표현법을 취하고 있는데, 안라인에 대해서는 '안라가야인'이라든가 '슬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왜의 例와 對比하여 볼 때 부자연스럽다는 것[149]이 있다.

또 안라인슬병을 풀어서 보는데 대한 반론으로는 우선 '羅人'을 신라인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첫째, 永樂 10年條에는 「倭」 외에 「新羅」·「任那加羅」 등의 문구가 뒤섞여 등장하고 있는데, 그같은 상황에서 「新羅」를 단

金泰植, 1994, 앞의 논문, p.89.

142) 앞의 註 140)과 같음.

143) 金錫亨, 1988, 《고대한일관계사》, 한마당, pp.405-406.
千寬宇, 1991, 앞의 책, p.27.
李永植, 1983, 《加耶諸國의 國家形成問題》,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p.36.

144) 山尾幸九, 1989, 앞의 책, P.202.

145) 王健群(林東錫 譯), 1985, 앞의 책, P.161.
安春培, 1992, 앞의 논문, P.315.

146) 高寬敏, 1990, 앞의 논문, P.161.
金泰植, 1994, 앞의 논문, P.89.

147) 王健群(林東錫 譯), 1985, 앞의 책, P.268.

148) 王健群, 위의 책, P.266.

149) 鈴木英夫, 1987, 「加耶・百濟と倭」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pp.70-71.

지 「羅」 한 자로 약식 표기하여 「羅」 字를 이러한 他國(任那加羅-필자)의 국명과 쓸데없이 混同, 混亂을초래하는것은 주도면밀한 「碑文」의 필체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150]이 있고, 둘째, '拔新羅城·鹽城'을 신설과 같이 고구려의 행위로 보면 관군이 이미 신라성내에 가득한 왜적을 쫓아냈는데 이를 다시 점령한다는 것이 되어 내용상 중복이 되며, 또 신라성내의 신라인이 왜에 항전한 후 新羅人을 두어 수비시켰다면 이는 지나치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151]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羅人'을 高句麗의 '巡邏兵'으로 보는데 대한 세부적인 反論은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들 기존설들에 대한 각각의 반론을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알아본 뒤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우선 安羅를 고유명사로 보는데 대한 첫 번째 반론은 구두점을 至任那加羅從拔城城卽歸服과 같이 끊는 통설에 대해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구두점을 城卽歸服에서 끊기 때문에 바로 뒷 구절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어긋나게도 안라인 수비대가 신라성내의 왜를 공격하는 모순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에 安羅人戍兵을 고유명사로 보는 필자는 구두점을 「至任那加羅從拔城(於)城卽歸服安羅人戍兵」과 같이 끊는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城자 앞에 조사 於의 의미가 생략되었다고 보고 安羅人戍兵을 歸服의 主語로서 도치된 문장으로 보아 「任那加羅從拔城에 이르니 성에서 곧 안라인수비대가 귀복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는 문장내용 자체로만 보면 논리성에 문제가 있다. 즉, '고구려군이 왜군을 추격하던 도중 任那加羅從拔城에 이르렀는데 성에서 任那加羅軍이 아닌 아라가야국 수비대가 귀복해왔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역사적 상황의 전제를 세운다면 그다지 무리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즉, 성내에는 가야의 연합군이 있었는데 당시 김해의 금관가야는 명목상의 맹주로서 '任那加羅'라고 불리웠을 뿐이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古金海灣의 閉港과 浦上八國의 亂을 기점으로 가야제국내에서 '맹주'로서의

150) 武田幸男, 1989, 앞의 책, p.120.
151) 鈴木靖民, 1988, 앞의 논문, p.58.

지위를 상실한 금관가야의 뒤를 이어 패권을 잡은 安羅가 실질적인 맹주격이었기 때문에 任那加羅城 수비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문의 제작자는 성 전체 가야연합군의 항복에 대해 '安羅人戍兵의 歸服'만을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앞서 말했듯 任那의 의미가 '맹주'로서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금관가야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그 지위에 올라선 安羅에게도 이중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명칭으로 본다면 더욱 설득력 있다고 보여진다. 만일 이렇게 보지 않고 안라인술병을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가야의 영토내에서 '任那加羅'라는 '맹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이름만 나타나고 가야의 實名은 하나도 보이질 않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즉 다수의 가야 연합군이 모였다고 보여지는 任那加羅城에서 이미 쇠퇴해버린 금관가야의 추상적인 명칭인 '任那加羅'라는 명칭만 보인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부분으로 지적하고 싶다.

두 번째 반론의 경우에 있어서 중국이나 국내사서에 '安羅'라는 명칭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비문의 경우는 고구려 군이 왜 및 안라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난 뒤 작성된 것이므로 왜의 관념이 직·간접적으로 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세 번째 반론도 되새겨 보아야 한다. 반론자의 말처럼 高句麗가 적대세력에 대해 蔑稱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백제는 오랜 숙적이기 때문에 碑文全體에 걸쳐 '百殘'이라는 蔑稱으로 일관되고 있지만 왜의 경우는 己亥年條에는 '倭人'[152] 庚子年條에는 '倭賊, 倭寇'라고 하여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해보면 일반적인 상황과 대립적인 상황을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는 비문 撰者의 세밀한 표현기법으로 생각되며, 安羅人戍兵의 경우도 이러한 차원에서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

152) 물론 이는 신라왕의 말을 옮겨놓은 것이지만 비문에 옮겨진 이상 비문의 찬자인 고구려인의 관념으로 설정된 용어일 것이다.

그리고 安羅人戍兵이 고유명이라면 그 정체가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세 가지 학설 중 어떠한 것이었는지 밝혀야 할 것인데, 2章의 고찰결과를 놓고 볼 때 백제의 동맹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필자는 안라인술병을 고유명으로 보는 입장이므로 안라인술병을 풀어서 보는데 대한 반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치 않고자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론이 제기되지 않은 쪽인 羅人을 고구려의 邏人으로 보는 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를 검토해 볼 때 羅人을 巡邏兵의 의미라고 해석하면 戍兵과 의미가 중복되어져서 부자연스럽다.[153] 해당구절과 같은 경우에 있어 '邏'는 '순찰하다'라는 뜻이 강하지만 '수비하다'라는 뜻도 있는 한편, '戍'은 '수비하다'라는 뜻 외에 다른 뜻은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즉,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비슷한 의미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중복되는 의미를 가급적 삼가하는 비문의 문장에서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또한 '邏'와 '羅'를 혼용해서 같은 의미로 '巡邏'의 의미로 썼다고 하는 예는 고금의 문헌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B-3은 바로 앞에서 다루었던 문장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 구절을 다루기 전에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앞에서 任那加羅城에서 伽耶軍이 高句麗軍에 항복할 때 성안에 왜군의 존재유무에 관한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문의 내용은 사건의 정황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데 앞의 신라성에서 쫓긴 왜군이 임나가라성까지 와서 항복할 리가 없는 것이다.

만일 고구려군에 추격 당한 왜군이 아닌 다른 부대의 왜군이라도 가야군과 함께 항복했다면 전반적으로 비문의 주체인 고구려가 왜와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庚子年條에서 항복한 왜군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 任那加羅城 內에 추격 당한 왜군이 先發隊의 倭軍이 아닌 本隊의 왜군이 있었다고 상정해도 마찬가지의 결론이다. 또한 가야

153) 延敏洙, 1994, 앞의 논문, PP.59-60.

군만 항복하고 왜군은 도주를 했다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에 대한 일말의 언급이라도 있었어야 당연하였을 것이다.

결국 앞 구절에서 나오듯 '急追擊'을 받던 왜군은 동맹국인 任那加羅 城으로 들어갈 사이도 없었던 것이고 高句麗軍이 왜의 동맹군인 伽耶軍에게 왜군을 추격하던 도중에 위치하여 있었던 任那加羅從拔城에서 항복을 받는 사이 그들(왜군)은 전에 그들 본대가 함락시켰던 新羅城인 鹽城으로 쫓겨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종발성을 왜군을 비롯한 연합군의 기지로 보는 시각[154]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렇듯 중요한 싸움에서 가야영토내의 요로에 왜군이 진주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가야와 왜는 서로 공동의 군사작전은 행하되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을 휘하로 삼아 지휘하는 종속체계가 아닌 독립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3마지막 구절에서 고구려군이 '新羅'의 鹽城을 공격한 뒤의 연속적인 상황전개로서 나타난다고 보여지는 '倭安羅人戍兵'의 공동 출현은, 왜와 안라인술병이 작전이 필요한 곳에서만 군사적인 연합을 했다는 의미를 傍證하는 것이지 결코 지휘계통 우열의 의미가 담긴 문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B-3의 拔新羅城鹽城 倭寇大潰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내용은 從拔城에서 가야군의 항복을 받은 고구려는 왜군이 도망쳐 들어간 新羅城인 鹽城을 공격하였고, 동맹군인 가야가 쉽사리 항복을 한 상황에서 군사적인 면까지 열세인 왜군은 곧 크게 궤멸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新羅城鹽城이다. 이 부분은 신라성과 염성을 별개인 두개의 성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고,이에 대해 기존설을 판독의 잘못으로 이해하여 신라의 □鹽城으로 보는 견해[155]와 동격관계로 보는 견해[156]가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같지만 보는 방법이 서로 틀리다. 두 번째 방법은 판독상의 문제이므로 거론

154) 鈴木靖民, 1993, 〈四, 五世紀の高句麗と倭〉 《廣開土王碑と古代日本》, 學生社, p.115.
155) 金泰植, 1994, 앞의 논문, p.90.
156) 安春培, 1992, 앞의 논문, P.320.

치 않기로 하고 필자는 세 번째 견해에 따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비문에서는 新羅城이 國城인 경주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의 남거성과 신라성을 설명할 때 말했듯이 이 경우도 똑같은 신라의 일반성을 하나는 고유명사로 또다른 하나는 일반명사로 부른다는 건 어색하다. 더구나 이번 경우는 앞에서처럼 다른 나라의 성과 대비하는 경우하고는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또한 앞의 신라성은 왜가 이른바 고구려와 신라에 대한 산발적 '示威'의 형태로 국경 근처에서 약탈을 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왜가 구체적으로 어느 성을 빼앗는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비문의 제작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 이름을 구체화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지나 이 鹽城과 같이 왜군이 빼앗아 기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新羅城인 鹽城'이라고 동격관계로 표현할 개연성은 충분한 것이다.

다음 구절의 城<u>內十九盡拒隨倭安羅</u>人戍兵은 밑줄친 부분의 판독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157]가 있어 번역을 보류하기로 하겠다.

B-4의 앞부분은 비문이 거의 훼손되어 판독이 안된 상태이므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없으나 끝부분의 (前略) 殘倭潰逃, 拔□城安羅人戍兵은 대체적인 내용파악은 이 짐작가능하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잔 '殘倭'이란 문구인데 이를 당시 동맹관계 구도를 놓고 보면 앞구절에서 백제-가야-왜 중 비문상에 백제만 그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殘'은 앞에 '百'字가 훼손되어진 상태의 백제와 왜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三國史記》 記錄과 비교해 보면 백제의 직접참전에 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殘倭'를 (敗하고 난) '나머지 왜'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158] 그렇게 되면 '殘'이 뒤의 '潰'의 의미와 중복이 되어 「패배한 나머지 왜가 (또

---

157) 金泰植은 이 부분을 城<u>夫十九 盡煞抑徙</u>安羅人戍兵라고 판독하였다.
金泰植, 1994, 앞의 논문, P.93 參照.

158) 실제로 安春培는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安春培, 1992, 앞의 논문, p.320.

한번)궤멸되어 도망갔다」는 식의 어색한 해석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庚子年에 해당하는 《三國史記》, 百濟本紀, 阿莘王 9年條에는 百濟의 參戰與否와 관련된 記事는 찾아볼 수 없고, 8年 己亥條 記事에 "왕이 고구려를 치려고 크게 병마를 징발하였으나 백성들은 병역이 괴로워 신라로 많이 도망하니 호구가 衰減하였다."[159]라고 하였다. 이는 전술했듯이 아신왕은 397년에 태자 전지를 왜에 보내 왜의 출병을 유도하던 중 마침내 이해에 이르러 구체적인 군사작전을 위해 倭가 新羅로 본격적인 출병을 하게 되자 이에 보조를 맞추어 아신왕도 출병하려 하였으나 丙申年의 高句麗에 대한 대 참패로 사기를 잃은 백제의 백성들은 자신감을 잃고 高句麗의 동맹국인 新羅로 도망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해(399)에는 출병치 못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高句麗와의 전쟁을 위해 왜의 출병을 수년간에 걸쳐 어렵게 이끌어낸 百濟의 입장에서는 이렇듯 倭로부터 군사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 好機를 살리기 위해 민심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킨 1년 뒤 庚子年(400)에 무리한 出兵을 강행하게 되었으나, 결국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힘없이 패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쪽이 한층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B-5로 넘어가보자.

內容은 대략 '高句麗의 新羅救援戰이 있기 전까지는 新羅賜錦이 논사하여온 일이 없었는 데 전쟁 후 조공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신라가 고구려에 대해 종속관계를 맺는 문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401년에 고구려에 인질로 머무르고 있던 실성이 귀국[160]하여 그 이듬해(402)에 왕으로 즉위하나 후에 눌지왕에게 살해당하여 왕위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161] 신라의 왕위계승문제까지 고구려가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59) 《三國史記》, 百濟本紀, 阿莘王 8年條
「八年 秋八月 王欲侵高句麗 大徵兵馬 民苦於役 多奔新羅 戶口衰減」

160)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三 奈勿尼師今四十六年條
「秋七月, 高句麗質子實聖還」

161)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三 訥祗麻立干 卽位年條 參照.

믿줄친 僕勾의 意味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碑文의 僕勾를 실성니사금 11년(412)에 高句麗에 볼모로 보낸 내물왕의 아들 卜好[162]와 동일인물로 보는 견해[163]가 유력한 듯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그를 대체할만한 요소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따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가야의 대외관계와 그에 따른 위상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서 廣開土王碑文 己亥, 庚子年條의 內容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문의 내용에 나타난 가야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당시의 가야는 내부적으로 세력재편이 이루어지던 과정에 있었다는 것이다. 碑文의 內容 中에서 任那加羅 즉, 金官伽耶보다 함께 등장하는 安羅伽耶 즉, 阿羅伽耶의 역할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庚子年에 阿羅伽耶는 任那加羅 즉 金官伽耶의 종발성에서 비록 고구려군에 항복하기는 하였으나 내부적으로 기존의 강국이였던 任那加羅를 대신하여 가야제국군대를 이끌고 있는 실질적인 맹주격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한 점이다.

또한 당시 가야는 대외적으로 주변의 강국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갈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또한 庚子年條를 살펴볼 때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가야군이 주변의 강국이자 동맹군인 백제나 왜에 구애됨이 없이 독립작전을 펼친것을 볼 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시 가야는 내부적인 흥망성쇠의 변동으로 인해 통일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었으므로 주변국들에 비해 국력이 다소 열세에 놓여있었던 것만큼은 인정될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 성공적인 세력재편과정을 통해 고대국가에 버금갈 만큼 상당한 세력을 계승해 가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자주성

---

162)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三, 實聖尼師今 十一年條
「以奈勿王子卜好 質於高句麗」

163) 佐伯有淸, 1977, 《七支刀と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p.77.
鈴木靖民, 1988, 앞의 논문, p.60-61.
延敏洙, 1994, 앞의 논문, p.62.

을 확립하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任那(金官)伽耶의 衰退와 '安羅(阿羅)'伽耶의 浮上

비문 상에 나타나는 任那, 安羅伽耶는 각각 金海의 金官伽耶와 咸安의 阿羅伽耶를 지칭하는 것임을 前章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본 장에서는 비문과의 상호 연관성에 충실하기 위하여 제목을 '任那', '安羅'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내용전개에 있어서는 각각 金官, 阿羅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 伽耶史의 연구에 있어 주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기록된 〈駕洛國記〉에 근거하여 변진소국단계에서 伽耶諸國 중 그 中心勢力이 金官伽耶라는데 의견이 모아져 왔다.

이렇듯 금관가야가 연맹을 이끄는 가야의 중추세력이었다고 보았던 주된 이유는 대체적으로 문헌기록상으로 다른 가야국들에 비해 사료 상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과 풍부한 철광자원의 소유[164], 풍부한 농산물의 産地[165] 라는 天惠의 자연적 환경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국제적 교역관계의 중심지로서 자리잡았다는데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요인 중 우선 자연적인 환경의 우수성은 고고학적으

---

164) 이와 같은 점은 아래 사료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三國志》東夷傳 弁辰條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又以供給二郡」
《後漢書》 東夷傳 辰韓條
「國出鐵 濊倭馬韓并從市之 凡諸貿易 皆以鐵爲貨 俗喜歌舞 飮酒鼓瑟」

165) 이와 같은 점은 아래 사료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三國遺事》〈駕洛國記〉
「朕欲定置京都 仍駕幸假宮之南新畓平(是古來開田. 新耕作畓云也. 畓乃俗文也)·····
築置一千五百步周廻羅城 宮禁殿宇 及諸有司屋宇 虎庫倉廩之地」
《三國志》東夷傳 弁辰條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作縑布乘駕牛馬 嫁取醴俗男女有別」

로 김해지역에서 철광의 발견[166], 탄화미의 출토[167] 등과 같은데서, 다음으로 교역관계의 중심지라는 점은 중국제의 화폐를 비롯한 유물들의 발견[168] 및 파형동기를 비롯한 왜와 관련된 물품의 출토 등을 통해서[169] 확인되어지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근거하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연구를 놓고 볼 때 초기 가야사회에 있어 금관가야가 중심세력이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반드시 당시 가야사회의 내적 발전 상황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연맹체로서의 틀을 형성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철광의 경우는 또다른 가야계의 대곡철산 창원철산의 존재도 확인되는 바이고[170],전남 해남지역,거문도를 비롯하여 경남 마산, 제주도 등 한반도 남해안 일대에서는 중국과의 무역관계의 물적 증거인 중국화폐를 비롯한 유물들이 김해지역 못지 않게 두루 발견되는 것[171]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김해지역의 금관가야가 가야제국내에서 철광자원의 소유와 대외교역의 독점을 바탕으로 한 유일한 강국이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것이다. 결국, 이는 任那加羅와 더불어 또다른 가야제국내의 유력세력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관가야와 더불어 그에 못지않은 세력으로 존재했으나 사료의 빈곤성으로 연구가 도외시되었던 다른 가야의 존재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광개토왕 비문에 금관가야와 더불어 나타나는 아라가야의 경우는 비문의 예에서 보듯 당시에는 금관가야보다 오히려 강대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阿羅伽耶는 金官伽耶와 더불어 가야

---

166) 尹錫曉,1990, 앞의 책, pp.90-91.

167) 李憲載, 1990, 〈伽耶諸國의 國家形成에 關한 硏究-金官伽耶를 中心으로 한 移住民의 役割 및 經濟的 背景과 관련하여-〉, 漢陽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105 圖表 參照.

168) 李憲載, 앞의 논문, p.88 圖表 參照.

169) 申敬澈, 1991,〈金海大成洞古墳群의 발굴조사성과〉 《伽倻文化》第 四 號, 財團法人 伽倻文化硏究院, pp.233-240.

170) 尹錫曉, 앞의 책, p.91.

171) 李憲載, 1990, 앞의 논문, pp.88-89 圖表 參照.

제국 내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阿羅伽耶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阿羅伽耶는 安羅國·阿尸良國의 지명과 더불어 함안군 가야면 사내리 토광묘에서 출토된 小形倣製鏡을 근거로 지금의 함안에 비정할 수 있다.[172] 뿐만 아니라 《三國遺事》와 《三國史記》를 비롯한 諸文獻에도 공통적으로 그 위치가 함안임을 밝히고 있다.[173]

성립기의 阿羅伽耶는《三國遺事》를 중심으로 한 문헌사료에 任那加羅의 前身인 구야국을 비롯한 다른 가야들과 동시에 출현하고 있다.[174] 안라가

---

172) 金泰植, 1992, 〈加耶諸國聯盟의 成立과 變遷〉,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83.

173) 《三國史記》卷第三十四(雜誌 第三) 地理志 咸安郡條
「咸安郡 法興王以大兵滅 阿尸良國(一云 阿那加耶) 以其地爲郡 景德王改名今因之」
《三國遺事》卷一 五伽耶條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 古寧伽耶(今咸寧) 大伽耶(高靈) 星山伽耶(今昌寧恐高靈之) 小伽耶(今固城), 又本朝史略云 太祖天福五年庚子 改五伽耶名一金官9(爲金海府) 二古寧(今加利縣) 三非火(今昌寧恐高靈之) 餘二 阿羅 星山(同前或作碧珍伽耶)」
《高麗史》五十七 地理 二
「咸安郡本阿尸良國(一云 阿那加耶) 新羅法興王滅之 以爲郡 景德王改今名 成宗十四年 爲咸州刺史 顯宗九年 復今名 來屬 明宗二年 置監務 恭民王二十二年 以縣人周英賁之女 入大明 爲宮人 遂陞爲之郡事 別號金羅」
외에《東國輿地勝覽》《咸安邑誌》《咸州志》《世宗實錄地理志》《慶尙北道地理志》《大同地志》《輿地圖書》等 參照

174) 《三國遺事》卷一 五伽耶條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 古寧伽耶(今咸寧) 大伽耶(高靈) 星山伽耶(今昌寧恐高靈之訛) 小伽耶(今固城), 又本朝史略云 太祖天福五年庚子 改五伽耶名一金官9(爲金海府) 二古寧(今加利縣) 三非火(今昌寧恐高靈之訛) 餘二 阿羅 星山(同前或作碧珍伽耶)」
《三國志》魏志 東夷傳 弁辰條
「已行國 不斯國 弁辰彌離彌凍國 弁辰接塗國 勤耆國 難彌離彌凍國 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 冉奚國 弁辰半路國 弁辰樂奴國 弁辰軍彌國 弁辰彌烏邪馬國 如湛國 弁辰甘路國 戶路國 州鮮國 弁辰狗耶國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 弁辰濆盧國 斯盧國 優由國」

최초로 출현하는 《三國志》의 편찬 년대와 〈駕洛國記〉에 기재된 년대를 놓고 추정해 볼 때 최소한 기원 1세무렵부터 3세기 사이에는 阿羅가 단위 소국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 고고학적으로도 함안 道項里, 末山里[175]와 사내리[176]에서 1-3세기 시기 의 분묘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阿羅國에 독립적인 정치체제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阿羅國이 다른 변진소국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사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三國志》魏志 東夷傳 韓傳에 "辰王治目支國臣智 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耶濆支墳臣離兒不例 狗耶秦支廉之號 其官有魏率善邑君歸義侯中郎將都尉伯長"(진왕은 목지국을 통치한다. (목지국의)신지에게는 간혹 우대하는 칭호인 신운견지보 안야슥지 분신리아불례 구야진지렴의 칭호를 더하기도 한다. 그 관직에는 魏率善·邑君·歸義侯·中郎將·都尉·伯長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 문장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진왕이 주도하는 연맹에 안야국과 구야국이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두 나라의 명칭이 목지국의 신지인 진왕에게 우월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만큼 두 세력이 강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진왕은 권력을 독점하지 못한 채로 선출에 의한 대표자의 성격을 띠므로,그가 전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력한 몇몇 소국들의 합의를 거쳐 그 권위를 빌었어야 했는데 진왕 즉 목지국의 신지에 聯名되는 신지들은 내용에 나타나듯 마한系 2국,변진系 2국이므로 그 권위를 아울러야 진왕의 영향력은 비로소 마한 및 변진 소국에 미쳤다고[177]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변진계 2국이란 구야국 즉 금관가야와 안야국 즉,아라가야를 말함인데 이렇게 안야국이 변한계의 소국들 중에서 구야국과 더불어 진왕에

---

175) 李盛周, 1993, 〈1-3세기 가야 정치체의 성장〉《한국고대사논총》5, 財團法人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126의 註121 參照.
176) 金廷鶴, 1977, 《任那と日本》, 小學館, p.75.
177) 金泰植, 1993, 앞의 책, p.66

게 우월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 選定될 정도였다면 다른 변진소국들은 물론 주변에 위치한 진한계의 일반소국들 보다도 상대적으로 강력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안라가 이렇듯 구야국과 더불어 당시 소국들 중에서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일단 阿羅가 속해있었던 함안 지역이 구야국에 못지 않은 자연 지리적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阿羅伽耶의 위치는 함안을 중심으로 하여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마산만을 끼고 있다. 남쪽으로 약 1㎞미만의 좁은 入口를 가지고 있는 천연의 양항인 마산만은 海産資源의 활용에 이용되고, 또한 함안 평야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의 생산도 풍부하여 阿羅勢力圈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178]

구체적으로 함안의 주변을 보면 서남쪽에는 餘航山, 동남쪽에는 巴山·生童山이 마주하고 있는데, 여항산 서쪽에서 巴水가 흘러나오며 이곳의 물은 함안의 동쪽에 있는 大川과 합류하여 북쪽의 풍탄으로 흘러들어간다.[179] 다시 말해 과거의 함안은 현재의 함안읍이 중심지였다고 보이는데 함안읍 주변의 지형은 북으로 6㎞ 정도 되는 곳에 남강이 흐르고,함안으로부터 남강까지는 폭 약 2㎞의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함안읍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도 진주선으로부터, 南은 산악·구릉이 옥박해 있고, 충적 평야는 폭 1㎞길이 1.5㎞로 좁혀진다.

이 충적평야는 儉嚴川·함안천·수천 등 수조의 하천이 주위의 谷川을 모아서 남강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함안읍의 해발은 불과 8m이고 함안읍을 흐르는 강은 남강, 낙동강을 경유하여 대한해협으로 나오기까지 약 100㎞나 되고 거의 경사가 없다. 더욱이 사방의 산에는 삼림이 적어 빗물은 한꺼번에 이 충적평야로 흘러나온다. 주변의 계곡사이는 꽤 넓고 동시에 인근의 경사면까지 水田으로 되어있다. 비록 오늘날 이렇듯 매우 비옥한 충적평야는 일

---

178) 尹錫曉, 1990, 《伽耶史》, 民族文化社, p.35.
179) 《新東國與地勝覽》 咸安郡條 參照 整理.

제시대 경지정리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서 과거에는 지세의 흐름이 급격히 굽은 저습한 황무지였을 것이나, 사방 계곡사이의 水田地帶는 과거와 다름이 없다. 즉, 함안의 중심은 함안천을 낀 계곡사이로 동서로 500m 남북으로 3km에도 못 미치고 수조의 지류를 낀 협소한 계곡이 이곳이 부속되어 있는데, 이 계곡의 평야는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으므로 灌漑가 용이한 水田地帶이다.

따라서 古代에는 이곳의 지형상 오히려 일제시대 이후에 정리된 강주변의 넓은 지대보다는 지금의 수위보다 10m이상 높은 계단식 논이 있는 지역이 농경에 알 맞는 지역이었을 것이다.[180]

또한 함안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 서부경남지역의 중심부로서 수로를 이용할 때, 남강 및 낙동강을 통해서 가야의 전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의 요로에 위치하고 있다. 서북쪽으로 연한 남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주지역과 사천지역에 다다르고, 인근 마산·창원지역은 육로와 수로 동시에 교류가 가능하다. 남강을 타고 내려와 낙동강을 건너면 창녕지방에 닿고, 낙동강의 흐름을 따라서 내려가면 왼쪽으로 밀양에, 더 멀리는 김해지역에 연결된다.

반대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령의 가라국과 닿으며, 또 중간즈음에 있는 황강을 타고 올라가면 합천지방으로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함안의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계곡을 따라 난 길을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해안의 진동면에 다다른다. 진동면을 비롯한 이들 해안에 연한 옵락들은 阿羅伽耶의 해양교역과 어업생산력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181]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천연의 양항인 마산만을 본거지로 하여 水路를 이용한 주변국과의 원활한 접촉을 통해 자국내에서 생산된 풍부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바탕으로 주변의 소국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차츰 그 세력을 넓혀나갔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하나 阿羅의 세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철산물의 산지는 물론 중개지

---

180) 井上秀雄, 1978,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社, pp.192-193.
181) 權珠賢, 1993, 〈阿羅加耶의 成立과 發展〉《啓明史學》, 啓明史學會, p.7.

로서도 작용했다는 점이다. 고고학적으로 가야제국이 성립하기 시작한 기원 전후부터 A.D 300년경까지는 완전한 철기시대였으므로 적어도 A.D1세기부터는 가야의 여러 지역에서 철기의 사용은 보편화되고 있었다.[182] 따라서 철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을 것이고 그 수요를 담당한 국가는 자연히 주변국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가야제국중 이러한 철산지로서 해외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곳은 금관가야의 金海鐵山과 대가야의 冶爐鐵山 등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 현재 산청군인 山陰 尺旨山의 철산과 三嘉의 毛臺里沙鐵鑛과 黃山의 철산이 있었다.[183] 함안지역에는 현재 철광산은 남아있지 않으나 행정구역상 군북면 사촌리, 오촌리 지역에 비교적 규모가 큰 폐광이 남아있어 변진시대에는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84] 또한 阿羅의 세력권에 들어있었던 주위의 대곡철산과 창원철산의 풍부한 철을 이용하였으리라고 추측된다.[185] 따라서 阿羅도 金官伽耶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수준의 제철국가였음은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정확한 편년은 알 수 없으나 삼각형의 형태로 함안분지를 조망하고 있는 문암산성, 봉산산성, 성산산성은[186] 당시 가야통치의 강한 응집력을 잘 나타내주는 흔적들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阿羅伽耶는 초기국가인 변진사회단계에서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이였던 任那 즉, 금관가야에 못지 않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견실한 내재적 발전을 이루어 갔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될 수 있는 바이다.

阿羅가 이렇듯 성장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야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금관가야가 수로왕의 사망 후 급격히 쇠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三國遺事》王曆을 보면 A.D 199년에 수로왕이 죽고 아들인 거등왕이 즉위하게 되는 데 이로부터 2년 후

---

182) 尹錫曉, 1992, 앞의 책, P.88.
183) 文暻鉉, 1977, 〈伽耶聯盟形成의 經濟的 考察〉《大邱史學》 제 12·13, P.48.
184) 權珠賢, 1993, 〈阿羅加耶의 成立과 發展〉《啓明史學》第四輯, 啓明史學會, p.16 註42 參照.
185) 尹錫曉, 앞의 책, P.91.
186) 朴鐘益, 1994, 〈西部慶南地域의 古代山城에 대한 연구〉, 慶尙史學, p.11.

가야가 신라에 대해 和를 청해오는 것이다.[187] 新羅와 伽耶와의 관계는 《三國史記》 기록에 이 시기(199)까지 무려 열 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일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금관가야가 스스로 신라에 和를 청했다는 것은 가야세력 자체의 약화라는 내부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가야의 약화를 당시 석씨계를 중심으로한 신라의 해상무역 집단 세력이 상대적으로 팽창해서 수로를 중심으로 하는 금관가야의 해상권을 잠식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188]가 있으나, 당시 양국의 국력이 비슷한 상태에서 군사적인 대규모의 직접충돌로 인한 패배와 같은 특별한 사건의 전환없이 단순히 사로세력권의 팽창에 굴복하는 형태로 스스로 和를 청하여 교역관계의 주도권을 넘겨주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한편 천관우는 이를 수로가 죽고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금관가야의 주도 층이 왜지로 건너가 금관가야가 전체가야 통합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89] 그러나 왜 지진출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밝히지 못함으로써 학설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천관우의 설과 연관시켜 4세기 이후에는 김해의 금관가야 세력이 내부사정으로 쇠퇴하고 고령의 대가야와 함안의 아라가야가 부상했다는 尹錫曉의 論旨[190]에 토대를 두고 김해 금관가야의 내부적인 쇠퇴원인과 그에 따른 아라가야의 부상을 지질학적으로 검토한 논고[191]가 나와 참고가 된다. 그 요지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가야제국내에서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신라에 대등할 정도로 세력으로 성장했던 원인은 고김해만을 바탕으로

---

187)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二 奈解尼師今
「六年 春二月 加耶國請和」
188) 백승충, 1989, 앞의 논문, P.32.
189) 千寬宇, 1977, 〈復元加耶史〉 《文學과 知性》, PP.297-307.
- , 1991, 《加耶史研究》, 一潮閣, PP.16-19.
190) 尹錫曉, 1990, 앞의 책, p.201-202.
191) 윤선·장두곤, 1994, 〈古金海灣〉 《부산의 지사(地史)와 경관》, 參照

한 제철 무역국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海가 1-3세기에도 현재와 같이 김해평야와 낙동강 삼각주가 그대로 있었다면 항구를 갖고 있지 못한 국가가 되므로 모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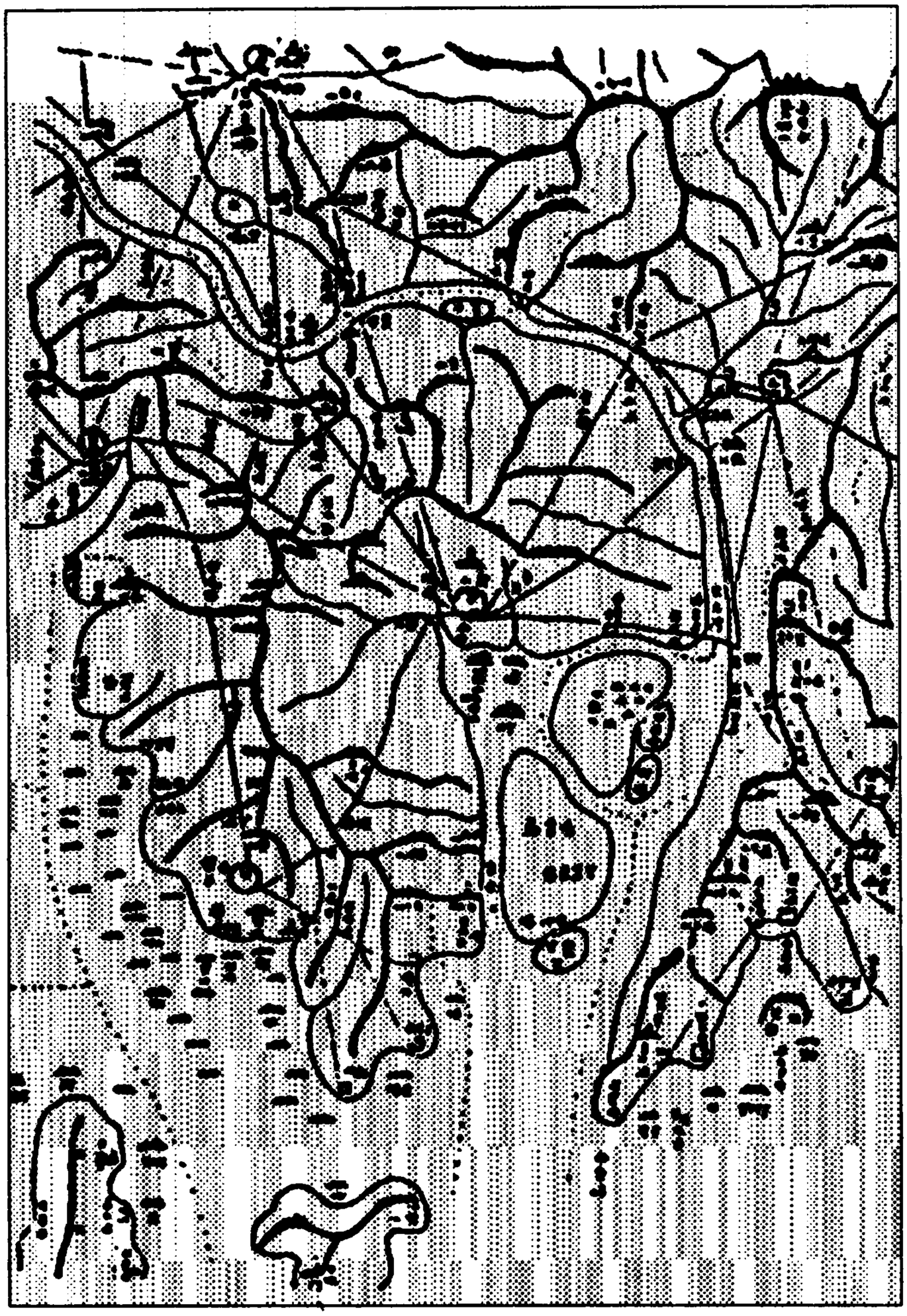

그림 2) 大東輿地圖(1861年頃)에 표현된 洛東江

된다. 따라서 과거에는 현재와는 달리 푸른 바닷물이 출렁이는 바다가 현재의 김해평야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3세기 이후를 기점으로 3세기말 4세기 초가 되면서 바닷물이 완전히 후퇴함에 따라 古金海灣이 폐항되면서 금관가야는 항구를 상실하게 되고 국력의 기본이 되었던 교역이 어렵게 됨으로써 쇠퇴하게 되었다. 바닷물이 후퇴하게 된 원인은 대체로 지반의 융기가 원인인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 확실히 결론지을 수는 없다. 이에 비해 천연의 良港인 끼고 그것을 보존하였던 있었던 마산만 일대의 아라가야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위에서 주장하는 고김해만의 폐항에 대해서는 貝塚類의 분포에 유의하여

그림 3) 1-3世紀頃의 古金海灣

이미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진 바 있기 때문에[192]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고김해만의 폐항에 대해서는 사료적으로도 일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三國史記》에 등장하는 地震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즉 《三國史記》新羅本紀를 검토해 보면 신라에서 脫解尼師今 8년에 최초로 지진이 발생한 이래 가야가 신라에 和를 청하는 시기까지 5번에 걸쳐 지진이 기록되고 있다.[193]또한 그 뒤

192) 郭鍾喆, 1990, 〈洛東江 河口域에 있어서 先史~古代의 漁撈活動〉《伽倻文化》第三號, 財團法人 伽倻文化研究院, pp.137-160.

193) 《三國史記》 新羅本紀 卷 第一 脫解尼師今 八年
「十二月 地震, 無雪」
《三國史記》 新羅本紀 卷 第一 婆娑尼師今 十四年
「冬十月 京都地震」
《三國史記》 新羅本紀 卷 第一 婆娑尼師今 二十一年

를 이어 4세기 말인 내물니사금 삼십삼년까지 4번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三國史記》 新羅本紀 전체에 걸쳐 지진에 관한 수많은 기록이 발견되고 있다. 금관가야와 인접한 신라에서 이렇게 비교적 잦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금관가야에서도 그만큼 지진이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진은 지반의 융기나 붕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연현상이므로 고김해만에 그 지진의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때 그로 인해 항구로서의 역할에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3세기 초 가야가 和를 청해온 것은 내부적인 환경변화 즉 地震으로 인한 古金海灣의 수위의 변동으로 항구로서의 역할이 위협받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금관가야는 이에 위협을 느끼고 교역 권을 둘러싼 가장 큰 경쟁상대였던 신라에 대해 유화적으로 취하게 된 외교상의 한 방편이라고 추정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과학적인 檢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는 가설의 단계에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료와의 연결은 추후의 연구성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질학적 접근은 기존의 문헌학과 고고학 중심의 논증방법에 더하여 짐으로써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가야가 신라에 和를 청한 사건은 분명 가야 내부의 혼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점은 그로부터 8년 후 벌어지는 "포상팔국의 난" 을 통해 보면 확인된다. 그에 관련된 사료는 다음과 같다.

A. 14년 가을 7월에 포상팔국이 모의하여 가라를 침략하니, 가라

「冬十月 京都地震」
《三國史記》 新羅本紀 卷 第一 祇摩尼師今 十七年
「冬十月 國東地震」
《三國史記》 新羅本紀 卷 第二 阿達羅尼師今 十七年
「秋七月 京師地震」

왕자가 구원을 청하였다. 왕은 태자 우로와 이벌찬 리음에게 명하여 육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케 하니 (그는) 8국 장군을 격살하고 포로가 되었던 6천인을 빼앗아 되돌려 주었다.[194]

B. 가야가 왕자를 볼모로 보내왔다.[195]

C. 물계자는 나해니사금 때의 사람이다 …… 이 때 포상팔국이 함께 모의하여 아라국을 치니, 아라국의 사신이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 왕(니사금)은 왕손 나음을 시켜 가까운 군과 육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토록 하니, 마침내 8국 군사를 격파하였다. 이 싸움에 물계자가 큰 공이 있었지만, 왕손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어떤 이가 물계자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공이 제일 컸는데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니 원망하는가" 라고 물으매 "무슨 원망이 있으랴" 하였다. 또 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에게 아뢰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니, 물계자는 "공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구하는 일은 지사의 할 일이 아니다. 다만 뜻을 奮勵하여 후일을 기다릴 뿐이다." 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3년 뒤에 골포·칠포·고사포 등 3국의 사람들이 와서 갈화성을 공격하였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 3국의 군사를 크게 격파하였다. (이 전쟁에서) 물계자는 수십여급을 참획하였으나 또한 그 공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196]

---

194) 《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 第二 奈解尼師今 十四年
「秋七月 浦上八國 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 與伊伐湌利音 將六部兵 王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還之」

195) 《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 第二 奈解尼師今 十七年
「春三月 加耶送王子質」

196) 《三國史記》卷 四十八 列傳 第八 勿稽子傳
「奈解尼師今時人也 ····時八浦上國同謀伐阿羅國 阿羅使來請救 尼師今使王孫榛音奈近郡及六部軍往救 遂敗八國兵 時役也 勿稽子有大功 以見憎於王孫

D. 제10대 나해왕 즉위 17년 임진에 보라국, 고자국 「현재(고려시대)의 고성」, 사물국「현재(고려시대)의 사주」 등 8국이 힘을 합쳐서 변경을 침략해 왔다. 왕은 태자 나음과 장군 일벌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주어 막게 하니, 8국은 모두 항복하였다.(중략) 10년 을미에 골포국 「현재(고려시대)의 합포다」 등 3국의 왕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갈화「아마 굴불인 듯 하다. 현재(고려시대)울주」를 공격하였다.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막으니, 3국이 모두 패하였다.197)

이 사료들은 같은 사건의 내용을 놓고 대체적으로는 비슷하나 부분적으로 서로 어긋나게 서술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일단 하나씩 그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첫번째로 《三國史記》의 新羅本紀(A,B의 사료)에서는 《三國史記》의 〈列傳〉(C의 사료)과 《三國遺事》의 記錄(D의 사료)에서 보이는 三國의 新羅攻擊 史實이 생략되어 있다. 두번째로 《三國史記》新羅本紀에서는 奈解尼師今 14년에 浦上八國이 加羅를 攻擊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가야가 신라에 왕자를 인질로 보낸 事件을 同王 17년으로 각각 나누어 記錄하고 있고, 《三國史記》〈列傳〉에서는 연대의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나해니사금의 어느 때에 포상팔국이 아라국을 공격하였고 그 삼년 후에 가야의 삼국이 신라의 갈화성을 공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三國遺事》는 奈解王 17年에 포상팔국이 공격

故不記其功 或謂勿稽子曰 子之功莫大而不見錄 怨乎 曰 何怨之有 或曰 蓋聞之於王 勿稽子曰 矜功求名 志士所不爲也 但當勵志以待後時而已.後三年 骨浦·柒浦·古史浦三國人 來功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 勿稽子斬獲數十餘級 及其論功 又無所得」

197) 《三國遺事》卷五 勿稽子傳

「第十奈解王卽位十七年壬辰 保羅國·古自國(今固城)·史勿國(今泗州)等八國兵力 來侵邊境 王命太子榛音將軍一伐等 率兵拒之 八國皆降 …… 十年乙未 骨浦國(今合浦也)等三國王 各率兵功竭火(疑屈弗也今蔚州) 王親率禦之 三國皆敗」

해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공격의 대상이 加羅가 아닌 新羅의 邊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나해니사금 20년에[198] 三國이 또 한번 신라의 영토인 갈화성을 공격해와 신라가 이를 격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차이점 즉 사건이 일어난 연대의 차이와 포상팔국의 공격의 대상을 달리하는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三國史記》의 기록을 기준으로 《三國遺事》의 내용을 보완하면 해결되어진다고 생각된다.

일단 사건이 일어난 연대설정문제에 있어 《三國史記》의 〈列傳〉과 《三國遺事》勿稽子傳이 모두 포상팔국의 공격 후 일어난 骨浦,柒浦,古史浦 등 伽耶三國의 신라에 대한 공격을 인정하고 있고 두 사건의 연차를 三年으로 보는 점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浦上八國의 加羅 攻擊 후 '3년' 후에 伽耶三國이 신라를 공격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두 문헌에 걸쳐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일단 浦上八國의 加羅 攻擊時點은 차치하고라도 두 사건 사이의 '3년'의 연차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浦上八國의 신라에 대한 공격시점을 나해니사금 14년으로 볼 경우 기록상으로 《三國史記》의 本紀 기록은 그 삼 년 후에 해당되는 17년 '加耶送王子質'이라는 앞 사건과의 연관기사가 등장하여 14년에 일어난 사건 자체와 그 연대를 신뢰할 수 있는 일정한 근거가 마련되나 《三國遺事》와 같이 17년을 浦上八國의 공격시점으로 설정하면 三年 후가 되는 奈解尼師今 20년에는 《三國史記》本紀 기록상으로 뿐 아니라 다른 문헌에서도 근거가 되는 사건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사건의 始末은 14-17년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三國史記》〈列傳〉과 《三國遺事》勿稽子傳 모두가 浦上八國의 가라공격 후 삼년뒤 가야삼국이 공격한 대상이 신라의 갈화성이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史實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타당한 듯 하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의 주체와 객체를 14년에는 浦上八國

198) 原典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년의 분명한 誤記이다.

과 加羅, 17년에는 가야삼국과 신라로 각각 다르게 표현한 《三國史記》의 기록과는 달리 《三國遺事》에서 나해니사금 17년과 20년의 두 차례에 걸친 '浦上八國의 亂'을 모두 加羅의 新羅邊境 侵略 즉, 加羅對 新羅로 주체와 객체를 일관되게 파악한 것은《三國遺事》 撰者가 編纂 當時 三年 後에 있었던 伽耶三國의 보복형식의 신라 공격 史實에 의도적으로 치중하여 편성하였거나 앞사건 즉 浦上八國의 加羅國의 공격에 관한 史料의 부재 등의 이유로 삼 년 후의 기록에 근거하여 그 삼년전의 浦上八國의 亂도 가야가 新羅를 공격한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하였던 탓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浦上八國이 공격한 대상인 '加羅'가 伽耶諸國 중 어느 국가를 지칭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사건에 있어 《三國史記》本紀에서 기록한 '加羅'를《三國史記》의 〈列傳〉에서는 '阿羅'라고 기록한 것에 대해 이는 本紀에서 기록한 加羅의 誤記라고 본 李丙燾의 主張[199]이래 先學들도 이를 수용해 加羅 즉 김해의 금관가야로 보고 있는데[200] 그렇게 보는 구체적이고 합당한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만일 위와 같은 기존 인식의 이유가 있다면 伽耶前期(1-3세기)에 일단 포상팔국이 당시 합세하여 공격해야할 정도로 강력한 가야제국내 국가는 금관가야밖에 없다고 보는 통설에 근거한 것이라고 추정되며, 그러한 점은 당시 김해의 유물 유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201] 일면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재고해야할 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인식은 伽耶는 일반적으로,加耶, 加羅, 伽倻, 駕洛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며 가야 전기에는 주로 김해

199) 李丙燾, 1980,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p.701.

200) 李永植, 1983, 〈加耶諸國의 國家形成問題〉,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32.
백승충, 1989,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4.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p.82.

201) 金廷鶴, 1977, 〈金海禮安里古墳群 發掘調査豫報〉《韓國考古學報》2.
沈奉謹, 1981, 《金海府院洞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申敬澈, 1991, 〈金海 大成洞古墳群의 발굴조사 성과〉《伽倻史研究》, 財團法人 伽倻文化研究院.

의 금관가야를 지칭하는 것이고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로 쓰였다고 하는 시각[202]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기존 상당히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이러한 고정적인 측면에서의 관념은 대강의 추세를 이야기 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실증성까지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학설에 유의하여 본 사건 기사의 내용과 이 사건보다 앞서 발생하였던 가야와 신라와의 전쟁 및 가야의 신라에의 강화요청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나오는 伽耶와 新羅와의 전쟁기사를 검토해 볼 때 금관가야와 신라가 직접 충돌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금관가야가 신라와 직접 전쟁을 벌이는 형태로 기록상에 등장하는 것은 悉直國과 音汁伐國의 爭疆사건을 수로가 중재한 신라 파사니사금 23년(102년) 이후부터라고 하고 그 이전에 전쟁을 수행하였던 가야는 경주 남변의 가야소국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203] 이는 내용상의 의미보다도 《三國史記》 記錄에 나타난 가야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이 학설의 요점은 《三國史記》에 나타난 '가야'의 주체를 사건의 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파악해야지 통설과 같이 '연맹체설'에 根據를 두고 '금관가야'에 초점을 맞추어 '加羅'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고증방식인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학설에 기초하여 유추한다면 초기 가야사회에 있어 정치형태가 금관가야를 유일한 강국으로 하여 그를 중심으로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 《三國史記》에 등장하는 가야도 모두 금관가야라고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사건의 정황에 따라서는 수로왕의 중재사건 이후에도 '加耶'라는 통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금관가야가 아닌 다른 가야를 표현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

202) 李基東, 1982, 〈城邑國家와 聯盟王國〉 《韓國史講座》 1(古代篇), pp.154-164 參照.

203) 李永植, 1983, 앞의 논문, p.26.

이렇듯 '情況'에 따라 《三國史記》本紀에 등장하는 '加耶'의 구체적인 정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살펴볼 때 《三國史記》新羅本紀 奈解尼師今 6年條에 나타난 신라에 대한 '강화 요청 사건'[204]의 주체가 되는 가야국은 이것이 A.D 199년 수로왕의 사망 후 얼마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금관가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신라와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왔던 가야가 갑자기 新羅에 강화를 요청했던 것은 가야사회, 특히 금관가야 자체내에 변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되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표의 변화로 인해 古金海灣이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이미 앞에서 내세운 바 있다.

그렇다면 금관가야의 이러한 변화추이에 대하여 咸安의 阿羅伽耶를 비롯한 주변의 가야소국들도 인식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가야내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가야제국내의 스스로의 움직임은 인정할 수 있는 史實이다. 그러나 그 재편의 움직임이 기존의 通說과 같이 8년 후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던 맹주격의 금관가야를 연합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시각이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금관가야가 속해 있는 김해지역은 낙동강의 중·상류 각지로 통하는 관문으로서 당시 가야제국들과 新羅, 倭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한 경제적 재분배체계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진한계를 비롯한 타국과의 전쟁시에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군사적 요로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당시로서 김해 지역은 함안의 아라가야를 비롯한 다른 가야제국들과 교역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관계에 놓여있었을 것도 짐작되지만 그보다는 대체적으로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변한세력체을 형성하는 정치·군사·경제·외교적인 공생관계로서의 성격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전까지는 국력이 금관가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국력의 수준이었다고 여겨지던 금관가야 최대의 경쟁자인 사로를 중심으로 하는 진한세력계[205]가 2세기 중반 이후로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는

---

204) 앞의 註 187)와 같음

205) 《三國史記》초기 신라와 가야의 전쟁기록을 통해 볼 때 신라가 우세하였음

206)시점에서 가야제국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금관가야를 공격하는 양태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을 한편으로 금관가야가 신라에 和를 청함으로써 그에 대한 가야 소국들의 반발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금관가야로서 신라에 대한 和의 요청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유화책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三國遺事》의 駕洛國記에 금관가야와 함께 알에서 동시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五伽耶와 金官伽耶의 관계에서는 강한 유대감을 통한 결속력을 암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성립기부터 금관가야와의 친연적 유대성이 있는 五伽耶 중 小加耶와 같은 곳(고성)으로 비정되는 古史浦國[207]과 같은 나라가 포상팔국내에 끼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포상팔국이 공격한 加羅를 금관국으로 비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듯하다.

더구나 《三國史記》新羅本紀14, 17年條, 《三國史記》 列傳, 《三國遺事》 등 여러 곳에 걸쳐 기재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三國史記》撰者가 誤記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三國史記》 전체에 걸쳐 '加耶'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유일하게 '加羅'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통상적인 가야의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새롭게 등장한 다른 가야와 관련된 사건 변화의 추이를 의식한 撰者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을 나타내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祇摩尼師今 4, 5年條와 같이 신라가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점을 추정할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도 가야고분에서 출토되는 철제무기와 철정이 같은 시기의 신라고분에서 출토되는 것보다 많은 양을 보이고 있는 것(金廷鶴, 1982, 〈古代國家의 發達〉《韓國考古學報》12, p.7)은 이러한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6) 《三國史記》新羅本紀 阿達羅尼師今 3년(156)과 5년(158)에 각각 狐立嶺·竹嶺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영토의 확장을 통한 세력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同尼師今 이십년(173년)에 왜국의 여왕 비미호가 사신을 보내 내빙하였다고 하는 것은 국력의 증대와 함께 대외관계의 확장도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7) 《三國遺事》駕洛國記나 五加耶條 參照.

결국 《三國史記》列傳의 내용대로 《三國史記》本紀에서의 加羅는 그대로 함안의 아라가야로 보아도 특별히 무리한 요소를 발견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三國史記》 新羅本紀 奈解尼師今 14년의 '加羅'는 통칭의 의미로써 쓰여졌고 《三國史記》〈列傳〉에서는 구체적인 國名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포상팔국이 아라가야를 공격한 이유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中國史書인 《三國志》에도 기록을 통해 나타나 있고 환경적인 요소에서도 본바와 같이 아라가야는 금관가야 못지않은 이른바 '國'으로의 발전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러면 중 당장 가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가야세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던 금관가야가 혼란의 기미를 보이자 마산만 이라는 양항을 끼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던 아라가야에게는 가야내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려는 일종의 자극제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움직임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昌原의 茶戶里[208], 釜山 久瑞洞[209], 密陽 內二洞[210]星州 星州邑[211]를 비롯한 大邱 八達洞등 여러 곳에서 1-3세기 분묘가 발견되는 것을 통해 다른 가야제국들도 제각기 나름대로의 독립된 소국형성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때 이들 伽耶諸小國들의 관념 속에 이미 경제적인 면에서 전통적인 '교역 선도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던 금관가야가 자신들의 동맹권내에 있음과 동시에 교역권을 사이에 둔 경쟁대상으로서 비슷한 발전상을 보이고 있던 아라가야에 의하여 도전받는 것은 용납되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금관가야가 약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면 가야제국간의 구심체가 사라진 상황이므로 다른 가야제국들도 나름대로 패권경쟁에 뛰어들 수

---

208) 李健茂 外, 1989,〈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Ⅰ)〉《考古學志》1.
　　-　　, 1991,〈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Ⅱ)〉《考古學志》3.
209) 申敬澈, 1982,〈釜山·慶南出土 瓦質系土器〉《韓國考古學報》12, pp.39-88.
210) 申敬澈, 1986,〈釜山 久瑞洞 出土의 瓦質土器〉《嶺南考古學》2, pp.115-122.
211) 韓炳三, 1984, 〈星州出土 一括瓦質土器〉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pp.169-182.

있는 여건이었을 것이므로 어느 한 伽耶의 급격한 부상은 당연히 다른 가야제국으로부터 견제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상정해 본다면 포상팔국이 공격한 대상은 가야국가들간 변동을 조장하는 아라가야였고 신라에 구원을 요청한 주체 또한 아라가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포상팔국이 아라가야를 공격하게 된 것은 아라가야가 금관가야세력이 약화의 기미를 보이자 그러한 기회를 틈타 새로운 가야내의 강국으로 부상하려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 사건은 가야제국 내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아라가야와 그를 저지하려는 '浦上'의 가야국가들 간에 교역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포상팔국의 가라에 대한 공격 '時點'과 가라의 '정체'는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사료 상에서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三國史記》本紀 나해니사금 17年條(B의 史料)의 '加耶送王子質'에서 인질을 보낸 가야의 주체가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야를 금관가야로 보아서 포상팔국의 가라공격 및 가야삼국의 신라공격과 연결시켜 금관가야가 사로세력권에 예속되어지고 '전기가야연맹'이 해체되어지는 근거로 보는 추세가 있는 듯하지만[212] 포상팔국이 공격한 가라의 정체가 아라가야로 결론이 유도되어진 이상 이 문제도 재고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야가 왕자를 인질로 보내야만 했을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로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自國을 공격하는 浦上八國을 격퇴시켜 준 데 대하여 아라가야국이 신라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 내지는 '隷屬'관계의 의미로서 왕자를 보냈을 가능성이고[213], 또 다른 하나는 阿羅伽耶를 도와준 데 대한 보복으로 신라를 공격한 骨浦·柒浦·古史浦 三國 중 주도국이 전쟁을 일으켰으나 신라에

---

212) 金泰植, 1993, 앞의 책, pp.80-85.
213) 이러한 견해는 학계의 전반적인 추세이다.

또한 패하였고, 그 댓가로 왕자를 보냈을 가능성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浦上八國의 亂' 때 도와준 데 대한 阿羅伽耶 감사의 표시 내지는 '예속관계'의 표시라면 그 당시를 기점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어야지 3년이나 지난 다음에 '답례'를 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인 것이다.

결국 합당한 해답은 후자, 즉 신라에 대해 보복공격을 감행하였으나 敗北한 가야삼국 중 이 보복전을 주도한 국가가 그 배상의 의미로써 왕자를 인질로서 보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보면 나해니사금 14년의 가야와 신라간 '전쟁사건'과 17년의 '왕자인질사건'을 묶어 '浦上八國의 亂'이라는 단일사건으로 취급해왔던 기존의 시각은 수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14년의 사건에서는 전쟁의 주체와 객체가 가야제국들 간에 설정되는 것이고,17년의 사건은 가야와 신라간에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동일적 성격은 지니되 두개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앞의 사료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요약·정리하면 "신라의 나해니사금 때 '浦上八國'이 동맹하여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加羅 즉 아라가야를 (견제의 의미로써) 공격하자 阿羅伽耶가 王子를 보내 新羅에 救援을 청하므로 신라가 포상팔국군을 무찔러 주었고, 그로부터 삼 년 후 (전에 신라에 패했던 팔국중) 骨浦·柒浦·古史浦 등의 三國이 (신라가 가라를 도와준 데 대한 보복적인 성격으로) 신라의 竭火城을 공격하므로 또한 신라가 이를 격파하였으며, 이때 패한 삼국가야 중 대표격의 가야가 패배의 대가로 신라에 왕자를 볼모로 보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발생하였을 두 가지 정도의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하나는 阿羅伽耶가 앞서 신라에 和를 청했던 금관가야와 더불어 新羅와 친연적일 정도는 아니나 어느 정도 교류관계를 맺게 되었을 가능성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王子人質事件' 이후에 한동안 가야와 신라간의 전쟁기사가 《三國史記》에 나타나지 않는 점과 더불어, 좀

후대의 일이지만 4세기대로 추정되는 낙동강 東岸土器가 김해[214]·함안[215] 등지에서 발견되는데 이것들이 신라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日本書紀》에 나타나는 안라와 신라의 통모사건[216] 등과 같은 가야와 신라의 관계는 이 당시의 사건에 간접적인 기원을 두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하나는 이 사건의 주체가 금관가야가 아닌 것이 밝혀졌으므로 금관가야의 쇠퇴가 이 사건과 직접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3世紀代 김해의 유적·유물현상이 조금도 쇠퇴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217] 금관가야는 그 이전부터 내부적인 요인으로 세력약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을 뿐이고, 또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타격은 받지 않았으나 가야제국에 대한 통솔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정도의 단계적인 쇠퇴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금관가야의 본격적인 쇠퇴는 '古金海灣의 衰退'라는 내부적인 사정이 점차 심화되어지는 시기일 뿐더러 낙랑·대방군 등 중국군현의 붕괴라는 외부적인 요인까지 가중되어 교역중개지로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는 4세기 이후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라가야의 경우도 일단 포상팔국의 난을 통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금관가야가 고김해만의 쇠퇴로 점차 주도적인 교역중개지로서의 역할이 줄어가는 입장이었으므로 타 가야제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연 지리적 환경을 갖춘 아라가야가 그 역할을 조금씩 확대해 나갔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광개토왕비문 속에서의 '任那'와 '安羅', 즉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의 등장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214) 安在皓·宋桂鉉, 1986, 〈古式陶質土器에 대한 약간의 考察〉《嶺南考古學》1, pp. 50-53.

215) 徐載仁, 1990, 〈伽耶·新羅 長頸壺에관한 硏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p. 30.

216) 《日本書紀》卷 제19, 欽明天皇 2年 7月條.

217) 앞의 註 201) 參照

Ⅳ. 5世紀 伽耶의 性格

-《宋書》倭國傳의 記事分析을 中心으로-

5세기 들어 가야의 대외관계는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다음의 사료에서 보듯 對新羅 정책의 反轉을 이루는 것이다.

A.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三 照知麻立干 三年(481) 三月條)

B.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三 照知麻立干 十八年(496) 春二月條

A.의 사료는 가야와 백제가 합세하여 고구려의 공격을 당하는 신라를 도와 합동작전을 펼치는 내용이며 B.사료는 伽耶와 新羅間 일반적인 우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으로 이 두 사료는 가야의 親新羅的인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廣開土王碑文〉에 나타난 두 나라와의 대결양상과 정반대의 국면전환을 이룬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배경 하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400년(庚子年)까지 비교적 균형을 이루어오던 가야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고구려가 경자년 이후 백제와 왜를 모두 패퇴시키고 세력이 비대해지자 그 여세를 몰아 고구려는 평양천도(427)[218]를 시발로 본격적인 남하정책으로의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신라는 이에 오히려 기존의 동맹국인 고구려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고 백제와 동맹관계를 이루게 되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고구려가 평양천도

---

218) 《三國史記》高句麗本紀 第六 長壽王 十五年
「移都平壤」

를 단행한 6년 후인 433년에 일단 新羅와 百濟가 공식적으로 화친[219]을 한 후 다음해에 확인절차로서 예물을 교환하는 것[220]은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어준다고 생각된다.

또한 新羅 訥知王 34년(450)에 高句麗의 邊將이 신라의 영토인 悉直의 原野에 들어와 사냥할 때 신라의 城主가 고구려 장수를 살해한 것[221]과 이보다 좀 뒤의 시기인 《日本書紀》 卷 第 十四 雄略天皇 八年(464)에 신라에 머물러있던 고구려의 군사를 신라가 죽인 것을 계기로 高句麗가 新羅에 쳐들어오자 신라가 任那의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것[222] 등은 이전의 加耶-百濟-倭 對 高句麗-新羅의 대결양상과는 크게 달리하는 것으로 신라가 고구려의 존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伽耶 및 百濟와 친밀해지려는 정책을 추구하려는 사건들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의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하여 그 동안 고구려의 압력에 시달려오던 가야나 백제로서는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삼국은 곧 밀착관계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더우기 소국의 형성단계부터 팽팽한 균형 하에서 질서를 유지해 오던 한반도의 국가들은 어느 한 쪽의 국력이 비대해지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存亡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갑작스런 팽창은 일시적 우호관계에 있던 신라는 물론 가야와 백제에게 커다란 부담으

---

219)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三 訥祗麻立干 十七年 七月條
「百濟遣使請和 從之」

220)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三 訥知麻立干 十八年條
「春二月 百濟王送良馬二匹 秋九月又送白鷹 冬十月 王以黃金·明珠·報聘百濟」

221)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三 訥祗麻立干 三十四年 七月條
「高句麗邊將獵於悉直之原 何瑟羅城主三直出兵 掩殺之 麗王聞之怒 使來告曰 孤與大王 修好至歡也 今出兵殺我邊將 是何義耶 乃興師侵我西邊 王卑辭謝之乃歸」

222) 《日本書紀》 卷 第 十四 雄略天皇 八年 二月條
「自天皇卽位 至于是歲 新羅國背誕 苞苴不入 於今八年 而大懼中國之心脩好於高麗(中略)乃使人於任那王曰高麗王征伐我國(中略)伏請救於日本府行軍元帥等. 由是任那王勸謄臣斑鳩 斑鳩 此云 伊柯屢俄·吉備臣小梨·難波吉士赤目子, 往救新羅(後略)」

로 작용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곧 전통적 경쟁국이었던 加耶-百濟 와 新羅가 상호간 손을 잡게 되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형태를 창출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위의 사료를 비롯하여 5세기에 등장하는 가야가 손잡고 있던 주변의 신라 및 다른 국가들과 어떠한 위상에서 외교를 펼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등한 위치에서의 '동맹관계'였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479년 加羅王 荷知가 중국 南齊에 사신을 보내 '輔國將軍本國王'이란 칭호를 얻는데서[223] 이러한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224] 이는 南齊의 관작관계

---

223) 南齊書 卷五十八 列傳 第三十九 東南夷傳 東夷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荷知款關海外 奉贊東遐可授 輔國將軍 本國王」

224) 여기에서 등장하는 荷知가 어느 나라의 王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정설이 없는 실정이다. 대개의 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本國王' 으로 미루어 본가야의 국왕일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만, 《駕洛國記》의 本加耶世系에는 479년 당시의 왕이 姪知王(451~492)으로 되어 있어 본가야설의 큰 약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荷知를 安羅나(鬼頭淸明, 1974, 〈加羅諸國の史的發展について〉《古代朝鮮と日本》, P.128)대가야의 왕으로 보려는 견해(千寬宇, 1976, 〈三韓의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P.145. 李基白·李基東共著, 1982, 《韓國史講座》, 一潮閣, PP.160-161재인용)가 있는데 이는 人名의 相異함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본가야가 쇠퇴한 뒤에 그에 대신하여 가야 여러 나라의 맹주로 등장한 것이 안라가야나 대가야라는 점에 추정의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두 가지 학설 중 후자 즉 함안의 안라가야나 고령의 대가야쪽이 합당한 듯하다. 왜냐하면 앞서 살폈듯이 고고학적인 면에서 볼 때 4세기 무렵까지 가야적인 색채를 내면서 발전의 모습을 보이던 본가야 세력권인 김해지역의 고분군들이 5세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작아지는 반면, 함안지역의 말산리고분군이나 고령지역에서 출토되는 지산동고분의 규모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은 비약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활발한 관계를 통해 '王'이란 칭호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본가야쪽보다는 안라가야나 대가야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굳이 위의 두 가야 중 荷知의 정체를 구체화하는 경우 당시의 고고학자료 등을 참고할 때 고령의 대가야왕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이므로 (李炯佑, 1995, 〈大伽耶의 멸망과정〉《加耶史研究》, pp.128-129.) 이에

로는 제 3품에 해당되는데, 표기대장군·진동대장군 등 제2품을 받은 고구려·백제·왜의 국왕 보다는 1급이 낮은 것이지만, 최초의 사신 파견으로 이러한 작호를 받게된 것은 남제가 대가야의 국제적 지위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225] 또한 《南齊書》東南夷傳 百濟國條에, 百濟王牟大가 표를 올려 제3품 내지 제4품에 해당하는 官階를 제수 받는 것에 비하면 , 독자적으로 남제와 교역하여 백제가 받은 관계와 같거나 한등급 높은 수준인 제3품을 제수받았다는 것[226]은 당시 주변국에 대한 대외적 위상이 상당한 독립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479년 가야의 남제에의 사신파견과 조공, 그리고 輔國將軍本國王의 책봉은 대가야가 적어도 한반도 내의 유력한 정치세력 가운데 하나로 공인받은 셈이며, 또 本國王 즉 가야왕이라는 칭호를 받음으로써 가야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고, 가야지역 내의 대표세력임을 과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227] 물론 이러한 작호는 중국이 조공국들에 대해 부여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爵號의 형태자체는 일정한 기정사실이나 국력의 위상에 부합되게 제작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高句麗의 長壽王은 遼東에 있었기 때문에 "都督遼海諸軍事"로 책봉받았지만, 東晉은 祇支王에게는 오직 "都督百濟諸軍事"만을 책봉한 것이 그러한 근거이다.[228]

결국 당시의 가야가 위와 같은 爵號를 받게 된 데에는 중국과 활발한 통교를 통해 친밀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쓰이는 王이란 칭호는 고대국가의 발전단계에서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당시 가야의 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25) 李文基, 1995, 〈大加耶의 對外關係〉《加耶史研究-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p.223.

226) 金貞淑, 1995, 〈大伽耶의 성립과 발전〉《加耶史研究-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p.111.

227) 위의 註.

228) 王健群(金英熙 譯), 1992, 〈"任那日本府"와 "倭의 五王"〉《伽倻文化》第五號, 財團法人 伽倻文化研究院, p.233.

상은 해외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역대 일본 학자들은 중국사서들에 실린 5세기 일본 관계 기사 가운데 왜 왕이 자칭하여 중국 황제로부터 받은 벼슬로서 〈왜, 신라, 임나, 가라, 진한(秦韓), 모한(慕韓)〉 의 〈사지절도독(使持節都督)〉 이라는 것이 있어 이로써 5세기에 야마도지방의 일본 〈천황〉 정권이 바다건너 한국의 남부를 지배하였다는 증거로 삼으려고 심혈을 경주해 왔다.[229] 즉 중국사서인 《宋書》 倭國傳의 記事들을 검토해 보면 왜가 413년 중국에 방물을 바친 이래 13회 중국과 왜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 아래에 밑줄 친 4회에 걸쳐 伽耶를 비롯한 한반도 국가들에 대해 영유권의 책봉을 자칭하여 요청하거나 받는 기사가 나온다.

1.413年(東晋 安帝 義熙 九年)

「是月 高句麗 倭國 及西南夷銅頭大師 竝獻方物」

2.421年(宋 武帝 永初二年)

「詔曰 倭讚萬里修貢 遠誠宣甄」

3.425年(宋 文帝 元嘉 二年)

「讚又遣馬曹達 奉表獻方物」

4.430年(宋文帝 元嘉七年)

「是月 倭國王遣使獻方物」

5.438년(宋 文帝 元嘉十五年)

本紀-「是歲 武都王 河南國 倭國 扶南國 林邑國 竝遣使獻方物」

倭人傳-「讚死 弟珍立遣使貢獻 自稱使持節都督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表求除正詔除安東將軍倭國王珍又求除正倭隨等寸三人平西征虜軍 寇軍輔國將軍號詔竝聽」

6.443年(宋 文帝 元嘉二十年)

「倭國王濟 遣使來奉獻 復以爲安東將軍倭國王」

---

229) 김석형, 1990, 《고대한일관계사》, 한마당, p.32.

7.451年(宋 文帝 元嘉二十八年)

「秋七月甲辰　加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如故竝院所上 二十三人軍號」

8.460年 (宋孝武帝 大明四年)

「倭國 遣使 獻方物」

9.462年(宋孝武帝 大明六年)

「濟死 世子興 遣使貢獻 三月 壬寅 詔曰……宜授爵號 可安東將軍倭國王」

10.477년(宋順帝 昇明元年)

「冬十一月己酉 倭國遣使獻方物」

11.478년(宋 順帝 昇明二年)

「興死 第武立 自稱使持節都督 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五月戊午詔除武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12.479년(南齊 高祖 建元元年)

「進新除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武號 爲鎭東將軍」

13.502년(梁 武帝 天監元年)

「夏四月戊辰進 武號征東將軍」

(倭의 中國에 對한 朝貢 事例)[230]

구체적으로 우선 5.번을 보면 왜왕은 438년 중국황제에 대하여 '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등 六國의 '諸軍事'에 대한 〈使持節都督〉을 自稱하는 내용이 나오고, 7.번을 보면 451년에는 중국황제로부터 왜왕은 '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등 六國의 都督으로 책봉을 받았음이 나오며, 11.번을 보면 478년에는 倭王이 '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 등 7국의 使持節都督을 자칭

230) 尹錫曉, 1990, 앞의 책, pp.172-173 參照 整理.

하였지만 中國皇帝는 '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의 六國 都督만을 책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12.번을 보면 479년에는 478년과 마찬가지로 왜는 백제를 제외한 六國의 都督으로 인정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 사료들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일부 일본학계의 말처럼 가야는 물론이거니와 한반도 남부의 많은 국가들이 왜의 수중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듯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작호를 부여하는 것은 古來로부터 朝貢國에 형식적으로 취해왔던 회유책의 일부이기도 하였지만[231] 한편으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 작호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실성을 근거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사료들을 검토해 보면 중국황제가 왜왕에게 내린 爵號들은 주변의 조공국들에게 주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국가의 위상이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했던 경우와는 달리 그다지 실질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기사들을 잘 검토하여 보면 왜왕이 중국황제로부터 부여받는 한반도 국가들에 대한 영유권을 의미하는 爵號는 왜왕이 먼저 스스로 自稱한 연후에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438년에 최초로 왜왕이 이러한 自稱을 하였지만 당시에는 인정되지 않고 13년이 지난 451년에야 비로소 책봉 받고 있으며, 478년에는 백제까지 합하여 7국의 영유권을 의미하는 작호를 중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六國에 대한 작호만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일단 이러한 爵號들이 왜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미없이 일종의 '과시용'으로서 요구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

231) 《三國志》 魏書東夷傳 韓條를 보면 "풍속은 衣幘을 입기를 좋아하며, 下戶들도 (낙랑이나 대방)郡에 가서 朝謁할 적에는 모두 衣幘을 빌려입으며 (대방군에서 준) 자신의 印綬를 차고 衣幘을 착용하는 사람이 천여명이나 된다."(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라고 하였다. 이는 중국이 조공국에 대해 印綬나 衣幘으로 대표되는 명목상의 官爵내지 爵號도도 함께 수여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후대에도 별다른 의미없이 회유를 목적으로 倭를 비롯한 다른 조공국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官爵 내지는 爵號가 단지 회유를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하였듯 《南齊書》 加羅國傳에서는 가야에 대해 "輔國將軍本國王"으로 제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년대에 同史書 倭國傳(위의 사료 12.)에서 보듯 倭에 대해서 加羅를 포함한 '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이라고 제수한 것을 보면 당시 중국에서 왜에게 부여하는 爵號들의 경우에 한해서는 상당한 허구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일면이라 여겨진다.
결국 《宋書》 倭國傳에 나타난 왜왕의 爵號는 일반적인 다른 중국의 조공국들의 그것과는 달리 그 명칭상에 있어 실질성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 당시에 이르러 伽耶諸國 중에서 대가야나 아라가야가 강국으로서 부상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考古學的으로 5세기 들어서 보이는 유적·유물의 양상이 김해의 금관가야 지역에서는 쇠퇴의 양상을 보이지만 고령 지산동 고분군[232]이나 함안의 도항리와 말산리고분군[233]등이 상당한 정도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것을 통해 추정되고 있다.

이와같은 史實들을 종합해 보면 5세기에 이르러 가야가 내부적으로 興亡盛衰의 변동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학계의 주장처럼 대외적으로 他國즉 倭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세력이 전대에 이어 계승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宋書》 倭國傳에 나타난 왜왕의 爵號는 일반적인 다른 중국의 조공국들의 그것과는 달리 그 명칭상에 있어 실질성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中國史書들에 반영된 倭王의 爵號는 어떠한 배경에서 성립될 수 있었는가가 의문인데 이는 《三國史記》의 기록을 주목해 볼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즉 《三國史記》 新羅本紀를 보면 405년이래 500년까지 무려 17회에 걸쳐 倭軍이 新羅를 침공하고 있는데[234]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

232) 金世基, 1983, 〈竪穴式墓制의 硏究-加耶地域을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14, 15, pp.69-70.
金鍾徹, 1991, 〈高靈 池山洞古墳과 大加耶〉 《伽倻文化》 第 四 號, 財團法人 伽倻文化硏究院 參照.

233) 朴東百·李盛周·金亨坤·金奭周, 1992, 《咸安阿羅伽耶의 古墳群》(Ⅰ)-道項里·末山里 精密調査 報告-》, 昌原大學博物館.

수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기원 전후의 시기부터 신라와 왜는 식량과 문물을 무력으로 획득하려는 왜의 신라에 대한 태도로 인해 상호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4세기에 이르러서는 한동안 양국은 왜가 일정한 외교경로를 통해 백제와 가야로 부터 그러한 수요를 공급받게 되면서 백제를 매개로 간접적인 외교관계를 맺거나 하는 식으로 비교적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235] 다시 말해 과거 4세기 이전에 왜의 신라에 대한 공격이 잦았던 것은 그 원인이 주로 倭가 선진문물이나 생활필수품의 수요를 韓半島에서, 그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접촉이 용이한 신라에 대해 침략행위에 의한 약탈의 방법을 통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4세기 중엽 왜가 백제 및 왜와 외교관계를 이루게 되면서[236] 그 이후 한 때 나마 신라에 대한 경제·문화적인 의존도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庚子年(400年)의 戰爭으로 高句麗가 百濟와 伽耶를 정벌하고 한반도 내에서 경제 및 문화적인 교역활동을 벌이고 있던 왜마저 축출하기에 이르자 이 시기에 이르러 왜의 입장에서는 4세기 중엽 이전과 같이 신라에 대한 침략행위를 통해 그들의 수요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시기(5세기)에 이르러 왜의 신라에 대한 공격은 과거와 같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약탈하려는 목적보다는 항구적으로 그들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신라를 공략하고, 그곳을 교두보로 하여 한반도 남부의 영토자체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中國史書에 보이는 왜가 중국황제에게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에 대해 영유권을 自稱하거나 要求하는 작호들을 이러한 위의 史實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면 그 작호라는 것은 왜가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을

---

234) 왕력으로는 《三國史記》實聖尼師今 4년 부터 炤知麻立干 22년 까지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235) 구체적으로 《三國史記》新羅本紀에 신라와 왜간 전쟁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365년이래 392년까지를 그러한 양국의 평화적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236) 《日本書紀》神功紀 46年條 參照.

지배한 뒤의 결과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침략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질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던 왜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대하여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간접적 승인을 받고자하는 의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왜의 의도를 몰랐을 리 없었겠지만 한참 후에나마 왜가 요구한 위상에 준하게 작호를 부여한 것은 그 작호 자체가 이미 허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위상의 합리성의 여부를 구실로 授與를 거부하여 朝貢國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조공을 통해 왜로부터 정치·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성 없이 단순히 '과시'를 위해서나 '침략야욕'의 의도로서 자칭하거나 요구하는 왜의 입장을 굳이 일방적으로 묵살하여 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경우, 즉 478년 작호제수시 왜보다 월등한 국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통적으로 왜에 비해 중국에 대한 비중이 더 컸던 백제를 왜의 작호요구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위상에 관계없이 왜의 요구대로 과장된 爵號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위의 사실을 근거로 할 때 과거 일부 일본의 御用學者들이 이 기사를 인용해 가야를 왜의 식민지적 국가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Ⅴ.4-5世紀 伽耶 對外關係 性格의 再定立

4-5世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가야가 행한 최초의 대외관계는 사료상으로 볼 때 《日本書紀》神功紀 46年條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낙동강 주변의 卓淳이 364년에는 百濟와 접촉을 갖고 당해년도(366)에는 백제와 倭의 통교를 맺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탁순가야가 4세기에 이르러 이렇듯 대외관계를 수행하게 되기 이전에 가야제국은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3세기 초반까지 가야는 굳이 그 정치형태가 '聯盟體'라고 볼리을 공동의 행적을 취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나[237] 《三國遺事》의 駕洛國記나 五伽耶條 및 《三國史記》의 初期記錄에 반영된 金官伽耶의 우월한 位相과 伽耶諸國을 선도할 만한 교역중심지로서 금관가야의 자연·지리적조건의 다른 가야제국에 대한 상대적인 우수성을 고려해 볼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은 추론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볼 때 기존에 金官伽耶가 伽耶諸國들 내에서 强國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는 金海鐵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유명한 철산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충적평야를 갖춘 바탕위에 알맞은 기후조건이 더하여진 풍부한 농산물의 산지, 그리고 대륙붕이 발달하여 수심이 얕으면서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여 수많은 島嶼와 항만이 발달함으로써 유리한 수산물의 산지라는 천혜의 자연지리적 환경을 갖추었고[238], 이러한 이러한 환경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바탕으로 지리적으로도 古金海灣이 낙동강 관문의 입구에 위치하여 중국군현을 비롯한 내륙과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문물교역의 중심지로서의 국제교역관계 중개지[239]로서의 역할을 고루 갖추

---

237) 李永植, 1993, 〈加羅連盟說の再檢討-2. 加耶連盟說の批判-〉《加羅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參照.

238) 尹錫曉, 앞의 책, pp. 86-88.

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역관계의 역할이 확대되어 국제정치관계의 조정자역할도 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다른 가야제국들에 비해 금관가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던 것 만큼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자연·지리적인 유리한 조건은 비단 금관가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금관가야와 인접한 慶南海岸 一帶의 국가들도 西海, 南海, 日本列島를 연결하는 海路上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교역물자의 운송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김해의 金官伽耶와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연구[240] 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고성·창원·마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중국 및 일본제 유물들[241]은 경남해안일대 국가들의 이러한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관가야가 A.D 199年 金官伽耶 수로왕의 사망이후 교역권 行事의 바탕이 되었던 古金海灣의 폐항으로 국력이 쇠퇴하는 기미를 보이며 그동안 대외적인 교역권을 둘러싼 최대 경쟁국이었던 사로세력권에 和를 청하게 되자 내부적으로 패권을 둘러싼 갈등을 일으키는 한편 金官伽耶와의 결속력의 틀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三國志》 韓傳에 구야국과 함께 나타나는 안야국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형성기 무렵부터 金官伽耶에 못지않은 우수한 자연·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가야제국 내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占有하였을 것으로 생각되

---

239) 이러한 금관가야의 국제교역관계 담당자로서의 역할은 문헌학적으로는 《三國志》 倭人傳의 航海記錄에 나타난 '狗邪國'이나 《日本書紀》 垂仁紀 2年條에 나타난 '任那國'이 모두 금관가야를 지칭하고 있음을 볼 때 알 수 있고, 고고학적으로는 김해 회현동·칠산동·부원동·양동리 등지에서 발견되는 貨泉(五銖錢), 유리제 裝身具, 後漢鏡 등과 같은 漢系統의 유적유물들과 김해 대성동 등지에서 발견되는 파형동기와 같은 왜계통 유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40) 李賢惠, 1988, 앞의 논문, P.164

241) 李憲載, 1990, 〈伽耶諸國의 國家形成에 關한 硏究-金官伽耶를 中心으로 한 移住民의 役割 및 經濟的 背景과 關聯하여〉, 漢陽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98.

는 아라가야가 이러한 금관가야의 약화를 틈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여 骨浦·柒浦·古史浦등을 비롯한 여덟개국이 阿羅伽耶國을 공격한 '浦上八國의 亂'은 이러한 伽耶諸國 內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최소한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국가 중심의 결속력은 해체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나 金海에서 출토되는 유적·유물의 상황으로 보아 이 시기 단계에서는 아직 금관가야가 본격적인 쇠퇴의 증거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김해의 금관가야가 본격적으로 쇠퇴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3세기 초부터 진행되어 오던 고김해만의 폐항이라는 내부적인 요인이 심화되어지는 시기일 뿐더러 그동안 한반도내에서 선진 문물의 보급로 역할을 담당해 오던 낙랑, 대방군이 각각 멸망하게 되어 북쪽으로부터의 교역루트마저 단절되기에 이르는 외부적인 악화요인까지 가세되는 4세기 초엽부터라고 볼 수 있다.[242]

따라서 이 시기(4세기)에서 가야제국은 내부적으로 이르러서는 금관가야를 축으로 하던 정치적 성격은 변질되고, 경남해안 일대의 국가들 중 유력국가를 축으로 여러 개의 세력권[243]이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이해관계에 따라 국력이 좀 더 優位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맹 내지 연맹관계를 통해 세력권을 유지하는 경우는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244] 보아 일반 소국들도 내부적으로

---

242) 이로인해 금관가야가 크게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국제교역관계를 담당하던 가야제국내에서 주축국으로서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지, 鐵産地나 풍부한 農水産物의 産地라는 自然的 環境은 變化를 가져온 것이 아니므로 532년 滅亡할 때까지는 一般 가야국가정도의 국력은 유지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243) 이렇게 가야제국의 상태를 세력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4세기 이후에는 어느 특정국가를 중심으로 정치체제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탁순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등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44) 가야국가들의 동맹 내지는 연맹이 일시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좀 전대의 일이지만 '포상팔국의 난'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즉

는 각각 개별적으로 자주권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神功紀 46年條에 보이는 卓淳의 百濟와 倭에 대한 關係는 가야제국 중에서 창원에 위치한 卓淳이 대표성을 意味하는 것이 아닌 당시 분립된 경남해안일대 소국들 중 地理的인 잇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력한 입장에 있었던 몇몇 가야국 중 하나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神功紀 46年條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 시기에 이르러서 백제와 왜의 매개적 역할을 담당한 卓淳伽耶는 성장과정의 지속적인 분화를 통하여 대외적으로도 자주성을 확립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사료상에서 百濟나 倭가 卓淳을 외교관계의 중개국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전의 창원의 茶戶里 1號墳에서 출토된 漢式遺物이 다른 분묘에서는 발견예가 거의 없는 국지적인 정치체 내의 최고위계분묘임으로 인정됨을 볼 때[245]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자주적 政治形態를 지닌 國家로 발전된 상태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탁순이 백제와 왜를 연결시키는 대외관계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당시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가야제국내의 결속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日本書紀》 神功紀 46年條에 나타난 창원의 卓淳國과 마찬가지로 함안의 阿羅伽耶를 비롯한 다른 경남해안국가들에서도 강력한 정치체를 지녔음을 나타내는 遺蹟·遺物이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야세력들 상호간에는 이전의 '포상팔국의 난'과 같은 직접적인 싸움은 아닐지라도 금관가야를 대신하여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나해니사금 14년에 阿羅를 공격할 때에는 8개국이 연합 '동맹'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비해 3년 후인 나해니사금 17년에는 3개국으로 줄어드는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볼 때 더욱 가야국들간 분립되는 양상을 보이는 이 당시에서도 강력한 일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맹체 하에서의 군사적 '동맹'과 같은 형태는 상정할 수 없을 것이다.

245) 李盛周, 1993, 〈1~3세기 가야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 財團法人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126.

있는 것이다.

이같이 가야제국 상호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卓淳은 364年 倭와의 外交仲裁를 원하는 百濟의 要求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外交關係에 있어서의 仲裁라고 하는 것은 곧 이들 국가와 交易關係의 확대와도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당시 교역관계의 확대는 국력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금관가야가 倭와 垂仁紀 2年에 國交를 맺은[246] 이래 다른 가야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卓淳도 왜와 이미 오랜 교역을 통한 선린관계를 확립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잇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백제와 왜를 연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고대국가로의 이행에 있어 필수적인 鐵과 같은 産物이 풍부한 伽耶로서는 당시 고분시대로서 철제무기를 비롯한 기타 교역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는데, 고대 일본지방에서 발견되는 가야계 유물을 놓고 추정해 볼 때 그 공급로의 상당한 부분을 가야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倭에 대하여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므로 百濟와 倭간 관계성립의 與否에 있어 지리적인 잇점 뿐만 아니라 가야의 실질적인 왜에 대한 위상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日本書記》 神功紀 46년조의 사료에는 비록 백제와 왜의 관계구도 속에서 가야의 존재를 기술하고 있지만 그것은 찬자의 관점에 따른 기술방법일 뿐이지 대외관계의 실질적 위상을 전해주는 것은 아닌것이다.

따라서 國力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이당시에 있어서 오히려 국제관계의 主導權은 百濟와 倭보다도 이 양국관계의 고리역할을 할 수 있었던 伽耶에 있었다고 把握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倭와 百濟間에 國交가 이루어진 이후 兩國의 가야에 대한 태도에는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즉 《日本書紀》 神功紀 49年條를 보면 갑작스럽게 왜군이 백제와 함께 卓淳國에 모여 신라 및 가야7국을 평정하는 것

246) 《日本書紀》 垂仁紀 2年條 參照.

이다. 그런데 이 평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본 것처럼 왜나 백제의 군사적 지배가 아니라 백제와 왜가 연합하여 가야에게 '외교적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倭가 百濟와 共同으로 가야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백제와 왜간 양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데 백제와 왜 양국의 가야에 대한 '압력'이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366년 당시 백제가 왜와의 통교를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적 원조자'의 필요성 때문이었고, 倭의 입장에서 백제와 관계를 원했던 것은 낙랑·대방 등 그동안 先進文物의 공급지가 상실된 상황이었으므로 그것을 대체할 주체가 필요한 한편 과거부터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신라를 牽制하면서 그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하여 신라와의 관계개선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지닌 백제와 왜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地理的인 特性 때문에 동맹관계를 이루고 있던 탁순가야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간에 직접적인 통교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양국의 탁순가야를 비롯한 가야제국에 대한 관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것이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同盟國의 입장에 있던 가야제국에 대해서도 일정한 견제행위를 불사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가야에 대한 '이익'을 위한 견제행위라는 것은 당시 가야의 백제와 왜, 신라 양측에 대한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었다는 데에서 발생한다.

우선 가야의 신라에 대한 관계를 볼 때 《三國史記》에는 '浦上八國의 亂'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전쟁기사가 나타나지 않는것으로 보아 적대관계 보다는 오히려 어느정도 교류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상호간 문화의 교류 양상이 유물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247]을 통해 알 수 있

247) 崔秉鉉, 1992, 〈新羅 伽耶의 基制〉 《韓國古代史論叢》 3, 財團法人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參照.

다.

또한 가야의 백제와 왜에 대한 관계는 《日本書紀》神功紀 46年條를 볼 때 당시(4세기)에 이르러 百濟와 倭가 366년 가야에 대하여 통교를 요구해 와서 그에 응한 바는 있지만 가야의 입장에서 두 나라와의 통교를 필요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가야는 국력에 있어서 백제-왜에 비해 강대국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지리적으로 주변국가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국가들의 상호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伽耶는 표면상 동맹국인 백제와 왜에 대한 관계이건, 신라에 대한 관계이건 특별히 어느쪽으로 기울어질만한 요소는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백제와 왜 양국이 그러한 가야를 고구려 및 신라와의 연대를 막고 그들의 동맹권 내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무력시위를 통해 일정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였을 可能性은 충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伽耶로서도 이러한 兩國의 立場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었고, 그 壓力에 대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므로 당시 현실적으로 勢가 불리했던 新羅보다는 百濟와 倭의 동맹권으로 편입되는 쪽을 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形成된 가야를 비롯한 三國의 同盟은 〈廣開土王碑文〉의 庚子年條(400)의 內容속에서도 반영되어지고 있다. 이 비문을 통해 볼 때 비록 神功紀 49년(369)이후 줄곧 삼국이 표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지만[248]대체적으로 이 당시(400)까지 삼국간 선린관계는 지속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에는 百濟의 사주를 받은 倭軍이 高句麗軍에 쫓기던 도중 任那加

248) 神功紀 52年條를 보면 왜의 장수 沙至比跪가 가야국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정권 차원에서 왜의 정책이 반영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 왜 장수의 돌발적인 행위였으므로 가야와 왜가 적대적인 관계로 반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국가로의 이행이 불완전했던 倭 자체내의 통치권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羅의 從拔城에 이르렀을 때 咸安의 阿羅伽耶國 戊兵이 歸服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任那加羅는 金海의 金官伽耶國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문의 내용은 '浦上八國의 亂' 이후 가야제국 내에서 영향력이 증대된 여러세력 중 아라가야가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인 유력국으로서 명목상의 맹주국으로 남아있던 金官伽耶國을 대신하여 백제 및 왜와 동맹하여 가야국을 군사적으로 통솔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으므로 金官伽耶의 성에 있던 伽耶諸國軍이 阿羅伽耶를 대표로하여 항복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249]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이 전쟁에 참가한 任那加羅 즉 금관가야와 아라가야가 행한 대외관계에 관한 성격의 문제이다. 당시의 전쟁은 주도국인 高句麗對 百濟의 대결양상이 고구려 측에서는 신라가 백제측에서는 가야와 왜가 4세기 들어 형성된 이해관계에 따라 동조하여 일어난 국제전의 형태의 양상을 띤 것 은 사실로 여길 수 있으나 伽耶가 기존의 학설처럼 왜나 백제의 '부용국' 의 위치에서 참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 神功紀 記事를 분석할 때 보았듯이 369년(神功紀 49年)의 가야 7국 평정은 伽耶가 倭나 百濟에 의해 무력침공으로 점령당한 것이 아닌 일종의 외교적 압력일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것을 백제나 왜의 가야에 대한 무력점령 형태로 파악하고 그를 전제로 〈廣開土王碑文〉에 나타난 가야의 존재를 백제나 왜의 '부용국'으로 보는 것은 성립할 수

---

249) '任那'라는 의미는 Ⅲ.장 1절에서 밝혔듯이 본래 왜와의 교역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때, 교역관계의 주도권을 가진 나라는 곧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므로 후대에는 교역권을 바탕으로 가야제국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맹주국'의 의미로 파생되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당시까지는 명목상 금관가야가 맹주국인 '任那'의 명칭으로 불리워졌지만 후대에 이르러서는 강력한 교역권을 바탕으로 實勢로 새롭게 등장한 아라가야도 '任那'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欽明紀 2年 4月條에서 日本府의 앞에 쓰인 2번은 함안의 안라국을 대신해서 쓰인 것(金泰植, 1994, 앞의 논문, p.70)은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비문상에 나타난 아라가야가 가야제국 내에서 주도권을 가진 국가라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없기 때문이다.

碑文 내용 자체에서도 이러한 점은 입증되어진다. 즉, 高句麗軍이 왜군을 추격하여 任那加羅城에 도착하였을 때 만일 伽耶軍이 왜의 부용국 상태였다면 군사적으로도 왜군의 지휘명령을 받는 從屬體系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을 것이므로 마땅히 성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호응하여야 마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성안에는 왜군이 없었고 伽耶諸國軍이 독립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하였다. 비록 이 내용 뒤에 두번에 걸쳐 阿羅伽耶가 왜와 군사작전을 펼치긴 하지만 가야제국군의 본부로 여겨지는 임나가라성에서 왜군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뒤에 나타나는 양국의 합동작전은 전투가 일어나는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형태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는 대외적으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나타나는 '同盟'의 관계이지 결코 '군사적 종속'의 관계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왜와는 동등한 위상으로 전쟁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야가 백제의 부용국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위와 같은 근거하에서 성립할 수 있다. 특히 396년 고구려에 의하여 국가의 存立이 위태로울 만큼 타격을 받은 백제가 이 당시 군사적으로 가야를 종속시키고 지휘하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결국 이 전쟁에서 가야는 적어도 자주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366년 가야가 백제 및 왜와 외교관계를 연 이래 400년(庚子年)까지 대체적으로 두 나라의 동맹권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종속'의 형태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고고학적으로도 5세기 이후에 이르러서 금관가야의 영역인 金海의 大成里와 良洞里를 비롯한[250] 여러 지역에서 고분의 규모가 급격히 衰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관가야를 대신해 가야제국내의 강국으로 부상한 阿羅伽耶의 함안 말산리고분군을 비롯

250) 申敬澈, 1991, 〈金海 大成洞古墳群의 발굴조사성과〉《伽倻文化》第四號, 財團法人 伽倻文化研究院 參照
문화재연구소, 1989, 《김해양동리발굴보고서》

한 여러개의 고분군과[251]과 大伽耶의 高靈 池山洞古墳群[252]의 존재를 통해 볼 때 伽耶의 位相이 상당한 독립적인 정치체로서 계승되어지고 있음을 통하여 상정할 수가 있다.

또한 5세기의 상황을 보면 南齊書 加羅國傳에 보면 伽耶國王 荷知가 479년에 南齊에 사신을 보내어 南齊의 황제로부터 「輔國將軍本國王」이란 칭호를 부여받았다고 하였다.[253] 이는 이는 비록 중국이 백제에 대하여 준「使持節 都督 百濟諸將軍 鎭東大將軍 百濟王」이란 稱號나[254] 倭가 宋帝로부터 5번에 걸쳐 임의로 부여받은 칭호들처럼 당시 중국이 주변의 조공국들에 대하여 상투적으로 제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爵號의 내용은 당시 국가의 위상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을 것이므로 이때의 가야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즉 작호의 내용이 국가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 《宋書》倭國傳에 나타난 왜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가 중국으로부터 爵號를 받게 되는 背景은 중국이 먼저 授與하는 것이 아니라 倭가 절실히 要求한 뒤에서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倭는 紀元 前後 시기부터 중국에 조공하여 오던 주요 부속국가의 하나였던 만큼 꾸준히 조공을 해오고 있던 왜와 굳이 형식적인 작호문제로 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필요는 없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왜의 입장에서는 《三國史記》新羅本紀의 記錄에서 보듯 당시 신라에 대한 공격이 유래없이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에 대한 정복야욕이 충만해 있던 시기에 작호를 받는다는 것은 침략의 대의명분을 중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으

---

251) 尹錫曉, 1994, 〈阿羅伽耶에 關한 硏究〉《伽倻文化》第七號, 財團法人 伽倻文化硏究院 pp.102-103.

252) 金鍾徹, 1991, 〈高靈 池山洞古墳群과 大加耶〉《伽倻文化》第四號 參照.

253) 南齊書 卷五十八 列傳 第三十九 東南夷傳 東夷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荷知 款關海外 奉贄東遐可授 輔國將軍 本國王」

254) 《宋書》卷九十七 列傳第五十七夷蠻 東夷 百濟國傳
「義熙十二年, 以百濟王餘映爲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鎭東將軍·百濟王」

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爵號를 받기 위해 중국에 대해 온갖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였으리라 여겨진다.

결국 《宋書》에서 나타난 宋帝가 倭王에게 수여한 爵號는 倭가 伽耶를 비롯한 韓半島 南部의 국가들을 지배했었다는 근거로서 작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의 학설과는 달리 4-5세기 전반에 걸쳐 가야는 어느 한 시기도 백제와 왜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예속된 史實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주로 문헌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4-5세기 가야를 중심으로 한 대외관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논증의 방식이 다소 가설을 바탕으로 사료상의 의미를 재구성하는데 치우친 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논리상의 비약이 많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논지의 전개에 박차를 가한 것은 지금까지 가야에 관한 특히 대외관계 성격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조금이나마 보완해 보려는 노력이었으므로,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은 후일에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을 기약하고자 한다.

이상까지의 주제가 서로 다른 Ⅴ장에 걸친 논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1장에서는 대외관계에 관한 연구사를 정리한 뒤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 향후 기존의 연구방향을 새롭게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된 연구들에서는 가야의 대외관계가 왜에 대한 종속관계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연구, 백제에 대한 종속관계로 이루어졌다는 연구, 그리고 이들 두 가지 연구를 종합하여 좀 더 가야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어진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들은 모두 가야의 대외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문헌상의 기술내용을 크게 극복하지 못하고 타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시도하였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극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대체로 지금까지 진행된 4-5세기 가야의 대외관계에 관한 연구는 가야가 백제나 왜에 부속된 정도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내적으로 가야가 韓半島의 다른 삼국처럼 집중된 통일국가로서 고대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항상 분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적으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여 국력이 약하므로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자주적이지 못하고 주변국에 부용 되어 외교를 펼쳤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도식적인 논리인 것이다. 한반도 내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삼국이 분립하고 있었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통일 국가인 수와 당의 대군을 물리친 바 있으며 마찬가지로 서양의 그리이스에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롯한 몇 개의 국가로 분립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대군을 물리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대외관계에서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인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및 해당국가의 상황변화에 따른 응집력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지 결코 국가 발전 단계에 따른 단순한 國力의 크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그 동안 4세기에 있어 가야의 대외관계를 타율적인 관계로 보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인 神功紀의 세 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神功紀 49年條의 기사에 나온 '신라 및 가야7국에 대한 군사적인 정벌과 그에 따른 지배'의 주체가 백제이든 왜이든지 간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연구와는 상당한 차별성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가야에 대한 정벌이라고 언급한 것은 실제로는 백제와 왜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군사적으로 연합하여 무력시위를 통하여 對신라, 가야와 일종의 유리한 '條約'을 맺은 것을 《日本書紀》가 과장하여 기술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즉, 《日本書紀》 神功紀 49年(366)條에 나타난 伽耶에 關해서는 기존에는 주로 日帝時代 어용학자들이 과거 식민사학에 계보를 두고 왜 정권의 식민지적 기관인 '任那日本府'가 설치된 국가라는 선입견을 내세워 온 바 있고, 이러한 경향에 거부감을 느껴 온 국내학계에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日本書紀》 전반에 걸친 불신감과 함께 이 사료에 대해서도 사료비판조차 꺼려할 정도로 연구가 기피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에서 상호간 문화교류의 흔적을 나타내는 유적·유물들이 발견되어지는 바탕 위에 가야사에 관한 사료의 빈곤성을 느끼게 되자 국내학자들도 이 사료에 관한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사료해석 방법이 주로 일제 어용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어져

온 임나일본부설의 허구성을 증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므로 역사의 가변적인 유동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사건의 변화는 무시된 채 객관적 법칙에만 의존되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日帝 御用學者들이 伽耶征伐 및 經營의 主體를 倭라고 主張한 데 대하여 국내 학자들은 주체를 백제로 바꾸어보는데 주력해 오는 한편 동시에 이루어진 '신라정벌'과 그 '지배'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왜의 가야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지만 백제의 가야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 증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굳이 백제에 의한 가야의 '정벌'과 '지배'형태로 파악해야 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학자들 조차 같은 기사에서 신라에 대한 '정벌'과 '지배'는 왜에 의한 것이든 백제에 의한 것이든 부정하면서 가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은 가야의 내부적 발전단계와 그에 따른 대외관계적 위상에 대하여 '가야는 신라에 의하여 합병될 정도로 국력이 왜소했던 국가'라는 결과론적인 선입견 내지는 객관적인 법칙 하에서 인식하여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좀 더 가야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파악한 결과 본고는 이 사료에 반영된 왜의 가야 '征伐'기사를 백제와 왜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가야에 대한 '외교적 압력'정도에 그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 1절에서는 〈廣開土王碑文〉의 己亥, 庚子年條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다. 우선 기존에 〈廣開土王碑文〉에 대한 연구는 '辛卯年條'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역사상황의 객관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衡平性을 상실한 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내용상의 요점은 庚子年條의 '任那加羅從拔城城卽歸服安羅人戍兵'이라는 구절에 두었다.

기존 대개의 일본학자들은 이 구절의 뚜렷한 의미를 밝히지도 않으면서 '安羅人戍兵'이 왜국의 용병으로서 함안의 아라가야 수비병이라는 설만을

내세웠고, 국내학자들은 고유명사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왜의 용병이 아닌 백제의 용병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입장과 중국학자 王健群의 연구를 지지하여 고유명사가 아닌 풀어서 해석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필자는 이러한 두가지 학설 중 전자에 동의하여 '安羅人戍兵'을 고유명사로서 함안의 아라가야수비병으로 보는 입장이면서 그 위상은 任那加羅城에서 백제,왜와 더불어 고구려에 대항하여 행한 군사작전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당시 가야는 백제나 왜 어느 쪽에도 예속되지 않은 자주적인 대외관계적 위치에 있었음을 究明하였다.

또한 이 구절에서 기존의 諸說이 모두 구두점을 任那加羅從拔城城卽歸服. 과 같이 安羅人戍兵 앞에서 끊음으로서 해석이 어색하여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安羅人戍兵을 歸服의 主語로 보아 이 구절이 도치되었음을 역사적 상황을 토대로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3장의 1절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3장의 2절에서는〈廣開土王碑文〉에 任那加羅 즉, 金官伽耶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阿羅伽耶가 4世紀에 이르러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을 서술하였다. 구체적으로 阿羅伽耶는《三國志》韓傳 馬韓條에서 금관가야의 前身인 구야국과 함께 안야국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는데 두 국가와 관련된 명칭이 모두 목지국의 신지가 우월감을 느낄 정도였다는 점에서 성립기부터 안야국의 발전정도가 금관가야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소국들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단계에 있었음을 추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阿羅國의 위상은 그것이 위치한 함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농수산물 및 제철을 비롯한 광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음과 동시에 천혜의 양항인 마산만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교역국으로서도 발전하여 갔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렇듯 아라가야가 발전을 거듭하던 시기에 그 동안 가야제국 중 국제무역항인 古金海灣을 중심으로 가야제국들의 경제적 발전을 선도하는 입장에 있었던 금관가야는 古金海灣의 기능이 쇠퇴하여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줄어들어 국력이 쇠퇴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자 대외적으로 가장 큰 경쟁대상이었던 사로세력권에 전략외교상 화해를 청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가야제국 내에서의 입지도 그만큼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金官伽耶의 弱化는 그 동안 가야제국 내에서 금관가야 못지 않은 발전상을 보이고 있던 아라가야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금관가야를 대신하여 교역선도국으로 대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것이라 추정하였고 이러한 아라가야의 움직임은 내부적으로 아라가야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가야제국내의 중심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던 다른 가야제국들의 반발을 사 '포상팔국의 난'을 야기시켰다고 보았다.

기존의 논고에서는 포상팔국의 난을 금관가야가 약화의 기미를 보이자 다른 가야제국들이 그에 도전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본고에서는 《三國史記》列傳에서 加羅를 阿羅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일정한 논거를 토대로 그대로 신뢰하여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금관가야가 본격적으로 약화되고 아라가야가 가야제국내에서 교역권의 행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맹주국'으로 등장하는 것은 4세기 초엽 낙랑·대방군의 멸망이후 라고 보았다. 이것은 고김해만의 쇠퇴라는 단순한 내부적인 약화 요인이 지속되어 온데다가 명맥상이나마 유지하여 오던 중국군현들과의 교역루트마저 단절되는 외부적인 요인까지 가세되어 교역권의 선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다른 가야제국들에게 행사하여오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그로 인하여 분산된 교역권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阿羅와 卓淳과 같은 국가에 편중되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라가야가 다른가야 소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듯 다른 가야제국들을 군사적으로 통솔할 만한 세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제 4장에서는 《宋書》倭國傳에 나타난 중국황제가 왜왕에게 제수한 爵號 문제를 재해석함으로써 5세기대의 가야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기존에 일본 학계에서는 다수가 이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5세기에 왜가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을 그 영역권 내에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중국이 주변의 조공국들에게 주던 爵號는 실질성을 지니지

않은 형식상의 회유책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전통적 관습과 같은 것이었다.

또한 爵號의 구체적인 형태는 대개는 국가의 위상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나, 《宋書》 倭國傳에 나타난 왜의 爵號의 경우에는 한반도 남부 국가들에 대한 침략의 야욕이 내재된 것으로써 왜가 오랜 세월 수차에 걸쳐 스스로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 문제로 왜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록 왜의 당시 위상과는 어울리지만 '명목상'제수 하였다고 보는 관점을 피력하였다.

제 5장에서는 앞서 4장에 걸쳐 주제별로 전개한 논지를 시대순으로 요약·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된 본고의 검토결과 4-5세기 가야의 대외관계에 따른 성격은 적어도 대외적으로 주변의 백제나 신라 왜에 비해 다소 약한 국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기존의 시각과 같이 백제나 왜에 종속된 상태에서 외교관계를 이루지는 않았고 오히려 지리적인 잇점뿐 아니라 유동적인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및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적어도 5세기 말까지는 주어진 국력의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독립적인 대외관계를 펼쳤다고 파악된다.

參 考 文 獻

1. 原典

《三國史記》: 金富軾(李丙燾 譯註), 1994, 乙酉文化社

《三國遺事》: 一然(李民樹 譯), 1993, 乙酉文化社

《日本書紀》: 田溶新 譯, 1992, 一志社

《三國志》 : 景仁文化社

《後漢書》 : 景仁文化社

《舊唐書》 : 景仁文化社

《宋書》 : 景仁文化社

《南齊書》 : 景仁文化社

《晋書》 : 景仁文化社

《新唐書》(東夷傳新羅關係資料) : 1988, 慶熙大學校 傳統文化研究所

《通典》(加耶史史料集成) : 金泰植·李益柱 編, 1992, 財團法人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翰苑》 : 張楚金(竹內理三 校訂·解說), 1977, 大宰府天滿宮文化研究所

2. 著書 및 論文(著者 가나다순)

1) 國內

郭鍾喆, 1990, 〈洛東江 河口域에 있어서 先史~古代의 漁撈活動〉《伽倻文化》第三號, 財團法人 伽倻文化研究院

權珠賢, 1993, 〈阿羅加耶의 成立과 變遷〉《啓明史學》第四輯, 啓明史學會

金秉模, 1987, 《한국인의 발자취》, 정음사

金世基, 1983, 〈竪穴式墓制의 研究-加耶地域을 中心으로〉《韓國考古學報》14, 15

김석형,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 , 1988, 《초기조일관계사》(하), 사회과학출판사

- , 1990, 《고대한일관계사》, 한마당

金元龍, 1967, 〈三韓時代의 開始에 關한 一考察〉《東亞文化》7輯

金鍾徹, 1988, 〈北方地域 加耶文化의 考古學的 考察-高靈·星州·大邱를 중심으로-〉《韓國古代史研究》1, 韓國古代史研究會

金廷鶴, 1990, 〈加耶의 歷史와 文化〉《韓國上古史研究》범우사

金鉉球, 1993, 《任那日本府研究-韓半島南部經營論批判-》, 一潮閣

- , 1994, 〈4세기 가야와 백제·야마토왜의 관계〉《韓國古代史論叢》6, 財團法人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金泰植, 1992, 〈加耶諸國聯盟의 成立과 變遷〉,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 , 1994, 〈廣開土王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韓國古代史論叢》6,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南在祐, 1995, 〈加耶史에서의 '聯盟'의 意味〉《昌原史學》第二輯, 昌原大學校 史學會

文暻鉉, 1977, 〈伽耶聯盟形成의 經濟的 考察〉《大邱史學》제12·13, p.48

朴東百·李盛周·金亨坤·金奭周, 1992, 《咸安阿羅伽耶의 古墳群(1)-道項里·末山里 精密調査 報告-》, 昌原大學

朴時亨, 1966, 《廣開土王陵碑》, 社會科學院出版社

박진석, 1993, 《호태왕비와 고대조일관계연구》, 연변대출판사

朴鍾益, 1994, 〈西部慶南地域의 古代山城에 대한 연구〉 《慶尙史學》

白承忠, 1989, 〈1~3세기가야세력의 성격과 추이-수로집단의 등장과 포상팔국의 난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徐載仁, 1990, 〈伽耶·新羅 長頸壺에 관한 硏究〉,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申敬澈, 1982, 〈釜山·慶南出土 瓦質系土器〉 《韓國考古學報》 12

-　　, 1986, 〈釜山 久瑞洞 出土의 瓦質土器〉 《嶺南考古學》 2

-　　, 1991, 〈金海大成洞古墳群의 발굴조사성과〉 《伽倻文化》 第四號, 財團法人 伽倻文化硏究院

安在晧·宋桂鉉, 1986, 〈古式陶質土器에 관한 약간의 考察〉 《嶺南考古學》 1

安春培, 1992, 〈廣開土王碑文硏究(1)-碑文의 文段과 解釋을 中心으로-〉 《考古歷史學志》 8

禹順姬, 1989, 〈慶南地域의 6세기 土器硏究-土器定型化 過程에 대해-〉, 경북대석사학위논문

王健群(林東錫 譯), 1985, 《廣開土王碑硏究》, 역민사

尹錫曉, 1990, 《伽耶史》, 民族文化社

-　　, 1994, 〈阿羅伽耶에 關한 硏究〉 《伽倻文化》 第七號, 財團法人 伽倻文化硏究院

윤선·장두곤, 1994, 〈古金海灣〉 《부산의 지사(地史)와 경관》

李健茂,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Ⅰ)〉 《考古學志》 1

-　　, 1991,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Ⅱ)〉 《考古學志》 3

李基東, 1993, 〈城邑國家와聯盟王國〉 《韓國史講座》(古代篇), 一潮閣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李盛周, 1993,〈1~3세기 가야 정치체의 성장〉《한국고대사논총》5, 財團法人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李永植, 1983,〈加耶諸國의 國家形成問題〉,高麗大學校 大學院碩士學位論文

李賢恵, 1988,〈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변천〉《한국고대사연구》1,한국고대사연구회

李憲載, 1990,〈伽耶諸國의 國家形成에 關한 研究-金官伽耶를 中心으로 한 移住民의 役割 및 經濟的 背景과 關聯하여〉,漢陽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이희진, 1994,〈4세기 중엽 百濟의 '加耶征伐'〉《韓國史研究》,한국사연구회

2) 外國

高寬敏, 1990,〈高句麗廣開土王碑の新羅救援戰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27

菅政友, 1891,〈高句麗好太王碑銘考〉《史學雜誌》24(2-11)

鬼頭清明, 1976,《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吉川弘文館

那珂通世, 1893,〈高麗古碑考〉《史學雜誌》49(4-12)

末松保和, 1956,《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武田幸男, 1989,《高句麗史と東アジア》,岩波書店

山尾幸九, 1989,《古代の日朝關係》, 推選書

延敏洙, 1994,《日本古代國家の對外關係研究》,九州大學博士學位論文

鈴木英夫, 1987,「加耶·百濟と倭」《朝鮮史研究會論文集》24

鈴木靖民, 1985,《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 1988,〈好太王碑の倭の記事と倭の實體〉《好太王碑と集安の壁畵

古墳》(讀賣テレビ放送編)，木耳社

李永植，1993，〈加羅聯盟說の再檢討〉《加羅諸國と任那日本府》，吉川弘文館.

田中俊明，1992，《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吉川弘文館

井上秀雄，1976，《任那日本府と倭》，寧樂社

Abstract

The Study on the Nature of KAYA'S Intern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Fourth and the Fifth Centuries

LIM BEORM SIK

DEPARTMENT OF HISTORY

MAJOR IN KOREAN HISTORY

GRADUATE SCHOOL

ADVICED BY YOON SUK HYO

IN HANSUNG UNIVERSITY

The traditional studies on Kaya's intern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fourth and the fifth centries have been based on the simple thought that Kaya was just an attached country to Baekce or Wae(倭). Those studies asserted that Kaya could not form a strongly concentrated ancient kingdom like its neighboring three states inside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Kaya had always been internally divided.

However, it is too formal logicity if we consider a country which does not reach the internal unification as one with so weak power that it cannot act indenpedently and rely on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care of Koguryo , which was one of the southern three kingdom in the korean peninsular, it defeated Sui(隋) and T'ang(唐) several times, which were the unified countries of ancient China. We can find the similar story in the

western world. Greece was seperated into several states, such as Athens and Sparta. Nevertheless, Athens could have strong power to defeat the Persian troops.

These examplary historic facts show that the international leadership depends not only on the changeable power relation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ut also on the national coherence in the contemporary situation. The international leadership can never be simply measured by the bulk of the national power when the nationan is still under the development.

This story can be applicable to Kaya. That's the reason why I deal with the following facts in this study. First, I investigated Japanese historical book 《日本書紀》. There has been some studies about Kaya on the chapter of 46th Shingong period(神功紀46年條). Based on those studies, misled schola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time insisted that Kaya was the place where Imnailbonbu(任那日本府)(Japanese colony in Kaya) used to be set up, which proved their prejudice.

Our domestic scholars have felt disgusting about the above study trends. Naturally, they've rejected the research on Kaya for some considerable years. They've even refused to criticize the historical authenticity of that material, distrusting the book 《日本書紀》 itself. But, recently, they excavated some of historically important relics and remains, which proves that there existed the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Intrigued by the foundings, some of our domestic scholars has come to realize that the historical materials on Kaya has been too scant. Then, they make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articles of 《日本書紀》. However, the method of interpreting the historical reports have been mainly focused on proving that the theory of Imnailbonbu was false. Therefore, ignoring concrete situation in the historical progress, we've only insisted the

dialectical interpretations of the theory of Imnailbonbu.

Let me put it in the concrete. Repulsing the theory that Kaya was conquered and ruled by the ancient Japanese, our scholars have made every effort to prove that it was Baekche not japan which had an influence over kaya as the subjective power. It is certain that their point of view is correct in some sense. Because, archeologically, Japan's acting upon Kaya seemed to be most unlikly but Baekche's effect has been proved in a certain degree. Therefore, their concern appears more plausible. However, my view of Baekche's conquest and colonialization of Kaya so far was not asserted on the basis of historical evidences. Therefore I'd like to support this theory with other evidences.

By the way, our own historians deny Shilla's being conquered and colonialized by any countries. while they admit that kaya was conquered by Japan or Baekche. That's because Kaya's process of the internal development and the international participation have been judged by the prejudices which is "Kaya was only a small kingdom with a so weak power that it couldn't help but be annexed by Shilla". Overcoming these shortcomings and examining Kaya with the view that it was more subjective in its diplomacy, I've assured that the content of singong period of 《日本書紀》 contains just a diplomatic urgeness upon Kaya, which was resulted from the agreement of interests between Baekche and ancient Japan.

Next, I consulted the inscription of the monument for the great king Kwanggaeto(廣開土大王). From the chapter of Kyoungjwa period(庚子年條)of the inscription, we can trace the relationships among Kaya, Baekche and ancient Japan, which shows the same international situation as in the reports appearing on the chapter of 46th Shingong period in 《日本書紀》. The inscription reveals that the three states made an allience among themselves and kept the favorable relationship for a while. and that their

military movements were made independently.

On this basis, I deny the previous theory that Kaya's troops were hired by Baekche or ancient Japan. Instead, I assert that Kaya's army was peaceful helper for the two states, and acted on it's own. In this paper, I also showed how Kaya's leading group had been reorganized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I made it clear how Arakaya(阿羅伽耶) in Haman(咸安), which was described as a more powerful state than Kumkwankaya(金官伽耶) of the formal Kaya period in the inscriprion of the monument of the great king Kwanggaeto, arose as such a strong country in place of Kumkwankaya.

finally, I looked into the chinese book 《宋書》, especially the section on Japan which were severly distorted by the ancient Japanese historians and were taken advantage of for the evidence that Kaya was attached to ancient Japan. The book reads that a ancient Japanese king requested to the Chinese emperor a tittle which encompassed the meaning of Japanese ownership upon the southern countries i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Kaya. I've examined the meaning of that tittle, and found ancient chinese emperor invested ancient Japan with the title in order to coax ancient Japan. for china, it was needless to struggle with Japan on the matter of title which would led to the deteoriation in mutual relationship.

In addition, I've demonstrated that Kaya was a entirly independent country like neighboring Baekche, Shilla and ancient Japan. I'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Kaya also made active cultural exchanges with China, drawing on the fact that King Hagi(荷知) of Kaya was given the tittle of "輔國將軍本國王" by the Chinese emperor, By the way, unlike Japanese title, the title was invested considering the state's status. That is, kaya was invested with title as one of the tributary states as usual.

Now, let me put together the above evidences. It is an acceptible fact that Kaya had rather weak power compared to the neighboring states,

Baekche, ancient Japan and Koguryo. But I could not find the evidence that Kaya was attached state to either Baekche or ancient Japan in doing her deplomatic policy, as the traditional theories have asserted.

日文 抄錄

4 - 5世紀の伽耶の対外関係の性格に関する研究

林 範 植
史 学 科
韓 国 史

これまで、4-5世紀に該当する伽倻の対外関係に関する研究には、百濟や倭に従属していた程度であるという観念の下で出発した。これ自体に伽倻が韓半島の他の三国のように確固とした一国家として古代国家を形成できないで、常に分立していたからであるという認識を前提としたためである。しかし、伽倻自体が統一をはたせないでいたからといって、国力が弱いから対外関係において自主的でなく周辺国に従属して外交をしたというのは、としきてきすぎる論理であろう。

韓半島内では、高句麗・百濟・新羅などの三国が分立していた狀態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中国の統一国家である隋と唐との大軍を追払ったことがあり、おなじく西洋のGREECEでは、ATHENEとSPARTAをはじめとした国家に分立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PERSIAの大軍を追払ったことがあるからである。こうしてみると、対外関係で主導權というのは、流動的な国際社會の力学関係および該当国家の狀況変化による凝集力の是非によって左右されることであって、

決して国家発展段階による単純な国力のおおきさだけでは、判断できないであろう。

このような点は、伽倻の場合も同じ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したがって、これを證明する本考は次のような点を究明した。

まず、『日本書記』神功紀49年(369)条に現われた伽倻に関して、これまでには主に日帝時代の御用学者たちが過去植民史学に系譜をおいて倭政権の植民地的機関である「任那日本府」が設置された国家という先入見を表明してきたことがあり、このような傾向に拒否を感じてきた国内学界では相当な期間の間『日本書記』全般にわたった不信感とともに、この史料にたいしても史料批判さえためらう程度で、研究が忌避されてきた。しかし、最近、韓半島の南部と日本列島で相互間文化交流の跡を現わす遺跡・遺物などが発見されえた土台の上で、伽耶史に関する史料の貧困感を感じるようになると、国内学者たちもこの史料に関する部分的な理解を試みる。

しかし、その史料理解方法が主に、日帝の御用学者たちによって主張されてきた任那日本府説の虚偽性を證明するのに焦點を合わせ、歴史の可変的な流動狀況による細部的な事件の変化は無視されたまま、客観的法則にだけ依存してきた。

具体的に、日帝の御用学者たちが伽耶征伐および經營の主体が倭だと主張したに対して国内の学者たちはその主体を百濟にかえてみるところに重點を置く一方、同時になされた'新羅征伐'とその'支配'は否定しているのがそれである。

もちろん、考古学的な側面で倭の伽耶に対する影響力は、ほどん

ど存在しない実情であるが、それに対して百濟の伽耶に対する影響力は、ある程度證明され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このような点がもっと説得力があるのは事実であるが、それをあえて百濟による伽耶の‘征伐’と‘支配’という形態と認識できる根拠は確認できないと思われ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国内学者さえ同じ記事で新羅に対する‘征伐’と‘支配’は倭によったものであれ、百濟によったものであれ、否定しながら、伽耶に対しては認めているということは伽耶の内部的発展段階とそれによる対外関係的な位相に対して‘伽耶は新羅によって合併される程度に国力が弱小した国家’という結果的な先入見ないし、客観的法則の下で認識してきたからであると思われる。　このような点を克服して、もう少し、伽耶を主体的な立場で認識した結果、本考では史料で反映された倭の伽耶の‘征伐’の記事を百濟と倭、両国の利害関係による伽耶に対する‘外交的圧力’の程度に止まったということが確認できた。

そして、「広開土王碑文」の庚子年条に現われた伽耶と百濟と倭との関係は、『日本書記』神功紀46年条で同盟を成し得たことを反映する三国の対外関係がそのまま継承されているものとして、軍事作戦が独立して行われたことを根拠に、伽耶軍が百濟と倭の傭兵であったという既存の学説とは異に、二つの国に対して対等な協調者として活動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合わせて、伽耶の対内的な勢力の再編過程をも考えてみた。具体的に、「広開土王碑文」の中の伽耶前期の金官伽耶により、かえってもっと強力な勢力であったことを暗示している威安の阿羅伽耶が、

どのようにして金官伽耶にかわて、そんな強国に浮上するようになったかを確認した。

終わりに、5世紀の伽耶の対外関係の性格を究明するためには、既存の日本の学者によって伽耶が倭の植民地的国家であったという根拠の一つとしてもっとも多く歪曲されてきたこととして中国と史書である『宋書』の倭国伝に倭王が中国の皇帝に要求している加羅を含め韓半島の南部の国家などの領有権を主張する爵号の意味を考えてみた。

その結果、中国の皇帝が倭王に受与した爵号とは、実質的な内容をともなっているものではなく、中国が伝統的な朝貢国の一つである倭をなだめるために与えた形式的なこと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た。

合わせて、中国の皇帝が加羅王である荷知に与えた'輔国将軍本国王'という爵号は百濟や倭などに中国の皇帝が与えたものとおなじく、朝貢国などに与える形式的なことであるのは間違ないが、正常的な狀態ではこの爵号が国家の位相を考慮して選定されたこと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よって、当時の伽耶が周辺の百濟と新羅と倭に劣らない相当な自主性を備えている国家であったし、それを元にして中国との活潑な交流をもっていたことを究明した。以上の本考の考察内容を総合してみると、伽耶は百濟と高句麗と倭など周辺の国家などと比べ、国力が多少劣勢に置かれていたことだけは認定されうる側面であるが、既存の学説のように、対外関係を行う上で百濟と倭の従属国であったという点は確認してみ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ある。